

博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黃 源 泳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1991. 2

檀 國 大 學 校 大 學 院

教育學科 教育史教育哲學 專攻

梁 鎮 健

515.1.0215
3 229X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1991年 2月

檀國大學校大學院

教育學科 教育史教育哲學 專攻

梁 鎮 健

梁鎮健의 博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查委員長 韓 基 彥 ㊟

審查委員 黃 源 泳 ㊟

審查委員 南 廷 杰 ㊟

審查委員 朴 天 圭 ㊟

審查委員 李 秀 遠 ㊟

1991年 2月 日

檀國大學校 大學院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教育學科 梁 鎮 健

指導教授 黃 源 泳

本稿는 濟州島만이 지니고 있는 精神文化의 特殊性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濟州 教育思想史에 관한 研究이다. 本研究는 제주인의 歷史的 實存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歷史主義 存在論을 긍정하였으며 본질적으로 政治엘리트中心으로 이루어지는 中央史敍述 위주의 教育史的 限界를 극복함으로써 朝鮮朝 地方教育의 한 양상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로 提起되었다. 이를 위해 本 研究는 思想의 社會史(histoire sociale des idées)의 研究方法論을 借用하였으며 G.Lukács의 總體性(totality)의 개념을 援用하였다.

本研究는 우선 제주도 教育의 배경인 제주도의 歷史, 文化, 地理的 特性을 살펴보고 아울러 朝鮮朝 제주도 교육의 現實的 條件으로서 出陸抑制政策과 流配政策 등 諸사회기능의 教育的 意味를 규명하였다. 本 研究의 核心的 테마인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에 대한 논의는 조선조 제주도 교육현실의 變化推移를 준거로 하여 조선조를 4期로 나누고 구분된 각 시대 나뉠의 구체적 내용을 주제별로 서술함으로써 각 시대의 教育的 特徵을 드러냈다.

朝鮮前期는 조선조의 體制整備 차원에서 성리학적 國家敎學理念이 정책적으로 強制됨으로써 제주 교육이 客體化되던 時期이다. 따라서 選上政策이나 地方官政策, 圖書政策 그리고 鄕校政策, 科擧政策 등의 조선조의 對제주도정책을 통해 조선전기의 濟州 教育은 왜 客體的 立場에 限定되어야 했으며, 제주도는 성리학적 封建敎育의 理念을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朝鮮中期는 出陸抑制政策에 의해 對外的인 教育進出이 봉쇄됨으로써 제주 교육이 孤立되던 時期이며 내부적으로 書院의 건립과 黨爭儒人들과의 師友講習을 통해 나름대로의 教育的 活力을 모색하던 때이다. 따라서 濟州 教育의 孤立的 現實과 그러한 현실의 對峙的 教育機能으로서 제주도 橋林書院의 내용과 流配政策에 의해 來島한 流配人들과의 教育關係를 조망해봄으로써 濟州 教育의 中期的 特性을 규명해 보았다.

朝鮮後期는 시대적 變化와 葛藤에 대한 제주인들의 問題意識이 고양됨으로 인하여 教育的 自生力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制度的 禁壓政策을 견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되던 시기이다. 이로 인해 出陸에 의한 直接受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濟州人들의 教育的 主體力이 신장되게 된다. 따라서 教育的 主體力의 背景과 內容 그리고 그것의 展開過程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또한 性理學에 대한 反政的 흐름으로 대두된 實學思想과 正統性理學의 전통으로서 斥邪衛正思想은 제주도의 教育的 主體力과 어떤 상관 속에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朝鮮末期는 後期에 들어 확보된 教育的 主體力을 近代教育運動 차원으로 승화시키던 시기이다. 따라서 제주도 나름의 近代教育에 대한 開眼의 過程과 그 內容이 논의되었으며 開化思想家들과 濟州人들의 交互關係 역시 近代教育思想의 전개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조선조 각 시기별의 교육적 특징을 토대로 할때 流配人과 濟州人과의 師友講習에 의한 教育思想의 전통이 이루어지는 例는 제주도만의 教育構造이며, 제주 교육은 朝鮮後期를 근간으로 하여 階層의 個別的 教育構造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교육사상의 質的 轉換을 하게 되었으며 제주도 나름의 토착적이고도 주체적인 教育的 力動性이 朝鮮朝 全般에 걸쳐 發展的으로 貫流되고 있다는 사실을 示唆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示唆는 現代의 濟州 教育에도 유용한 것으로 教育의 活力과 方向性에 대한 參考로서 큰 의의가 있다.

目 次

國文要約

第1章 序論	1
第1節 問題의提起	1
第2節 研究의 目的	6
第3節 研究의 方法	10
第4節 研究의 動向과 課題	18
第5節 用語의 定義	22
第2章 朝鮮朝 濟州島의 背景과 特性	25
第1節 歷史的 背景	25
第2節 文化・地理的 特性	29
第3章 朝鮮朝 濟州 教育의 條件	35
第1節 出陸抑制政策의 意味	35
1. 出陸抑制의 政策	35
2. 出陸抑制의 意味	39
第2節 流配의 外延과 內包	42
1. 流配의 外延	42
2. 流配의 內包	45
3. 比較示唆	49
第4章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의 展開	54

第1節 時代區分の 意味와 内容	54
第2節 朝鮮前期 教育思想史	59
1. 前期의 主題的 特徵	59
2. 對濟州島政策의 教育的 意味	65
3. 流配人の 教學活動	80
4. 濟州人と 濟州 教育	89
第3節 朝鮮中期 教育思想史	98
1. 中期의 主題的 特徵	98
2. 書院設立과 儒賢配享	99
3. 流配人の 師友講習	116
4. 濟州學人	121
第4節 朝鮮後期 教育思想史	125
1. 後期의 主題的 特徵	125
2. 濟州 鄉黨文化圈의 確立	125
3. 實學의 展開	138
4. 斥邪衛正의 展開	148
5. 濟州學人	151
第5節 朝鮮末期 教育思想史	157
1. 末期의 主題的 特徵	159
2. 濟州近代教育의 胎動	159
3. 開化思想의 展開	173
第5章 結論	181
參考文獻	191
英文抄錄	199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의 時代精神 (Zeitgeist)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도적인 思想體系가 있게 마련이다. 시대정신과 사상체계의 정립은 따라서 한 시대의 精神文化를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文化的 實踐이다. 그러한 정신문화와 교육과의 動的 聯關을 역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教育思想史의 과제라면 濟州教育思想史는 일차적으로 濟州島만이 지니고 있는 정신문화의 特殊性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教育의 歷史이다.

제주도 정신문화의 특수성이란 곧 제주 교육사상사의 知的 適合性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認識體系이다. 물론 A.J. Toynbee의 지적처럼 스스로 自足的이고 自명한 歷史는 없다. 대개의 경우 역사의 원인은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원인들로부터 유래하는 諸動因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文化의 역사개념으로서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정신문화를 성격 구분하는 것은 위험과 독단이 수반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은 일련의 解釋學的 循環 (hermeneutische Zirkel)의 문제로서 相互規定的이기 때문에 제주 교육사상사의 이해를 위해 일차적으로 제주도 정신문화의 특수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특수한 정신문화는 다시 말하자면 제주도의 특수한 教育現實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현실은 일정한 사회체제에서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인간으로 조직된 教育實踐의 總體로서 거기에는 政治, 經濟, 文化 등 모든 社會機能이 서로 법칙적인 관련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조선조 제주 교육사는 조선조 제주도의 교육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諸사회기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그 출발점으로 하게 된다. 이를테면 個別獨立國家意識으로부터 배태된 分離主義的 性向이라든가 중앙집권체제 구축방안으로 시행되었던 流配政策이나 出陸抑制政策등은 조선조의 다른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주도 특유의 특수한 歷史社會的 機能들이다.

이 역사사회적 기능들은 제주인들 고유의 生存方式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제주 교육의 형성에 주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내용들이다. 이것은 곧, 일반적으로 육지부 문화권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여타의 朝鮮朝 教育史와 비교하여 異質性을 規定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는 제주 교육사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기능들은 거의 전적으로 제주도의 특수한 정신문화를 구축하는 基本動因들이기 때문에 제주 교육사연구는 教育制度史 研究나 教育行政史 研究보다는 우선 教育思想史 研究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다. 교육사상사라는 것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뿌리를 박고 있는 精神의 運動史 같은 것이라면 제주도의 그같은 정신문화는 교육사상사의 마땅한 歷史的 “背景”인 것이다. 결국 제주도 정신문화의 특수성에 의존하여 개진되는 제주도 특유의 교육현실은 독자적인 개성과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인들의 歷史的 實存 그 자체이며 제주 교육사상사란 그 내용의 역사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제주도 정신문화의 특수성을 통해 제주 교육사상사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간의 삶과 체험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상황들과 제도들의 이해, 즉 文化史的 내지 精神史的으로 구성된 歷史記述(Geschichtsschreibung)에 의한 역사적 관련성들의 理解(das Verstehen)라는 Dilthey 類의 精神科學(Geisteswissenschaft)的 歷史認識論의 방법규정과 일치된다.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과거에 있어 意味(Bedeutung)있는 것을 파악하고 역사적 세계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인식관심이 바로 Dilthey 歷史認識論의 핵심이다. 이런 경우 教育學은 여러 삶의 표현들을 오로지 교육의 관점 아래에서(sub specie educationis) 파악하려는 노력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모든 문화현상의 전체에 대한 교육적 해명이 되며 教育史는 文化史의 성질을 띠게 된다.

이러한 Dilthey의 역사인식론은 역사의 普遍性보다는 그 特殊性에 따라서 역사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歷史主義(Historismus)的 視角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의 주제는 모든 인간행위의 특수성이라는 歷史主義의 주장은 H.Meyerhoff같은 사람들에 의해 「역사의 특수한 성질은 일반적인 법칙이나 일반적 원리를 진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잠겨있는 특수한 역사적 형식의 무한한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견해」¹⁾로서 定式化된다. 이것은 人間實存의 歷史性을 확인하는 일이 인간의 자기이해에 있어서 불가결한 국면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한 역사주의의 성과였다.

1) Hans Mayerhoff, The Philosophy of History in Our Time,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1959, p.10.

본 연구는 제주인들의 歷史的 實存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Dilthey類의 歷史主義 存在論을 긍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생활에서 國家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를 이룬바 理念이 구현되는 궁극적 실천 내지 역사적 個體로 파악하고, 국가를 위한 지배자의 결단과 행동을 중요시 하여 정치적 무대만을 역사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삼았던 역사주의의 視角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특히 歷史的 事實(historical facts)의 비중을 극대화시킴으로써 年代記같은 文獻學的인 歷史나 文獻學的 記錄物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교육사 서술양식으로서 實證的 歷史主義 方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王朝中心의 역사과정에 대한 史料와 양반중심의 部分文化의 내용만을 다룸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교육의 역사에 대해 주변적이며 경직된 사고를 배태시켜 그 결과 교육이라는 것을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인 것처럼 誤導하고 지방은 意識의 邊境地帶²⁾로 취급하였던 한국교육사연구의 전통적인 실증적 서술방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즉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밝히고자 하는 실증주의적 입장의 여러가지 肯定性에도 불구하고 文獻解讀을 통해 주로 사건과 개인중심의 政治史나 인습적인 事件史를 중시함으로써 초래한, 文獻考證的이며 編年體的이며 또한 制度中心의이고 政治엘리트中心의인 방법 및 그로 인한 中央中心史 서술위주의 한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實證論的 史學에 대한 수정 내지는 반동 과정에서, 국가중심의 정치사 편중에 대한 역사주의의 극복의 일환으로 시간

2) 사람은 낱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濟州島로 보내라는 冷笑的인 言及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의 단일차원 속에 한정된 局面史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日常社會生活의 歷史(history of everyday social life)로서 장기지속적인 全體史를 강조하는 Annales學派와 사회적 문제(Soziale Frage) 추구를 위해 Annales學派의 構造史(Strukturgeschichte) 연구방법론을 받아들여 적극 활용하였던 독일 社會史(Sozialgeschichte)에 의한 역사연구의 停滯性 극복을 위한 방법론적 가능성을 주목한다. 아울러 역사보다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민중의식을 중시하는 民衆史學의 역사해석은 政治엘리트中心, 中央中心의 역사서술에 대한 적극적 대응양식으로서 검토된다. 이렇게 역사학의 새로운 概念, 새로운 方法에 의해 창출될 수 있는 생산적인 인식 가운데 하나가 곧 地方史研究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사야말로 정치엘리트중심의 국가정치사 편중적 歷史記述을 극복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사연구는 정치엘리트중심의 장구한 중앙집권적 문화전통과 그에 종속된 연구풍토로 인해 지방교육사에 관한한 철저히 停滯狀態이며 실증주의적 타성에 머문채 여전히 문헌고증적인 중앙사 위주의 서술방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육사 연구는 분명히 그 研究對象分野의 폭과 깊이에 大變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올바른 지방교육사상사 연구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올바른 지방교육사상사 연구는 地方郷土 民衆들의 日常生活의 歷史를 중심 대상분야로 삼아야 하며 나아가 地方郷土 民衆들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고 地方郷土 民衆들의 自發性과 自主性에 기초하여 民衆的 地盤을 가진 역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地方教育思想史는 中央教育史나 中央一般史의 한부분이

아니며 그 자체가 獨自的인 教育史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즉 지방교육사 상사는 단지 國家史의 補助役에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存在理由와 그에 상응하는 獨自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獨自性을 갖고 獨自的 研究分野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자각은 과거 설득력이 약한 巨視的 眼目에 의한 중앙사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과 歷史理解는 개인들의 經驗世界에서 출발하여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사상사 연구의 성찰적 계기 마련과 아울러 朝鮮朝 地方教育의 思想史的 獨自性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로써 제기된다.

第2節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主題는 지방사는 단지 중앙사의 보조역에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存在理由와 그에 상응하는 獨自性을 갖고 있다는 인식 아래 地方史的 證據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의거, 제주 교육 나름의 地域性(locality)을 규명해 봄으로써 제주인들의 삶과 관련한 제주 교육의 正體性(identity)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교육사 研究不在라는 한국교육사학계의 행편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지방교육사로서 제주 교육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중앙에서는 물론 제주도에서조차도 前無後無한 실정이다. 물론 道史의 차원에서 하청연구에 의해 官撰된 『濟州教育史』³⁾가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 전적으로 近代와 現代에 많

3)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濟州:濟州道教育史編纂委員會, 1979.

은 章이 할애되어 있으며 그것조차도 教育年代記로서 한정되고 있다. 그에 비해 官撰史로서 『濟州教育通史』⁴⁾는 비교적 전통시대의 제주도 교육의 역사를 설명해 보고자 했으나 專攻者에 의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과제를 엄선하지 못했던 탓으로, 부분적으로는 제주 교육사라기보다 濟州教育年誌史가 되어 버렸고 전체적으로는 또 다른 종류의 韓國教育通史가 되어 버린 오류를 범하였다.

『濟州教育史』는 전체 768쪽의 국배판형(20×26cm)으로 出版되었으며 目次는 第 1 篇, 光復以前の 濟州教育, 第 2 篇, 現代의 濟州教育, 第 3 篇, 教育支援과 教育의 展望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가운데 第 1 篇은 第1章, 李朝時代의 濟州教育, 第2章, 近代 및 日帝下의 濟州教育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본량은 전체 768쪽 가운데 103쪽으로 특히 第1章의 李朝時代의 濟州教育은 24쪽 밖에 안되고 있다. 즉 朝鮮朝의 濟州教育은 『濟州教育史』敍述에 있어 전체 3 % 정도의 배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그 內容도 1974년에 출판된 『濟州教育通史』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으로 官撰史로서 무성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近代와 現代의 濟州教育에 관한한은 비록 그 內容이 教育行政史나 教育制度史에 한정되고 그 진술이 年代記적으로 흐른 감이 없지는 않으나 資料提示 등이 충실하여 近代와 現代의 濟州教育을 이해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4) 濟州道教育研究院, 『濟州教育通史』, 濟州 : 濟州道教育委員會, 1974.

『濟州教育通史』는 전체 205쪽의 국판형(15×21cm)으로 출판되었으며 目次는 I. 序言(11), II. 古代教育(12~17), III. 中世教育(18~102), IV. 近世教育(103~116), V. 最近世教育(117~125), VI. 學校沿革錄(126~20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李朝時代에 해당되는 것은 25쪽에서 부터 102쪽으로 약 37 %에 해당되는 77쪽의 본량을 차지하고 있다. 李朝時代 教育은 1) 濟州 鄉校, 2) 學堂과 書院, 3) 書堂, 4) 濟州에서의 鄉試, 5) 學問의 發達과 人權伸張, 6) 教學에 힘쓴 牧民官, 7) 流謫人의 教學, 8) 濟州士林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조선조 제주교육의 특수한 상황과 내용을 정리하기 보다는 韓國教育史 一般과 별다른 구분없이 混在되어 논의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史料에 대한 「教育學的 解釋」이 미흡한 관계로 일반적인 鄉土史의 진술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濟州教育史의 先行研究로서는 최초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地域 認識을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사를 사상사적 측면에서 정립하고자 했다. 같은 이유에서 筆者는 과거 수 편의 글⁵⁾을 통해 조선조 제주도 교육의 역사적 진행, 변천과정을 드러내 보고자 했었다. 이 글 속에서 필자가 던진 의문은 한 시대의 思考方式에 통일성을 부과하는 내면화된 原理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의 展開過程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역시 이 의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사연구는 사상사 체계의 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제도적 차원의 형식 교육에 대한 해명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비형식 교육에 의한 사상사적 계승에 대한 조망이 집중되어야 비로소 조선조 제주 교육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접근을 우선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사상사적 연구는 그 어떤 한 시대의 교육적 의지를 그 시대의 社會思想의 흐름이나 時代精神 속에서, 그리고 教育家 또는 教育 論者の 教育事業과 教育精神 속에서 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찾으려는 연구이

-
- 5) * 秋史 金正喜의 濟州教學活動研究, 『耽羅文化』第 6 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7.2.
 * 濟州五賢의 教學活動研究, 『耽羅文化』第 7 號, 1988.2.
 * 濟州島 禾北地方의 教學文化, 『耽羅文化』第 8 號, 1989.2.
 *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研究, 『耽羅文化』第 9 號, 1989.3.
 *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研究 -道統을 中心으로-, 『濟州島研究』第 3 輯, 濟州島研究會, 1986.12.
 * 濟州島 朝天萬歲運動의 教學的 意味, 濟州道 北濟州郡廳 用役 報告書, 1989.12.
 * 秋史 金正喜의 濟州師弟 淵源考, 『德齊 申瑬俊博士 華甲論叢』, 1989.9.
 * 濟州流配人의 開化教學活動研究, 『民族文化研究』第23 號,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3.

다. 따라서 교육의 사상사적 연구는 時代精神이나 時代思潮 그리고 특정 思想家의 精神 등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게 되는데 이 경우 교육의 思潮史의 研究나 교육가에 대한 列傳的 研究 즉, 精神史的 研究나 人物史的 研究 등이 동일시 되거나 깊은 관련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정신상태는 아무리 그가 위대한 人物이라 할지라도 同時代의 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意思의 傳達樣式(Verkehrsformen)이다. 따라서 스승과 제자의 교육관계로서의 사전달양식 역시 이 연구의 큰 주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본 연구에서 제반 教學活動의 면모를 중시 하였다. 아울러 조선조 지배사회의 기본적인 본위기와 실천에 대한 지방민들의 同調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이데올로기는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 조선조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와 이들의 意味, 行動에 관한 영역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답해지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해명되어질 내용들이다.

첫째, 濟州教育思想史는 韓國教育思想史와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相異性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부터 기인하는 特徵인가.

둘째, 제주도의 각 時期別 教育思想의 특징은 무엇인가. 出陸抑制政策과 流配政策은 제주인들에게 어떤 教育思想史的 意味를 부여했으며 또한 士禍와 黨爭은 제주 교육사상사와 어떻게 관련이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제주인들이 教育主體로서 성장하게 되는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며

그들이 교육주체로서 획득한 個別的 教育構造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제주도에서 師友의 講習은 어떠했으며 그 學問精神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로인한 제주도 鄉黨文化圈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 특색은 무엇인가. 또한 그것은 조선조 全般의 교육적 특징과 어떻게 대비되는가.

다섯째, 제주 교육사상사의 근본적인 示唆點은 무엇이며 현대의 제주 교육과 전통교육과의 관련은 무엇인가. 현대의 제주 교육에 계승될 교육적 전통은 무엇이며 또한 청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第3節 研究의 方法

教育史는 倫理史와 같이 人間善意志를 추구하는 일종의 精神運動史이다. 따라서 교육사 연구의 기본개념으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 教育思想에 대한 穿鑿이 요구된다. 교육사상은 교육현상의 내용을 기저에서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교육현상의 참된 본질을 파악하려면 마땅히 교육사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의 과정은 사상의 과정으로 된 내적 측면이 있는 행위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역사가가 추구하는 것은 이 사상의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思想의 歷史이다」⁶⁾라는 R.G.Collingwood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란 말 그대로 朝鮮朝라는 과거 濟州島 教育思想의 역사이다. 일반적으로 思想의 歷史

6) R.G.Collingwood, The Idea of History, Oxford:Clarendon, 1946, p.283.

(histoire des idées)는 세 종류의 역사를 포함한다. 즉 거대한 세계체제에 관한 개인주의적 역사, 여론에 의해 표상된 집단적이며 다양한 현실에 관한 역사, 그리고 사고와 감정의 諸형식에 관한 구조적 역사가 그것들이다.⁷⁾ 물론 이것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른바 사상사 연구영역이란 모든 思考形式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도 이러한 사고형식 전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의 교육체제에의 수렴, 확산과정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사상사 연구방법의 振作은 종래의 한정된 政治史學에서 벗어나서 理念史學(Ideengeschichte)의 기초를 구축한 F.Meinecke에 의해서였다. 그는 모든 역사가 人物史(Personalgeschichte)라는 점을 뚜렷하게 전제하고 국가생활만을 대상으로 삼는 좁은 의미의 政治史學의 한계를 벗어나서 보다 넓은 역사적 세계에 시야를 확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生産的인 精神(Produktiver Geist)이라 부르는 위대한 人格性의 이념만을 추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통적 정치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政治的 理念史(Politische Ideengeschichte)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啓蒙主義的 歷史觀에 반대하여 歷史的 個性(historische Individualität)을 강조한 歷史主義的 傳統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참된 역사란 반복적 사례의 집합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교체 불가능한 개성의 역사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7) Jean Ehrard, "Histoire des idées et histoire littéraire", Problèmes et méthodes de l'histoire littéraire, Publications de la Société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Paris, 1974, pp.68~80.

그러나 역사주의가 주장하는 역사적 개성은 精神이 역사의 生産者인가 아니면 精神은 역사의 機能인가 하는 물음에서 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세계에 있어서의 개성의 획득, 발전사상이 갖는 의미에 대한 통찰이 새로운 역사서술의 위대한 업적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그러나 개성의 발견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에 관계된다고 보고 역사적 구체성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個體思想에 한정된 사상사연구에 대한 공박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사상사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은 Annales學派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L.Febvre는 「그 체계들이 등장했던 시대의 다른 출현물들과의 연관관계를 아무런 조심성없이 설정함으로써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현실화되지 않는 정신들로부터 (사상사의) 개념들을 이끌어냈다」⁸⁾고 종래 사상사연구의 경직된 면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그의 경우 문제의 초점은 思考와 社會 내지 世界와의 連接關係에 대한 탐구였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상사연구의 發展的 傾向을 주시하며 보통 철학적 형식화내에서의 체계적 사고에 관한 연구로서의 思想史的 研究方法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체계의 의미를 사회, 정치적 조건에 관련시켜 이데올로기 및 관념의 移植과 擴散, 그리고 流通을 대상으로 삼는 思想의 社會史(histoire sociale des idées)의 研究方法論을 차용하고자 한다. 후자의 방법론은 사회, 정치적 조건은 명백히 정의된 집단 내지 계급으로 하여금 많

8) Febvre, L., "Leur histoire et là nôtre, Annales d'Histoire Economique et Sociale(1928), reprinted in Combats pour l'histoire, Paris, 1953, p.278.

든 적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역사적 순간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J.Kocka는 새로운 社會史 연구대상의 하나로 教育史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⁹⁾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조선조 제주도라는 사회, 정치적 조건 속에서 성리학적 교학이데올로기의 이식과 확산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검토된다.

思想의 社會史(histoire sociale des idées)란 다른 말로 말하자면 社會學的 精神史(soziologische Geistesgeschichte)로서 知識社會學的 思想史라고 할 수 있다. K.Mannheim에 의하면 知識社會學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知識社會學的의 결과와 방법론에 있어서 최고의 결실을 맺고 있는 思想史(history of ideas)의 분야의 연구이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思想史는 사교적 요소의 다양한 유동성을 보여주는데 思考內容(content)의 변동 뿐 아니라 그것에 내재하고 있는 체계적 전제 및 사회적 기반의 변동양상까지를 포괄할 때 思想史는 그 절정에 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思想의 社會史는 思想의 存在拘束性(seinsverbundenheit)의 문제가 하나의 사상사적 연구과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存在拘束性은 의식의 형성과 사회적 조건의 관계연구로서 知識社會學的 思想史의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의식은 그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K.Mannheim의 근본명제이다. 이러한 명제에 입각하여 볼 때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는 제주 교육사상이라는 특수한 精神世界를 경과시킨 사회적 기원으로서 조선조 제주도의 특수한 社會的 條件을 문제시하게 될 것

9) Jurgen Kocka, Sozialgeschichte, Begriff - Entwicklung - Probleme ; Göttingen, 1977.

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의 특수한 思考樣式으로서 教育思想에 대한 천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고의 사회적 기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적절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고양식이 있다」¹⁰ 는 K.Mannheim의 지적을 올바르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精神과 文化現象을 이해하려는 학문체계로서의 K.Mannheim의 知識社會學的 思想史는 문화와 정신적 활동의 산물을 자연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新칸트學派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식사회학적 사상사라는 것이 新칸트學派의 한계인 지식과 실재에 대한 二分法的(dualistic) 觀點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사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新칸트學派의 이분법이란 知識主體(knowing subject)를 설명 혹은 이해되는 對象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인식론적 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新칸트學派는 현실세계 안에서 超越的 主體(transcendental subject)와 認識對象을 구분함으로써 이론과 실재, 역사학자와 그가 살고 있는 역사적 실재를 분리시키는 모순을 가져왔던 것이다.

新칸트學派의 二分法은 종래 사상사연구 경향인 인식대상으로서 原典의 差別을 불가피하게 정당화 하였다. 즉 종래의 사상사연구는 原典(text)과 狀況(con-text)을 二分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둘간의 긴장관계를 유발시켰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상사연구의 관심은 우선 思想의 範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사상사연구가 전통적인 이분법을 당연시 하여 몇몇 위대한 知性에 대한 해석에 치우침으로써 거센 도전을 받고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思想’을 일상인의 ‘意識’의 수준에로까지 확장해

10) K.Mannheim, Ideology and Utopia, New York : Harvest, 1955, preface.

가려는 사상사연구의 최근의 경향은 L.Febvre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Une histoire à part entière)¹¹⁾를 지향하는 全體史(total history)의 프로그램을 보완 내지 대체하여 그 전통적인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全體史는 본질된 혹은 본산적인 사상보다는 소위 전체화된 사상을 강조하는데 이 전체화된 사상이란 곧 원전의 전체화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사상이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사상의 소산인 原典 역시 위대한 知性들만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로소 原典과 狀況의 긴장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원전의 본래적 의미¹²⁾인 “關係들의 그물조직”이 장정된 책을 넘어서 상황에까지 적용됨으로써 원전과 상황은 다 같이 原典化되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대상의 전체화는 인식주체의 본열된 視角(persective)의 새로운 통합을 촉구한다. 말하자면 新칸트주의자들이 당연히 했던 사실 對 개념과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은 제 3의 매개점에 의해 통합될 것이 요구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인식대상의 이분화가 아닌 전체화와 그에 따른 인식지평의 확장은 實在(reality)에 대한 완전한 이해 내지 설명이라는 진부한 진리에로 수렴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에는 위대한 정신을 앞에 내세우는 과거 사상사연구의 이데올로기적 함정들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전략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新칸트學派의 抽象的 範疇(abstract categories)와 歷史的 實在(historical reality)라는 二分法을 극복하려는

11) Febvre, L., Vers une histoire, in *Combats pour l'histoire*, 1953, p. 428.

12) text는 라틴어 texere(엮어 짜다)를 語源으로 한다.

G.Lukács의 具體的 總體性(concrete totality) 개념이다.

K.Mannheim의 이론이 지나치게 思辨的이고 哲學的이어서 현존하는 實在을 비판하고 변용시킬 수 있는 評價的인 이론들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비해 G.Lukács는 이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들로서 思想의 社會史를 보강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에 의하면 知識의 形式과 歷史의 內容 사이의 모순 혹은 간극(split)은 인간을 抽象의 法則(abstract law)에 복종하는 완전히 수동적인 대상으로 파악했던 실증주의적 지식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전체 사회성원으로서 자기 의식적 존재인 역사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식의 생산은 그것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는 역사학자 혹은 사회이론가가 어떻게 非역사적 추상성이 극복된 '具體的 總體性'을 구성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구체적 총체성의 창출이라는 것은 역사학자가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物的 基盤(substratum)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部分과 全體의 불확실한 關係를 없앨 수 있고 偶然과 必然 사이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矛盾을 해결할 수 있다」¹³⁾는 것이다.

Lukács는 그의 이러한 總體性 理念을 문화현상이란 맥락에서 文學批評과 一般美學에 적용하였는데 특히 그의 初期 著作¹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初期 著作에서 그는 예술을 實在의 단순한 반영이 아닌 모든 형태의 인간행위와 연관된 하나의 全體(whole)로 취급하였다. 그에게 있어 文

13) Lukács, G.,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Cambridge, Massachussetts: The MIT Press, 1971, p. 204.

14) 『The Meaning of Contemporary Realism』, 『The Historical Novel』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學과 藝術에 대한 연구는 바로 社會的 總體性的 研究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이를테면 教育思想史 같은 연구도 社會的 總體性的 研究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Lukács의 文化現象으로서의 文學에 대한 연구는 教育思想이 구체적 실재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研究戰略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思想의 歷史를 구체적,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Lukács가 설정한 認識論的 基盤에 입각하여 볼 때 중요한 理論的 含意(implication)를 얻어 낼 수 있다. 즉 Lukács의 具體的 總體性이란 개념은 現在의 孤立되고 分節的인 思想史研究의 限界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具體的 總體性的의 개념을 사상사연구에 적용할 경우 政治, 經濟, 文化, 이데올로기 같은 떨어져 있는 사회적 현상을 全體 社會過程에 관련시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大衆教育機關으로서 學校는 형식적으로 볼때 學生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기관일 뿐이지만 특정한 역사적 환경하에서는 統制나 操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學校의 이러한 統制나 操作의 기능은 學校가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全體 社會過程의 맥락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Lukács의 지적처럼 事實이란 최종의 實在가 아니라 全體 중에서 人爲的으로 孤立시킨 하나의 樣相이라 할 수 있다. 現存하는 實在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 實在가 모호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

결국 교육사상이라는 것이 인간행위인 이상 그것이 주어진 복합적 중재의 체계와, 갖게 되는 다양한 상호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 Lukács의 가장 큰 시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

총체성에 근거한 변증법적 교육사상사연구는 교육사상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지 않고 전체 사회 과정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며 이것은 사상사연구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第4節 研究의 動向과 課題

최근의 教育思想史 研究動向과 課題에 대해서는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20周年 紀念學術發表大會에서 구체적으로 정리, 발표된 바 있다.¹⁵⁾ 이 가운데 「韓國教育思想史의 展開過程과 展望」을 발표한 論者는 한국교육사의 先行研究를 自體 歷史의 批判的 整理라는 차원에서 꼼꼼히 기록하여 놓았는데 이는 한국교육사 연구에 新參하는 後學들에게 研究의 地圖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價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先行의 研究地圖를 통해 볼때 확실한 것은 韓國教育史에 있어서 地方教育史 研究는 적어도 嶺南教育史¹⁶⁾에 관한 한 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論者들이 한국교육사상사의 연구과제로서 地方教育思想 연구추진¹⁷⁾을 강력히 주문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15)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韓國教育史學』, 制9輯 서울; 敎學社, 1987. 내용은 크게 <教育思想史>, <教育制度史>, <教育學史>로 나뉘어져 있으며 孫仁銖, 車錫基, 金丁煥에 의해 韓國 그리고 東洋, 西洋 教育思想史의 理論과 展望이 서술되고 있다.

16) 丁淳睦, 『嶺南教育史』, 大邱;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3.

17)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前掲書, pp.54~55.

韓國教育史研究會, 『韓國教育史 研究의 新 方向』, 서울: 集文堂, p.27.

이러한 주문¹⁸⁾은 때로 日常的이고 慣行的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나 실상 이에 대한 해답은 늘 미진하였다. 日本만 하더라도 1965년에 이미 오끼나와 교육사¹⁹⁾를 통해 나름대로 특유의 地方教育思想을 정리한 바 있으며 여타의 지방도 독자적인 地方史 研究方法論²⁰⁾이 개발되어 촌락마다 있는 公民館을 중심으로 지방사 연구차원에서 교육사 및 교육사상사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地方史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차대전 후 W.G.Hoskins, H.P.R.Finberg, R.H.Tawney 등 주로 英國의 Leicester學派에 의하여 제창되어 考古學的 發掘에 관한 관심과 지방의 建築遺物 등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都市史, 勞動史, 人口問題 등 전혀 새로운 연구분야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地方史料의 조사와 활용이 활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 지리적 단위로서의 지방사는 역사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²¹⁾ 思想史的 側面에서 G.Lefebre는 프랑스혁명의 深層思想을 연구하기 위하여 Nord郡이라는 지방에서 農民層 연구에 20년간을 바쳐 『Les paysans du Nord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²²⁾이라는 著書를 써 지방사 연구를 통하여 프랑스革命史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世界的 大家가 되었는데 이

18) 이러한 주문은 여러 사람들이 異口同聲으로 외치는 실정이긴 하지만 별다른 效果가 없다. 특히 丁淳睦은 이를 위해 地方 教育大學院에서의 研究活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주의해 볼만한 助言이라고 하겠다. 丁淳睦, 上掲書, pp.167~181.참조.

19) 眞境名安興, 『冲繩教育史要』, 冲繩:城野印刷所, 1965.

20) 後登總一郎, 『郷土研究の思想と方法』, 東京:有斐閣, 1981.

21) Hoskins, W.G., Local History in England, London: Longmans, 1959.

22) Lefebre, G. Les paysans du Nord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Lille: Robbe, 1924.

는 한국교육사상사 연구의 變革的 課題와 지방교육사상사 연구의 穿鑿에 대한 指南임에 분명하다.

물론 『退溪의 教育哲學』²³⁾이나 『南冥哲學과 教學思想』²⁴⁾과 같은 것은 地方教育思想의 研究推進이라는 맥락에서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교육사상사 연구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 官撰된 것이기는 하나 각 市道教育委員會 간행의 教育史에 실린 지방교육사상에 대한 논의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것 역시 여러가지로 미흡한게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지방교육사상사의 獨自性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결과된 獨自的인 研究領域과 研究方法의 缺如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사상사의 獨自性 構築은 앞으로 한국교육사 연구의 큰 과제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지방교육사상사 연구가 독자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教育思想史의 地方史的 證據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方法으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文獻考證史學의 限界를 극복하는 일이다. 여기서 文獻考證史學을 극복한다는 말은 그것이 不必要하다는 뜻이라기 보다 文獻이라는 것이 그 대부분 中央政治나 行政에 관한 것들이며 支配層의 이데올로기로 굴절되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史料批判을 거친 후에도 事實의 說明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地方史와 基層民衆의 역사에 이르러서는 매우 중요한 事實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육사상사의 연구에 있어서는 문헌고증의 방법에 더욱 큰

23) 丁淳睦, 『退溪의 教育哲學』, 서울: 知識産業社, 1986.

24) 崔海甲, 『南冥哲學과 教學思想』, 서울: 教育出版社, 1988.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소한 문헌고증의 방법을 극복하고 教育思想史의 地方史的 證據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方法論들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향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地理와 남긴 考古는 물론이요, 그들의 共同體였던 마을의 歷史, 住民들의 衣, 食, 住, 農業, 漁業, 商業, 工業 등 生産과 職業生活, 勞動, 産業, 그들의 災難과의 싸움, 中央官僚에의 對抗, 異民族의 侵略에 대한 鬭爭, 그들의 學校, 信仰生活, 娛樂, 文化와 風俗, 心性, 藝術과 民譚, 家族制度和 親族制度, 鄉土愛와 祖國愛 등등이 어떠한 中央政治와의 관련 보다도 더 중심으로 고찰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방법으로는 生存 經驗者의 回顧의 聽取와 錄音, 地域社會의 「傳承」의 聽取와 錄音, 口傳歷史(oral history)의 發掘, 記錄遺物은 물론 각종 非記錄 遺物의 蒐集과 分析, 그리고 民謠·노래·唱歌·歌詞 등에 포함된 教育思想的 意味의 蒐集, 또는 그림·壁書·家具·道具 등에 새겨진 그림·彫刻 등의 蒐集, 鄉土 住民의 생활 속에 깊숙히 남아있는 각종 遺制 樣式의 參與觀察(participant observation), 言語의 分析을 통한 歷史의 發掘, 集團傳記方法 등등 여러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開陣될 때 비로소 教育思想史의 地方史的 證據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교육사상사 연구도 獨自性を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歷史의 民主化(democratization of history)라는 차원에서 충실한 내용의 韓國教育思想史를 發展, 定立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第5節 用語의 定義

본 연구에서 특별한 意味로 사용되는 用語를 定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教學, 教學活動, 開化教學活動

「教學」이라는 용어는 「教育」을 보다 넓게 개념화한 것이다. 원래 學 또는 學問이라 하는 것은 지식의 체계 또는 지식의 체계를 쌓아 올리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한다. 學이란 글자의 原義는 效이다. 效는 배움 즉, 모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先人の 경험 및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가르침(敎)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적으로 말해도 한 편이 가르치고 한 편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敎'와 '學'은 경험 및 지식의 전수를 각각 반대측에서 파악한 것이 된다. '敎'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 중요한 것은 '道'이다. 學이란 敎 혹은 道를 배우는 것이다. 子思가 말한 「天命之謂性 率性謂之道 修道之謂敎」라는 말과 「則天明 邊聖法 述此篇 爲師者 知所以敎 而弟子 知所以學」이라는 의미에서 「教學」도 되려니와 보다 현대적으로 교육과 학문을 통한 自己實現, 人格實現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教學活動이란 교육과 학문을 통해 自己實現 혹은 人格實現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식, 비형식의 교육적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開化教學活動이란 조선 말기 開化派들이 행한 교육적 계몽활동 전반을 총칭하는 표현으로서 근대적 내용의 교학활동을 의미한다.

2. 反體制的 理想主義

제주인들이 유배인들로부터 승계한 精神文化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때로 反骨的 性向 또는 抵抗精神, 野黨性 혹은 分離主義的 性向 등의 개념과 맞물려서 언급된다. 즉 대개의 경우 유배는 政治的 鬭爭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유배인들의 성향은 士禍나 黨爭이라는 정권투쟁에서 일단은 패배했다는 의미에서 反體制的이다. 물론 이 때의 반체제적이란 현대적인 體制挑戰的 意味라기보다는 그들이 殉할 수 있는 신념과 위배되어 물러났고, 따라서 그들이 殉할 수 있는 신념을 기다린다는 崇廉恥與節義라는 맥락에서의 전통 선비정신과 관련한 의식이다.

그런데 이 의식은 亂이나 革命 등으로 표출되기보다는 주로 教育活動을 통해서 개진되어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理想主義的이다. 이렇듯 교육활동을 택하였음은 士禍를 피해 南歸한 많은 士林들이 書院運動을 펼쳤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로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일이라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성숙된 지성의 산물이자 선비의 도리였다. 이러한 이상주의의 특징은 그것이 政治的 理想主義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이상과 정치의 이상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趙光祖의 道學政治는 대표적인 그 예이다.

제주도에서는 近代에 들어서면서 이 의식은 제주인들 自生의 運動的 力量과 연계되어 민란, 혹은 의병운동이나 만세운동 등의 國權回復運動과 같은 체제도전의 강력한 動因이 되는데 제주인들의 교육적 실천이 정치적 이상주의를 意圖했던 例로서 반체제적 이상주의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

한 성향의 계승구조는 일제하의 여러 反日운동과 1948년의 4.3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第2章 朝鮮朝 濟州島의 背景과 特性

朝鮮朝 濟州島의 독특한 歷史的 背景과 文化, 地理的 特性은 조선조라는 특정 단계의 歷史社會的 現實을 의미한다. 원래 人間은 추상적인 인간一般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적 諸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歷史社會的 存在이고 그 生活過程 및 生存方式 자체가 教育的 內容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방식을 지도하는 教育實踐은 당대의 역사사회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함은 조선조 제주인들이 위치했던 歷史社會的 現實을 통해 조선조 제주도 教育現實의 總體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第1節 歷史的 背景

제주도 原住民은 北方大陸으로부터 이주해 온 여러 종족과 주변 여러 島嶼지방으로부터 流移한 종족들로 복잡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제주도에漂着한 여러 종족들은 외부와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絶海孤島인 이 섬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종족의 문화가 서로 同化融合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렇듯 北方大陸 계통과 周邊島嶼의 漂流民이 혼합되어 성립된 까닭으로 그 문화는 北方的인 것과 南方的인 색채를 동시에 띠게

된다.¹⁾

狩獵時代에서 農牧時代로의 정착과 氏族社會에서 部族國家로의 형성을 의미하는 제주도 三姓神話에서 볼 수 있듯이 高, 良, 夫 三姓의 氏族社會가 발전하여 三氏族의 공동체인 原始部族國家가 성립되는데 이것이 곧 耽羅國이다. 탐라국은 처음에 加羅國, 百濟와 교통하였고 12세기 초까지 耽羅, 涉羅, 滄羅, 耽浮羅, 毛羅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독립국가로서 그 명맥을 유지했었다. 三國時代에는 百濟, 新羅와도 활발히 通交하면서 朝貢하였는데 탐라와 신라와의 공적인 교섭은 백제가 멸망한 시기인 66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自主的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던 편이다.

高麗가 창건되면서 탐라국은 고려의 屬國으로 유지되다 고려 肅宗 10年(1105)에는 耽羅의 國號가 폐지되어 고려의 耽羅郡으로, 毅宗 7年(1153)에는 耽羅縣으로 예속 되었다. 이후부터 제주도는 陸地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 고려 元宗 14年(1273)에 三別抄軍이 정부군에 쫓겨 제주도에 入島하면서부터 제주도는 蒙古의 지배하에 들어 가게 되었다. 즉, 고려는 몽고와 麗蒙聯合軍을 결성, 삼별초를 토벌하였던 것인데 이를 계기로 元은 1273년 제주도에 達魯花赤總管府를 두고 1275년에는 제주를 耽羅國이라 復號하여 고려로부터 분리시켜 元에 예속시킨 것이다. 이로부터 제주도는 약 1세기 동안 元의 지배를 받게 된다.

1) 이를테면 1985년 제주도 북촌리 고두기 언덕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골각기는 경남 신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하며 청동기시대의 제주도의 고인돌은 육지의 고인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탁형 고인돌로서 남방계통이다.

몽고는 탐라에 牧馬場을 설치하였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牧胡를 파견하여 목축을 담당하게 된다. 元의 제주도 목장은 忠烈王 2年 蒙古馬 160匹을 水山坪에 들어와 放牧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말 외에 소, 낙타, 노새, 양 등을 들어오면서부터 전도적으로 목장이 확장되어 나갔다.²⁾ 몽고의 지배를 받는 동안 牧馬를 중심으로 몽고의 문화와 언어가 탐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주도가 元의 세력에서 벗어나 고려의 중앙집권제 밑에 들어간 것은 고려 恭愍王 23年(1374)이며 1392년에 朝鮮이 창건되자 제주도는 중앙 집권화 정책에 따라 일개 郡縣으로 완전히 전락하여 중앙정부의 行政圈 속에 묶이게 된다. 조선 朝廷은 방위의 효율을 위하여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을 두어 牧使와 縣監을 파견 三縣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체제정당화를 위한 지도이념으로서 性理學의 전파를 위해 삼현에 각각 鄉校를 설립하게 된다. 그로부터 제주도에 儒敎敎育이 보급된 셈인데 儒敎文化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유배된 유학자들의 敎學活動에 의해서였다. 조선조정은 제주도를 流配의 최적지로 보아 士禍나 黨爭 등 權力鬭爭을 빌미로 유명한 정치가나 학자를 대거 유배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政局을 기피하거나 여러 이유에서 선비들이 入島永住함으로써 儒學敎育은 더욱 적극화되었다. 이것은 조선조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도만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敎育에 의해 地域엘리트들의 마을과 지역에 대한 충성은 점차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변형되어 나갔다.

2) 高昌錫 “元代의 濟州島 牧場”, 『濟州史學』創刊號, 濟州大學校 人文大學史學科, 1985.2., p.15.

조선조 제주도의 教育이 이렇듯 유배인들에 의존함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주인들에게는 出陸抑制政策이 강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제주도의 飢民들이 島外 各處에 移流함으로 인해 三邑의 인구가 격감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책으로 시행된 出陸抑制政策은, 그러나 200여년간 제주도를 고립시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사회, 문화 전반을 疲弊化시켰다. 오늘날까지 15~16세기 言語들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앙집권체제라는 왕권의 自家保護에 의해 제주인들의 문화해탈을 받을 권리가 제도적으로 몇 백년 동안 희생을 당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결국 제주도는 조선조의 地方偏頗 教育政策³⁾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고 있었지만 유배인들의 來島를 教育力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함으로 하여 육지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전혀 이질적인 教育文化가 창출된다.

環海孤島인 제주도에 파견되는 京來官들은 거의가 苛斂에만 몰두하였으므로 생존을 위해 도민들은 虐政에 반발하는 民亂을 일으키곤 했다. 특히 朝鮮後期에 들어 그 빈도가 많았는데 농업은 계속적인 흉년과 토지생산성이 낮아 식량의 自給自足力을 현격하게 위협하였고 조정에서의 飢民賑恤政策은 보잘것 없는 형편으로 육지부에서 미곡을 사오던지 物物交換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제주도의 상품으로는 手工業 제품인 涼太와 水産物인 미역과 전복이 있었으며 특히 제주인들은 전국에 널리 공급하던 양태산업에 의존함이 커 많은 도민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원료의 고갈과 統營지방 양

3) 李萬珪는 朝鮮教育을 概括的으로 評價하면서 그 問題點으로 ① 階級偏頗教育 ② 地方偏頗 教育 ③ 性偏頗 教育을 들고 있다. 李萬珪, 『朝鮮教育史 I』, 서울: 거름, 1988, p.282 ~ 4.

태의 출현으로 양태산업은 크게 쇠퇴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인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고 민란의 사회, 경제적 원인이 되었다.⁴⁾ 민란의 狀頭들은 유배인들과 직, 간접으로 관계되어 있어 黨爭 등 政治鬭爭의 결과로 배태된 反體制的 理想主義의 계승을 그대로 웅변한다. 이는 유배인들에 의한 교학활동의 內容과 그 方向性を 짐작할 수 있게하는 중요한 概念이다.

第2節 文化·地理的 特性

제주도의 三姓神話는 제주도라는 共同體의 空間과 秩序를 구성하는 三部組織의 體系로서 그것은 교육적으로 保存的(conservative)인 教育目的⁵⁾을 함의하고 있다. 즉 사회경험의 정립된 자본을 영속화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三分體系라는 제주도 나름의 思考論理가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이 三分體系의 思考論理는 제주도 공동체 집단의 社會的 生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集團生存은 집단의 教育目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教育目的이기도 한 것이다. 심지어 三姓神話의 원시적 단계를 넘어 훨씬 진전된 탐라국의 문명에서도 제주인들의 교육목적들은 명백하게 保存的이었다. 육지부와 비교할 때 별개의 독립국가로서 탐라국의 독특하고도 이질적인 文化樣態는 역설적으로 탐라국이 거의 靜的인 사회질서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하는 保存的인

4)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史學論叢』, 1986.11. 參照.

5) 保存的인 教育目的(the conservative aim of education)에 대해서는 Brubacher, J.S.,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ew York & London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47. Chapter I, Educational Aims편에 잘 整理되어 있다.

교육의 目的을 중시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예이다.

제주도가 이렇듯 保存的인 教育의 目的을 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섬이라는 지형적인 변수를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육지가 관개수리사업과 가축의 힘을 토대로 한 男性勞動 중심의 米作농업인 반면 제주도는 밭농사 위주의 생업과 해변지역의 잠수업 등으로 女性的 農耕體制(the female farming system)를 이루어 왔음도 주요한 동기라 하겠다. 이러한 문화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儒敎가 도입, 토착화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정은 제주도를 流刑의 최적지로 보아 유명한 정치가나 학자를 대거 流配시키는데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에 의해 제주사회의 儒學教育이 보급, 진작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 男性社會의 儒敎教育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재래의 土俗信仰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움트게 된다. 그 결과 유교교육이 보급되지 않은 女性社會에서는 재래의 巫俗信仰을 계승하여 그것에 의존하고 男性社會에서는 儒敎式 祭禮에 의존하는 民間信仰의 二重構造的 現象이 생겨나게 된다. 즉 男性文化는 儒敎文化이며 女性文化는 巫俗文化라는 二重組織 文化形態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실제 제주도에 토착화된 儒敎의 영향은 選擇的이었다. 육지의 農耕文化에서 중시되는 유교적 규범들은 간과된 반면 노동천시와 학문숭상은 크게 강조되어 남성을 여성보다 고상하고 높은 지위로 階級化하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유배인의 후예로서의 자부심, 노동을 하지 않고 사고하는 계급, 제사를 지내는 儀式 專門家(ritual specialist)로서의 남성들은 유교의 이상형인 선비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여성을 卑下한다. 이는 儒敎가 토

착화 과정에서 윤리체계에서 敎理的 男尊女卑의 이데올로기로 변형,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유교의 보급으로 제주도는 女性支配의 “現實”과 男性優越的 “意識” 세계가 共存하는 사회로, 남녀관계상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兩便 非優勢(neither dominant) 사회의 특징을 갖게 된다. 여기서 男性優位의 思想은 현실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현실을 감추려는 즉, 여성의 지배적 현실을 감추려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던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여성의 지배적 현실을 뒷받침하는 이념인 巫俗文化를 견제하는 방어적 역할을 한다.

원래 제주도에는 神堂이 많고 巫俗이 성행했었다. 유배인 金淨은 제주 사람들은 祠鬼를 몹시 숭배하므로 巫堂들이 많고 이들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빙자하여 많은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행패를 자행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은 名日이나 朔望, 77日(初七, 十七, 二十七)에 짐승을 잡아 淫祠에 제사지내는데 그 음사 수가 300여소에 이르고 해마다 늘어나며 이로 인한 허황스럽고 그릇된 일들이 자꾸 더해만 가 혹 질병이 나도 악을 쓰려 않고 이 神에 빌어 나오려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기록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인들의 삶은 巫俗信仰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 이를테면 제주인들은 숲이나 내, 못, 언덕, 무덤, 큰 나무, 큰 바위에 신을 모셔 매해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무당들이 앞장을 서서 신

6) 金淨, 『濟州風土錄』, 「酷崇祠鬼男巫甚多 時人災禍取財如土名日朔望七七月初七十七二十七必殺爲牲爲淫祠淫祠幾至三百餘所歲增月加妖訛屢騰人病甚畏服藥謂爲鬼怒至死不悟」.

기를 내세워 儼戲를 꾸미고 쟁과 복을 치며 무리지어 동네 여러 집을 드나들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을 바치며 제사 지내고 또 2월 초에 귀덕, 김녕 등지의 마을에서는 신대(神木)를 여러 개 세워 신을 맞아 제사를 지내며 또 한 이월 등지에서는 말머리(馬頭)같은 형태의 때비를 구하여 울긋불긋하게 비단으로 장식하고 躍馬戲 놀음을 하면서 신들을 즐겁게 하여 보름까지 지내는데⁷⁾ 이는 놀이와 관련한 제주인의 巫俗 依存을 잘 지적한 예이다.

이렇듯 巫俗이 제주인들의 삶을 지배해 온 데는 제주도 나름의 사회, 역사적 원인이 있다. 歴史的으로 볼때 제주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難破(das Scheitern) 狀態였다. 이미 金淨은 제주도의 難破的 狀態를 그의 『濟州風土錄』에서 비교적 정확히 묘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風土記』로서 구경거리(Schauspiel)를 意味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제주인이 몸소 부딪쳐야만 했던 진정한 限界狀況(Grenzsituation)의 現場이었다. 그에 따르자면 제주인의 삶을 결정적으로 難破시킨 것은 지리적, 문화적 풍토라기 보다는 行政力의 不在로 인한 官吏들의 橫暴였다. 도외출륙이 억제된 상황 아래서 위로 는 牧使로부터 아래로 衙前에 이르기까지 行政官吏들은 제주的一般百姓들을 철저하게 收奪하였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官員이 되기를 원했고 하다 못해 軍隊의 守備長이나 아니면 通印 貢生이라도 되기 위하여 賂物을 썼으며,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賂物로 처리하려고 하고, 强者는 弱者를 누르고 사나운 자는 어진 사람들을 겁탈함이 예사고

7) 李元鎮, 『耽羅志』, 俗尙淫祠乃於山藪川池丘陵墳冢木石俱設神祀每歲元日至上元巫覡共擎神蠶作儼戲 鐸鼓前導出入閭閻爭損財穀以祭之又於二月朔日歸德金寧等地立木竿十二迎神祭之居涯月者得槎形如馬頭者飾以彩帛作躍馬戲以娛神至望日乃罷謂之然燈是月禁乘船

官員의 탐함이 마치 길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무리와 같았다.⁸⁾

이러한 難破의 危機狀況에서 사람들의 삶은 荒廢할 수 밖에는 없다. 이러한 危機의 次元은 삶의 정상적인 경과가 타개책이 없어 보이는 어려움들을 통해 중단될 경우 문제시 된다. 危機 앞에서 인간은 破壞로 부터 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危機의 특징은 自暴自棄와 그에 연결되는 죽음의 不安이라할 수 있다. 하여 제주인들은 죽은 자를 더 복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서 죽어 고통을 면할까하는 탄식이 예사였다. 여기에 바로 巫俗信仰의 근거의미가 확보되는데 巫俗은 곧 제주인의 유일한 自己救濟의 方法이었다. 폐쇄된 사회일수록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황폐할수록 巫俗信仰이 번창하기 마련이며 의지할 곳 없는 제주인의 삶을 堂神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堂神을 신앙하므로 堂神과 하나가 되는 정신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적 황폐함을 報償받게 된다. 이 점은 濟州堂神들의 내력담인 본풀이에서 보는 堂神一生의 황폐함이 바로 제주사람들의 그것과 相通하는데서 이해할 수 있다. 追放과 挫折과 배고픔의 神들이 바로 濟州堂神들인데 제주인은 이들과 하나가 되므로써 현실적인 고통을 慰撫받게 된다. 여기에 堂神崇拜의 巫俗은 성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儒敎敎育의 보급과 강화로 堂神崇拜의 巫俗은 점차 그 威勢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남성사회는 儒敎의 形式主義 및 家族中心主義와 習俗

8) 金靜, 前揭書. 「人心鹵莽自品官下至微者皆交結朝貴無人無傾佛者其豪右求爲鎮撫土人自星主以來流風已然不足怪也次者旅師次者書員此以下非品官持印貢生皆平民等鄉吏日各以漁利爲事毫縷細故皆有贈賂不知廉義爲何事以強制弱以暴劫仁不下君示以故官員貪如陸閔不以爲怪」

내지 그것을 受用하여 제주도의 공동체 윤리는 죽은 조상을 위해서는 祭祀
中心의 조상숭배의식으로 고정화되고 살아있는 자손을 위해서는 忠과 孝를
절대가치로 표방하는 規範主義로 체질화되어 적어도 그 外型에 있어서 巫俗
은 전통적인 위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교육의 영향
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여성들에게서는 여전히 巫俗은 현실적인 힘을 발
휘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 무속의 拘束力이 강화되는 경향마저 있었다. 따
라서 조선조 제주도의 교육전통에는 무속적 요소들이 유교교육과 함께 相互
補完的인 차원에서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작용하는
가 하는 문제는 조선조 제주도의 교육과 교육사상사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
운 接近可能性을 시사해준다.

第 3 章 朝鮮朝 濟州 教育의 條件

본 연구는 제주도의 특수한 교육현실로서 제주 교육사상사 형성의 歷史的 動因을 出陸抑制政策과 流配政策에서 찾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지방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책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무엇보다 그 정책으로부터 胚胎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理念的 性向들이 제주인들의 教育現實 또는 教育實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현실적 생활과정이 곧 사상이 태어나는 기반이라면 그 두 정책은 現實的으로 活動하고 있는 人間(die wirklichen, wirkenden, Menschen)으로서 조선조의 제주인들을 拘束하였던 대표적인 歷史的 生活過程이자 條件이었던 것이다.

第1節 出陸抑制政策의 意味

1. 出陸抑制의 政策

麗末鮮初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倭賊의 창궐과 國役負擔의 압력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流民의 다수가 유입됨에 따라 제주도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원래 土地가 척박하고 협소한 데다 饑饉이 계속됨으로써, 급격한 인구증가는 자급자족의 생활체제를 무너뜨렸고 지역의 遠隔함이 정부의 보호를 악화시켰으므로 경제적인 부담은 무거운 반면, 救恤의 시책은 제대로 미치지 못

하여 급기야 民生을 압박하기에 이르자 이전의 入島現象과는 반대로 出陸이 늘기 시작하였다.

원래 조선조는 國役 등 負擔者의 동태를 파악하고 농민들의 농토로부터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戶籍, 五家作統法 또는 號牌法을 시행하여 役을 피하여 戶口의 등록없이 移住, 流離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선 초기 국가정책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出陸이 허용되고 있다. 즉 「제주 三邑은 사람은 많고 땅이 좁습니다. 民戶는 9,935호에, 인구는 63,093이고 田은 9,613結, 48卜입니다. 地利는 한계가 있는데 食者는 많으니 救荒의 폐단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良人은 각기 자원에 따라 육지로 옮겨 살게 하십시오. 私賤도 역시 본주를 따라 자원 출륙하게 하십시오」¹⁾라고 하여 出陸 허용의 원인을 人多地窄의 사정에 두고 있다. 이외의 出陸은 牧馬保護政策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盜殺牛馬者만이 아니라 심지어 단순한 食肉者나 연계자까지 추방하여 平安道에 移置시켰다.²⁾ 牛馬賊의 刷出은 世宗年間に 계속되었고 주로 평안도 지방으로 入送케 했던 것으로³⁾ 이렇듯 出陸은 馬政에 연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안도에 입송케 한 것은 조선 초기, 특히 세종년간의 북방지역 개척과 더불어 추진된 徙民政策과 연관된 것이었다.

1) 『世宗實錄』卷70, 17年, 12月, 乙酉, 「濟州三邑 人多地窄 民戶九千九百三十五 人口六萬三千九十三 田則九千六百十三結四八卜 地利有限 食者之衆 救荒之弊 無歲無之 無田業良人 各從自願 徙居陸地 私賤亦從本主 自願出陸 從之」

2) 『世宗實錄』卷67, 17年, 正月, 丙戌, 「今自濟州移置平安道盜殺牛馬者幾至六百五十餘豈皆盜殺之人或有食肉而連及者轉達分辨何如」

3) 『世宗實錄』卷105, 26年, 7月, 甲子, 「議政府據兵曹呈啓濟州牛馬賊眞犯人依已 受教使之出陸入送平安道」

이렇게 出陸이 정부정책으로 허용된 반면, 그러한 정책 범위를 벗어나서 逃亡出陸하는 무리들이 점차 늘어 갔는데 이는 대체로 疾病과 饑饉에 대한 救恤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때로는 守令官員들의 作弊로 生活苦가 심했던 점에서 기인되었다.⁴⁾ 특히 官衙에서 혹사당하는 奴婢나 役의 부담이 심한 軍丁 등 비교적 생활에서 고통이 많은 계층에서부터 逃亡出陸하는 일이 많았다.⁵⁾ 成宗代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幾千餘人에 달하고 입거지역은 京畿, 江原, 咸鏡의 3道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에 널리 분포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조선 중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였다.

제주도의 飢民들이 島外 각처로 이류하였기 때문에 世宗朝에 6만이 넘었던 인구가 宣祖初에는 약 2만3천으로 크게 격감하였으며⁶⁾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런 사태를 중시, 難民들의 島外 出陸離散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도 私船 입출항의 포구를 朝天과 別刀 두 곳으로 제한하고 牧使가 軍官과 더불어 출항하는 선박을 일일이 점검하여 出船記를 기록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⁷⁾ 또한 濟州三邑 사람으로

4) 『中宗實錄』卷40, 15年, 10月, 壬寅, 「御朝講正言崔克成曰臣聞濟州之事至爲可慮曠疫大起人畜多死非徒此也年凶太甚死者相枕如旌義大靜人戶皆空云別令措置可也」

5) 『太宗實錄』卷34, 17年, 7月, 辛酉, 「濟州各司奴婢及軍丁等因興利船逃亡出陸」

6) 金尙憲의 『南槎錄』卷之三에 의하면 濟州城中에 「男壯老弱竝六百九十餘名 女壯老弱一千一百餘名」이라 하였으며 本州에 속한 四面의 인구는 「男壯老弱一千一百餘名 女老弱一千四百八十餘名」이라 하였다. 大靜縣은 「男壯老弱五百五十餘名 女老弱竝八百八十餘名」이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합하여 약 三萬三千의 인구가 된다.

7) 金尙憲, 上揭書. 「自乙卯以後私船任意出入島中避役者往往乘船走陸故只於朝天別刀兩浦許令放船而放船之日則牧使軍官一人執簿照點稱爲出船記雖一人一馬不敢潛匿」

허가 없이 타지방으로 이주하는 자는 벌을 주고 原籍에 되돌리는 한편, 이런 제주인을 감싸준 자는 杖 1百에 3千里 먼 곳으로 流配케 한다⁸⁾고 『大典會通』에 法律化하는 강경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제주인들의 出陸이라는 것이 食糧難, 軍役義務의 過重, 倭賊들의 侵犯에 대한 不安, 土豪들의 壓力 및 官吏의 橫暴, 身貢의 過重, 朝廷으로부터의 虐待 등 그 원인이 복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무시, 救護政策이나 賑恤政策은 세우지 않고, 대신 出陸抑制政策이 강압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강요되었다는 데서 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친 후 중앙의 정치기강이 회복되면서 出陸抑制政策은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비록 王族의 出陸이라 할지라도 강경하게 禁止되었다.⁹⁾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派爭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나 조선 후기에 들어 제주도 에 대한 出陸抑制政策이 보다 철저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예이다.

出陸抑制의 여파로 肅宗朝의 제주인구는 43,515명으로 宣祖初에 비해 백 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哲宗 元年(1850)에는 약 팔만에 이르게 된다.¹⁰⁾ 그러나 약 200여년 동안 무리하게 지속되었던 出陸抑制라는 조선 조 특수정책의 여파는 종국에 가서는 對外 交流의 길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아 제주도로 하여금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폐쇄적인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쳤는데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疲弊化를 가속

8) 『大典會通』 刑典.

9) 『仁祖實錄』 卷45, 22年, 4月, 癸酉, 「濟州人物出陸之禁乃祖宗金石之典」.

10) 『哲宗實錄』 卷2, 元年, 4月, 丁丑, 「濟州大靜旌義民數啓元戶一萬一千一百二十四戶」.

시켰다.

出陸抑制政策은 특히 남성들을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의 대외적인 활동력을 제한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의 남성들은 여성농업체계에 의존하게 됨과 동시에 儒敎文化의 영향을 받아 父系傳承 제사를 중심으로 公的 正體性을 이어 감으로써 경제 산출자로서의 여성과 對峙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의존하면서도 家父長的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儒敎的 當爲 때문에 부담을 갖기 마련이었는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學問崇尙이 적극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에서 남자는 소위 ‘思考’하는 양반계층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2. 出陸抑制의 意味

出陸抑制은 제주 교육의 사상사적 측면에서 볼 때 二重的인 것이다. 抑壓(Unterdrückung)과 支配(Herrschaft)의 의미는 물론이요 동시에 超越性的 개념적 의미를 갖고 있다. 抑壓이란 말 그대로 아래로(unter) 누른다(drücken)는 의미이며 支配는 인간간의 上下關係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抑壓이 포괄적으로 上位에 있는 사람이 下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불평등한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支配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抑壓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은 J.Habermas가 지적한 歪曲된 意思疏通의 상황 가운데 하나인 社會的 除外(social exclusion)의 차원과 유사한 상황으로 곧 조선조 정치, 문화, 사회 등 여타의 체제조직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지방에 대한 뿌리깊은 偏見을 의미하는 사례이다.

이것은 곧, 한 국가의 少數民族이나 少數集團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지배 및 경제적 착취를 의미하는 內部植民主義(intercolonialism)의 대표적 전형이다.

또한 인간은 현실에 결코 안주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지금 여기에 있음의 限界와 환경의 限界를 철폐하려고 한다. Husserl은 이와 같이 자신이 자기 삶의 主體로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超越的還元(transzendental Reduktion)이며 이는 改宗과도 같은 근본적인 態度變更이라고 했다. 따라서 超越性은 인간의 본질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意志의 決斷이다. 이는 스스로 자기 삶 전체를 돌이켜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고 본래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 精神作用의 산물이다. 제주인들은 비록 出陸을 할 수 없었지만 反對給付로서 지금 제주도에 있음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철폐하려고 애썼던 것인데 이는 곧 超越性의 표출이었다.

이러한 出陸抑制라는 제도적 장치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념적 성향 가운데 하나가 제주인들 특유의 分離主義的 態度이다. 分離主義的 性向은 예초 耽羅國이라는 個別 獨立國家의 전통에 바탕을 둔 의식으로서 조선조에 들어 그것은 內外集團의 강력한 區別意識으로 기능하였다. 즉 조선조의 출륙억제정책에 기반한 內外集團의 엄격한 差別性은 200여년에 걸친 집요한 제도적 강요로 인하여 제주도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정도를 더욱 왜곡시켰으며 결국 이러한 왜곡의 여파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강화된 周邊文化의 特異性이 곧 그 성향의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분리주의적 성향은 결과적으로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그것은 三無의 良俗 등 自

給自足の 經濟循環과 그러한 체계의 기능유지를 위한 共同體的 連帶感 조성으로 나타난다. 결국 輸出억제정책 등으로 야기된 사회적 조건은 농업소득의 평균화를 가져와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큰 부자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끼리의 빈번한 접촉과 대면을 통해 두레의 제주도식 형태인 수눌음이나 번쇠 등의 社會經濟的 自治機能을 강화시켰고 均等相續制라든가 결혼과 동시의 分家制度 등 독특한 생활양식을 낳게 하였다. 결국 歸屬的 身分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비교하여 자율성, 평등성이 존중될 수 있었던 것은 분리주의적 성향으로부터 기인된 공동체 의식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제주도 특유의 內集團衣食으로서 분리주의적 성향은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결국 외부세계로 표현되는 陸地文化 혹은 儒敎文化 등에 강한 거부반응을 표명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외부에 대한 선망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잠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외부에 대한 兩面性은 소위 陸地文化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流配人들에 대한 제주인들의 강한 친화력에서 그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육지에 대한 排他性은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고립된 제주도 특유의 자기 사회에 대한 正體感으로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인들에 의한 문화전파의 결과, 유교문화에 대한 羨望意識이 나타나고 있어 그 兩面性의 특징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말이다. 외적 권력에서 부단히 자유로와지고자 하는 역사를 보임과 동시에 외적 권력에 아부하는 역사의 二重的인 면은 이밖에도 여러 곳에서 노출된다. 제주도의 육지에의 정치, 문화적 從屬과 지배층과 일반 농민간의 二分化, 그리고 특히 지배 엘리트층의 육지문화에 대한 事大主義的 傾向은 그같은 양면성을 이해하

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第2節 流配의 外延과 內包

1. 流配의 外延

朝鮮朝는 창건 이후 체제안정을 위해 刑律을 정비하게 된다. 형률의 큰 원칙은 大明律에 의거하였으나 특별히 조선의 國政에 맞는 徒刑, 流刑, 贖刑을 결정하였는데 이때 제주도는 遠惡의 일급 流刑地로 기능하게 된다. 流刑은 重罪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遠隔地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¹¹⁾로서 그 본질은 自由刑과 비슷하나 死刑의 換刑으로 대치되는 死刑緩和法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유형의 기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百濟本記』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三國時代부터 행해졌던 것 같으며¹²⁾ 실제의 법제화는 高麗時代부터였다. 고려는 元代의 법전율을 따랐지만 고려 말에 이르러 明의 정치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明律準用이 나타난다. 이것이 朝鮮朝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¹³⁾

流刑은 『大明律直解』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황폐된 불모의 벽지나 해

11) 『大明律直解』名例律, 五刑名義. 「流配謂人犯重罪刑殺流法遠方終法遠方終身不得回歸」

12) 『北史』, 百濟傳. 「其刑罰反逆退軍及殺人者斬盜者流」

『三國史記』, 新羅本紀, 興德王 三年條. 「漢山州瓢川人妖人自言有速富之術衆人頗惑之王聞之曰執左以或衆左刑之先王之法也投界其人遠島」

13) 『太祖實錄』卷1, 元年, 七月, 乙巳條. 「自令京外刑決官凡公私罪犯心該大明律」

변의 州, 郡, 縣 내에 보내어 安置하는 제도였는데 徒刑과 같이 노역을 과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토가 넓은 中國에서는 大明律에 따른 유형규정이 적용 가능하였지만 국토가 좁은 朝鮮에서는 이를 따를 수 없어 유형의 遠近은 世宗 12년(1430) 刑曹의 명에 따라 유배지역을 규정하였다.¹⁴⁾ 그러나 政治犯이나 特殊 犯罪人에 대한 유배지의 선정은 王政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일부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대개의 流配人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의 원근거리가 책정되었고 유형기간으로서의 刑期는 원칙적으로 無期終身刑이었다. 유배인은 일단 死刑에 해당하는 重罪人으로서 減 1 等된 罪人이었으며 그들의 성본은 대개가 政治犯이었다. 정치범으로 단죄되어 유배된 유형인은 赦免令이 내리든지 아니면 정치정세의 變動이 일어나든지 하지 않으면 일생 歸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에는 내용상 그 종류가 遷徙, 付處, 安置가 있었는데¹⁵⁾ 대개의 濟州流配는 安置의 유형으로 이른바 絶島安置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유형 중에 가장 가혹한 조치가 이른바 絶島安置로서 중죄인에 대한 응징적 의미를 갖고 遠惡의 島嶼에 유배시키는 유형제도였다. 이런 맥락에서 濟州三邑에는 「罪名이 특히 무거운 자가 아니면 定配되지 않는다」라든가

14) 『世宗實錄』卷50, 12年 潤12月 11日條. 「京城留後司京畿三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三十患外濱海各官二千五百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五患外各官二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患外各官」

15) 遷徙는 “遷離鄉土一千里外”로서 범죄인을 고향에서 천리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피해적 성격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로 관원에게 과해진 형벌의 일종이다. 安置에는 本鄉安置, 絶島安置, 園籬安置가 있다.

「濟州牧에는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定配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특히 절도안치로서 제주도의 유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¹⁶⁾ 또한 중죄인에게는 謫所를 가시울타리로 에워싸 그 안에 유배시키는 園籬安置라는 重軟禁이 함께 가해지기도 하였는데 더구나 위리안치는 「不可與家屬混處」라 하여 가족과의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절도안치되고 또한 위리안치된 유형자는 가장 가혹한 형벌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배인의 감시 책임은 官內의 守衛이었던 까닭에 守衛의 性格이나 裁量權 활용여부, 유배인에 대한 認識與否에 따라 위리안치의 형은 形式에 그치는 수도 많았다.

그런데 國初 儒敎立國의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결과 學說의 對立, 學問의 派閥을 잉태시켰고 그것은 나아가 黨派의 派閥로 분화되어 정권다툼으로 이어져 끝내는 피비린내 나는 士禍나 黨爭 등의 黨獄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유형이 남발하게 된다. 특히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권력투쟁에 따른 黨爭의 격화로 절도안치가 남용되어 당대의 名儒들이 제주도에 유배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는데 그 수가 他道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조 지역별 유배인수를 조사해 보면 제주도 大靜縣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大靜縣은 政策的 流刑地였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조의 선비들에게 있어 流配라는 것, 나아가 제주

16) 『大典會通』 刑典, 推斷.

17) 『韓國人名大辭典』(서울:新丘文化社, 1983)을 기초로 할 때 朝鮮朝의 인물 40,000여명 가운데 流配者는 대략 800여명이며 流配地는 240여개처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濟州島 大靜의 경우는 34명 정도가 流配되는데 이는 단일 流配地域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다.

도 유배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일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 유배라는 것은 때로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價値나 規範과도 엮여 있어 한편으로 廉恥와 名分の 徵表가 되기도 하였다. 선비들의 儒疏, 成均館生들의 捲堂, 空館에서부터 言官과 史官들의 諫言과 直筆 등 세속적 名利나 일신의 便安을 걸연히 버릴 수 있었던 태도의 연장선에 유배가 놓여 있었던 예는 비일비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유배인들이 유배적 상황을 낫설어 하거나 개탄해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敎學活動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 유배인 가운데 鄭蘊이나 金正喜 등의 태도는 가히 典型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의 선비들은 修己治人(개인의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을 전제로 한 士大夫(학자관료)로서 학문적 소양으로 정치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學者이면서 政治人이었고 政治人이면서 또한 學者였다. 따라서 그들이 유배되거나 정계에서 은퇴할 시는 학자적 측면이 부각되기 마련인데 특히 政治鬭爭의 결과로 야기된 유배의 경우에는 그러한 學者의 生活이 더욱 치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배인들은 敎學活動을 통해 儒敎的 敎養을 바탕에 간 많은 양의 知的 遺産을 유배지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出陸抑制政策으로 막혀 있었던 제주인의 압제의 충동(Antrieb)에 유배인들의 지적유산은 가장 큰 敎育的 刺戟이 될 수 있었다.

2. 流配의 內包

流配人들의 敎學活動은 일련의 啓蒙活動에 비견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에서 의미하는 계몽활동이란 近代 理性主義 소산으로서의 啓蒙主義的 活動 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제반 가르침의 활동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원래 啓蒙(Aufklärung)이란 환하게, 명료하게 한다는 행위가 그 행위 이전의 상태가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때 결국 계몽은 어두운 상태를 빛으로 비추어 밝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어두운 상태란 곧 조선조 체제의 제주도 矛盾狀況, 즉 抑壓과 支配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빛이란 유배인들이 행한 敎學活動을 의미한다. 결국 여기서 계몽이란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을 통해 제주도의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가르침의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啓蒙的 敎育活動은 이미 옛부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고 이해되어 왔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Socrates의 인간 영혼의 不滅性과 先位性을 가정하고 가르침이란 前生에 이미 알고 있었으나 육체를 입고 출생함으로써 전부 망각해 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일이라는 問答法과 또한 성실한 질문을 통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쳐 밝히고자 하는 產婆術(maieutike)이 그 대표적인 교육방법이다. 問答法과 產婆術은 학습자의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깨우치도록(egeirein) 敎師가 관여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이미 만남, 계속성과 질적인 변화와 같은 깨우치는 과정의 본질적 요소들이 나타난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전체를, 철저히(Omnes, Omnia, Omnino) 가르침으로써 죄에 빠진 인간을 그 本來的인 完全性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Comenius의 汎敎育論(Pampaedia) 역시 같은 차원의 것으로 유배인의 敎學活動 역시 동일 맥락의 전통에 놓여 있다.

Flitner는 人間과 教育에 관한 觀點들을 첫째,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발달과 성장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生物學的 考察方式, 둘째, 교육을 文化化와 社會化의 관점에서 보는 歷史的-社會的 考察方式, 셋째, 교육을 객관적인 정신이 담긴 傳統의 遂行者들과 미성숙한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정신적인 세계를 깨우쳐 주는 精神的 覺醒으로 보는 입장, 넷째, 그리고 교육을 양심과 믿음의 각성을 통한 人格形成으로 보는 입장 등으로 구분하였는데¹⁸⁾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대개의 경우 가르치는 사람의 積極的이고도 能動的인 介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세번째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Flittner의 세번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유배인의 교학활동에 의 教育의 關係(Erziehungsverhältnis)란 傳統을 생생하게 그 안에 품고 있는 존재와 그와 같은 傳統들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전통의 秩序들과 成果들의 意味內容에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精神的인 交流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배인의 교학활동에 의한 教育이란 사회문화적 질서와 정신적인 활동들 안에 내포된 모든 기본 방향들 속에 담긴 事實性(Sachlichkeit)에로 이끄는 깨우치는 활동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교류는 만남의 형식을 띠게 되며 여기서 정신적 세계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教育史에서 되풀이 돼 왔던 소의 「만드는 教育」과 「기르는 教育」이라는 교육에 관한 두 가지 근본 이해 가운

18) W.Flittner, Allgemeine Pädagogik, Stuttgart:Klett-Cotta, 1950, p. 28.

데 만드는 교육의 正統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만드는 교육의 전통은 인간을 白紙(tabula rasa)로 보는 J.Locke의 견해처럼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한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教育 必要性和 可能性이 매우 중시된다. 그런데 이 전통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인간 이해에 기초하고 있어 인간을 자기의 환경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環境 拘束的인 沒我的 刺激反應體이며 자기의 환경과 자기 자신을 對象的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학습자와 환경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학습이란 결국 프로그램化 되고 이데올로기化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게 된다.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당대의 체제 이데올로기인 性理學을 당연시 하는 범주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만드는 교육의 學習觀을 잘 대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드는 교육의 대상이 무차별한데 비해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그 대상이 비교적 限定的이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계획적임에 비해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斷續的이고도 突發的이었다는 점에서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렇듯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偶然的이고 突發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豫想할 수도, 計劃할 수도, 方法化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實踐의 優位性을 새롭게 자각케 한다.

결국 유배인의 교학활동이란 유배인과 제주인의 突發的인 만남이다. 만남이란 인간과 인간의 相互作用이고 生動的인 人格的 關係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環境에 대한 包括的이고 實踐的인 광범위한 모든 關係를 뜻한다.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本來的인 實存으로 돌아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과제이다. 敎學活動은 유배인과 제주인의 만

남을 위한 媒介變數인 것이며 만남을 촉발시키는 가능한 조건으로서 궁극적으로 서로가 만남에 직면하였을 때 共存으로서의 實存을 확인하고 서로를 권고하며 깨우쳐야 할 과제를 갖고 있는 活動이었던 것이다.

3. 比較示唆

인간이 자기의 狀況에 구속되어 그것에 條件的으로 反射할 뿐이라면 인간은 변화시키려는 勢力들에 의해 被動的으로 프로그램化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인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언제나 疑問을 提起하고 批判的으로 認識한다. 특히 유배라는 절박하고도 긴박한 상황 아래서도 자신의 자유로운 精神 (Geist)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유배라는 危機的 狀況이 가져다 주는 '破壞와 創造'의 징후 가운데 파괴적 국면을 철저히 비판하고 창조적 국면을 인지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환경을 주도하던 인물들이다. 그들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V.Lenin과 Krupskaya夫婦¹⁹⁾, 중국의 蘇東坡²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95년 『勞動者의 大義(The Workers' Cause)』라는 지하신문의 발간을 계획하다 체포된 V.Lenin은 시베리아 예니세이江 상류 지역의 한 작은 마을인 Shushenskoye에서 3년간 流配生活을 하게 된다. 대개의 시베리아 유배인

19) 以下 Wolfe, Bertram D., Three Who Made a Revolution: A Biographical History. rev.ed.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4. 參照

20) 以下 林語堂, The Gay Genius, 合山究 譯, 『蘇東坡評傳』, 明德出版社, 1978, 參照.

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신적으로 황폐화 되는 반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集中力과 일하는 能力을 발휘, 유배의 어려움을 견디어 냈는데 특히 冊에 대한 耽溺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유배지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는 필요한 책을 보내 달라고 자기 가족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으며 그런 책이 그의 손까지 들어오는데 1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그때 보낸 편지 한 장에 그는 「거리가 아무리 멀든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마치 제주 유배인 金正喜의 열정과도 유사하였다.

책값을 벌기 위해 Lenin은 英國의 페비언 社會主義者 Webb夫妻가 쓴 『The Theory and English Trade Union』을 번역했고 經濟評論을 쓰거나 書評을 쓰기도 했으며 그의 著作인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의 원고를 팔기도 했다. 또한 그는 농민들을 위해 法律事務所도 열었는데 물론 인가가 없는 사무소였다. 그러나 농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항시 수많은 농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연구가 주력하고 있는 유배인의 教學活動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하게 된다.

Lenin이 경찰에 잡힌 지 여덟달 뒤에 그의 戀人인 Krupskaya 역시 체포되는데 그녀도 유배지로 Lenin이 머물고 있는 Shushenskoye를 택함으로써 그들은 유배지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Krupskaya가 Shushenskoye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Lenin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는 우선 당시 『合法的 마르크시스트』 잡지의 편집인을 만나 자신이 앞으로 쓸 論文들과 書評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라고 부탁했으며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발간할 출판사를 찾을 것과, 몇 가지 정기 간행물의 정기 구독신청을 마쳐 놓을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冊들을 갖고 올 것을 부탁했다. 그 밖에도 그는 자질구

레한 많은 부탁을 잊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내로서, 비서로서, 가정부로서, 그리고 충실한 제자로서 봉사함으로써 유배지에서 Lenin의 생활을 풍요하게 했다.

특히 Krupskaya는 이미 페테르스부르크의 노동자 日曜學校 교사로 있으면서 社會主義 教育理念의 창시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유배 생활에서 Lenin과의 토론을 통해 그것을 철저히 가다듬게 된다. 유배 이후 유럽에서의 오랜 망명기간 동안 Krupskaya는 유럽의 교육현실과 교육이론을 관찰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10월 혁명 이후에는 蘇聯人民教育委員會 대표로서 혁명기 러시아의 사회상황과 교육현실을 분석, 검토하면서 綜合技術教育에 입각한 새로운 國民教育制度를 제창하기에 이른다.

Lenin과 Krupskaya가 남은 질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도록 하는 계기로서 유배적 상황을 적극 활용하였다면 蘇東坡는 유배를 통해 지속적인 삶의 과정의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즉 日常的인 것과는 質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계기로서 이용한다.

친구인 章惇에 의해 1094년(紹聖 元年) 惠州에 유배된 소동파는 그를 만나러 오겠다는 옛 친구 陳造에게 「孔子께서도 일찍이 말하길 아무리 오랑캐 땅이나 시골 벽지라 할지라도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惠州에서 거의 반 년을 지내는 동안 날씨에 적응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므로 마음에 무슨 근심 걱정 따위가 없노라」고 하였다. 이는 소동파의 유배에 대한 적극적인 상황인식을 대변함인데 그 積極性은

유배에서의 여러 사람들과의 對面을 통해 발현된다. 이는 곧 流配 教學活動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해주 지역의 모든 관리들은 소동파의 名望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의 유배를 틈타서 이 걸출한 詩人和 다투어 서로 사귀고 싶어했고 해주태수 膽範과 博羅, 현령 林下은 소동파의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다.

해주에 유배되었던 소동파는 1099년 원악의 海南島로 移配되는데 이제 살아서 돌아올 희망은 없는 듯하지만(無復生還之望)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곤경을 감내하는 여유를 보인다.

「내가 처음에 南海에 도착했을 때 주위 사면 지평선 위로 바닷물만 빙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상심하여 이렇게 한탄했었다. “언제나 이 섬을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얼마 지난 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九洲가 모두 大瀛海에 둘러싸여 있고 중국은 小海 가운데에 위치해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는 일생동안 줄곧 섬 위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²¹⁾

이렇듯 소동파는 유배적 상황에서도 결코 자기 本性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머감각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는 적어도 위로는 옥황상제와 어울릴 수 있었고 아래로는 거지와도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함으로 유배지

21) 蘇東坡, 『書』, 「吾始至南海 環視天水無際 懷然傷之曰 何時得出此島耶 已而思之 天地在積水中 九洲在大瀛海中 中國在小海中 有生孰不在島者」

주민들과 어울렸는데 이제 그는 보잘 것 없는 無名의 文人들과 農夫, 아낙
네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것이며 결국 그들의 「스승」 역할을 기꺼이
자임하였던 것이다.

第4章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의 展開

第1節 時代區分の 意味와 內容

教育의 歷史에 대한 時代區分の 問題는 教育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認識을 위한 有効한 方便이다. 여기에서 方便이란 역사인식의 方法에 있어 필요한 하나의 道具요 假說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시대구분은 事實이 아니라 事實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명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假說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대구분의 妥當性은 역사적 事實들을 체계적으로 통찰하여 새로운 知識을 증진시키는데 有效하나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教育의 历史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精神 및 人間象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와 깊은 關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대구분의 문제는 이와 같은 綜合적인 관찰에서 결론지어져야 함이 물론이다.

時代區分の 類型은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크게 6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즉, 現在를 起點으로 한 時間의 遠近에 의한 시대구분, 社會發展段階를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 民族의 成長過程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 主題에 따른 시대구분, 社會發展과 王朝와를 혼합한 시대구분, 支配勢力의 變化에 따른 시대구분이 그것이다.¹⁾

1) 韓國經濟史學會, 『韓國史時代區分論』, 서울:乙酉文化社, 1973, pp. 5~26.

현재론 기점으로 한 시간의 원근에 의한 시대구분은 서양의 古代, 中世, 近代의 三分法에 영향받은 것이며 근본적으로 王朝中心史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사회발전단계를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은 한국의 구체적인 歴史的 事實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 도출된 특정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많은 점에서 검토와 비판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민족의 성장과정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은 試案일 뿐 실제의 敘述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의 시대구분에 있어서의 卓越性을 지니고 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밖에 主題에 따른 시대구분은 본질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繼起的 發展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를 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발전과 왕조와를 혼합한 시대구분은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싶으나 현재의 연구수준에서는 그것이 어려우므로 왕조에 의한 구분을 검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구분법은 사회발전단계를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과 동일한 유형이다. 끝으로 지배세력의 변화에 따른 시대구분은 각 시대의 繼起性에 대한 이론적 밑받침이 미약한 것이 결점이다.

물론 역사적 현상을 모두 해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歷史法則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여러가지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 역사는 자연히 여러가지 시대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시대구분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법칙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여러 법칙의 종합적인 관찰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의 시대에서 그와 連接하는 다른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데 말하자면 시대적 변화에 대한 必然性이 客觀性을 가지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조의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대구분에 대한 입장은 각양각색이다.²⁾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역대 文教政策과 思想의 파동을 엄두에 둔 시대구분 설정이 일반적이며 그 갈래는 크게 4期로 정리된다.

朝鮮前期 ; 教育體制의 確立時期.

朝鮮中期 ; 教育思想의 發展分裂時期.

朝鮮後期 ; 새로운 教育思想을 위한 陳痛期.

朝鮮末期 ; 舊教育思想에 대한 反省과 近代學校教育 誕生期.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공통적인 한계는 근본적으로 시대구분에 있어 王朝中心史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교육사 서술이라기 보다는 그 본질에 있어서 王朝의 변천에 따른 教育事象의 목록 나열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조선조 教育思想史의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丁淳睦의 입장이 參照的이다. 그는 한국 性理學의 발전단계를 15世紀; 政教 이데올로기 時代, 16世紀; 心性學의 人間觀의 時代, 17世紀; 禮學의 秩序理念의 時代, 18世紀; 實學의 經世致用の 時代로 구분함으로써 조선조 교육사상의 변천과정을 정리

2) 李萬桂는 上期(太祖~燕山君), 中期(中宗~肅宗), 下期(英祖~高宗). 韓基彦은 前期(太祖~明宗), 中期(宣祖~景宗), 後期(英祖~高宗). 安商元은 前期(太祖~燕山君), 中期(中宗~景宗), 後期(英祖~高宗13), 衰退期(高宗13~純宗4)로 그 구분이 구구하다.

해 보고자 했다.³⁾ 그런데 이같은 世紀別 구분은 자칫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편의성을 지닐 우려가 있으나 15세기 조선조 창업을 시점으로 하여 百年 1 期씩 끊어서 그 시대의 意味中心이 어느 방면에 쏠려 있는가 하는 점과 政治原理와 敎學原理의 관계 등으로 보아 儒學理念의 時代的 推移를 밝히는데 強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구분은 지나치게 거시적이어서 이를테면 본 연구같은 지방교육사 서술에서는 그 구분의 適合性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방교육사의 시대구분은 그 지방의 독특한 時代理解를 배려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同時代의 時代的 推移나 狀況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이중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지방교육사의 시대구분은 지방의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한국교육사의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中央史에 의한 地方史의 시대구분은 지방사를 變型的인 역사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는데 典型的인 것과 變型的인 것의 차이는 사회의 본질적인 차이로서 결과적으로 제주도 같은 地方의 停滯性을 정당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사 연구에 있어서는 지방사에 나타나 있는 個性的인 發展의 論理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방사에 나타나는 독자적 사회특징을 과감하게 표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중앙사와의 관련성, 즉 中央史의 編年體와의 關係에 대해 고려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제주도 교육현실의 變化推移를 준거로 하여 朝

3) 丁淳睦, 『退溪의 敎育哲學』, 서울:知識産業社, 1986, p. 294.

朝鮮朝를 4期로 나누고 구분된 각 시대 나름의 구체적 내용을 主題別로 서술함으로써 시대적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조선조 對濟州島 政策과 體制變動에 대한 제주도 나름의 對應樣式으로서 교육사상의 전개과을 제주도의 主體的인 입장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朝鮮前期：「中央教育構造의 強制移植期」

太祖朝(1392)에서 仁宗朝(1545)에 이르는 기간으로 중앙교육구조의 朝鮮朝의 體制整備의 次元에서 性理學的 國家教學理念이 政策的으로 강제되고 그에 따라 教育形式이 정비됨으로써 濟州 教育이 중앙중심의 教育構造에 철저히 편입되고 客體化되던 시기이다.

朝鮮中期：「教育展開의 孤立封鎖期」

明宗朝(1546)에서 肅宗朝(1720)에 이르는 기간으로 出陸抑制政策에 의해 對外的인 教育進出이 봉쇄됨으로써 濟州 教育이 孤立化되던 시기이지만 내부적으로 볼때는 書院의 건립과 黨爭流人의 來島로 教育的 活力이 모색되던 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教育的 自生力の 展開高揚期」

景宗朝(1721)에서 高宗朝(1896)에 이르는 기간으로 出陸抑制政策의 해체와 濟州人의 教育的 自生力을 통해 濟州 教育이 主體的 能力이 고양되던 시기이다. 특히 濟州人의 教育的 自生力은 濟州人 고유의 運動的 力量과 연계되어 시대적 갈등을 버텨내는 힘으로 부각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朝鮮末期：「近代教育의 選擇受容期」

光武 1年(1897)에서 隆熙 3年(1910)에 이르는 기간으로 開化期의 時代的 變化推移를 濟州 教育의 主體的 力量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하던 시기이다.

第2節 朝鮮前期 教育思想史

—中央教育의 強制移植期—

1. 朝鮮前期의 主題的 特徵

朝鮮前期는 太祖朝(1392)에서 仁宗朝(1545)에 걸친 기간으로 전국에 걸쳐 왕조의 中央集權體制가 性理學的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구축되던 時期이다. 특히 조선전기는 體制의 制度的 整備라는 차원에서 國家教育의 形式 擴充이 시급히 요망되었으며 그러한 文教政策의 必要性에 부응하여 濟州島에도 교육의 形式的 기틀이 갖추어지게 되던 때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교육의 形式基盤은 어디까지나 中央集權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서 마련된 것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獨立性 즉 分離性에 대한 警戒를 통해 제주도를 교육의 客體的 立場으로 한정시키려는 조정의 意圖 속에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한 의도는 조선전기에 시행된 조정의 對濟州島政策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따라서 對제주도정책은 이 시기 제주도 교육의 특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對제주도정책은 크게 選上政策과 地方官 政策 그리고 圖書政策, 鄕校政策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 시기의 제주도 교육을 可能하게 한 制度的 背景으로 鮮初 性理學的 敎義 전달의 思想史的 脈絡을 가늠케 해줌으로써 조선전기 제주도의 教育的 立地와 內容 그리고 態度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이러한 對제

주도정책에 비추어 조선전기 제주도의 교육은 왜 客體的 立場에 限定되어야 했으며 제주도는 封建制度 옹호의 교육이념을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부터 제주도는 조선조의 刑律規定에 따라 一級의 遠惡流配地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조全般에 걸쳐 제주도의 固有機能으로 정착된다. 이러한 流配政策은 제주도 교육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流配人과 濟州人과의 교육관계로서 師友講習은 제주 교육의 本領으로서 자리할 만큼 그 領域이 확충된다. 특히 流配政策으로 부터 배태된 非形式教育構造인 流配教育은 제주도 교육의 客體的 限定을 극복하려는 제주인들 나름의 對應的 教育樣式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주목된다. 조선전기에는 流配教育의 전개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濟州教育思想史의 始原的 役割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2. 對濟州島政策의 教育的 意味

(1) 濟州子弟의 選上

朝鮮朝 教育이데올로기인 性理學은 朝鮮朝 창건의 正當性을 합리화 시켜주는 理念이기 때문에 그 보급은 政策的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일찍부터 耽羅國이라는 독립된 個別國家 體制를 경험하고 있던 지역이라서 分離性에 대한 警戒의 차원에서 그러한 정책은 보다 강력하고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鮮初 제주도 統治方式은 分離性의 경계 때문에 內地化 또는 服屬化 의미의 慰撫政策的 性質을 띠고 있었다. 鮮初 제주도에 대한 인

식은 ‘海外之人’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을 지적함을 넘어 海外로 상징되는 獨立國家의 分離性에 대한 경계가 함축되어 있었다. 결국 慰撫政策이란 그러한 警戒의 婉曲한 態度일 따름이었다.

一般官職과 달리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되었던 特殊官職으로서 土官職¹⁾이 懷柔策의 일환으로 운용되었는가 하면 濟州子弟의 選上問題 또한 같은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選上制度는 慰撫의 手段으로서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土豪子弟를 인질로 하여 지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方策으로서 高麗朝의 其人制度和 유사하였다. 따라서 選上制度는 일종의 統制策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선상된 자제에 대해 새로운 왕조가 통치적 차원에서 견지하는 教育理念의 熟知化라는 교육적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던 제도였다. 이러한 選上制度가 교육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當代의 성리학적 정치이데올로기에 기초한 文化傳受와 文化注入에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성향체계를 소지한 主體들을 키워내는 일이었다. 결국 選上된 제주자제들에게는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文化的 能力이 요구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곧 조선조 體制同參의 요구를 意味하는 것이기도 했다.

子弟의 選上은 世祖朝에는 平安道 14개처, 咸境道 14개처, 濟州三邑 등 모두 31개처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방자제를 東西班에 登用할 수 있도록 했

1) 朝鮮初期 平安, 咸境, 濟州人을 임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特殊官職이다. 一般官職과 달리 懷柔策으로 地理的인 特殊性을 감안하여 설치되었는데 品階⁰는 文, 武官을 막론하고 최고 正 5 品에서 從 9 品 까지로 觀察使나 節度使가 推薦하였다.

었다.²⁾ 이 때 제주자제는 軍職으로서 西班職에 오를 수 있었는데 점차 文官의 班列인 東班에도 敍用되었다. 世宗朝에는 제주자제 중에서 文算에 능한 자를 吏曹에서 試取하여 서용했으며 成宗 때에는 才行이 있고 文筆이 능한 자를 목사가 抄啓하면 吏曹가 다시 시험하여 東班職에 서용하였다. 世祖朝만 하더라도 제주三邑 자제에 대한 敍用の 정원이 8명이었지만 이후 30명으로 증가³⁾되었는데 이는 北道에 비해 3배가 되는 수로서 國防上의 이유와 馬政을 비롯하여 貢納 등 경제상의 중요성 때문에 취해진 결과임과 동시에 그만큼 撫摩시키고 警戒해야 할 內容이 많은 곳이 濟州島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제주자제의 선발은 처음에는 京在所의 薦舉에 의했으나 世宗 10年(1428) 이후 牧使가 人品, 世系, 祖上의 功勞 등을 고찰하여 兵曹에 알리면 兵曹는 이를 京在所 薦狀과 더불어 考察한 후에 敍用하였다.⁴⁾ 그후 選上 규정은 달라져서 제주목사가 선발하고 觀察使를 거쳐 兵曹에 上申토록 하였다.⁵⁾ 그러나 이 시책의 초기에는 土官職이 우대되어 조정에 仕宦하기 보다는 土官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환을 마친 자제를 千戶百戶

2) 『世祖實錄』卷37, 11年 11月 己未 「平安道 平壤子弟一人 用之東班 江邊六郡子弟 用之司僕 寧邊 安州 義州 麟山 龜城 定州 成川子弟 用之西班 咸吉道 咸興子弟 用之東班 六鎮 三水 甲山子弟 用之司僕 鏡城 吉州 端川 北青 永興子弟 用之西班 以之濟州子弟四人 旌義 大靜子弟 各二人 亦用西班」

3) 『經國大典』兵典, 番次都目條.

4) 『世宗實錄』卷40, 10年 4月 壬戌 「兵曹啓 濟州子弟 只以本州京在所薦狀 敍用不可 請自今 安撫使考其人品 世系及祖上功勞 移文本曹 本曹并考京在所薦狀 敍用 從之」

5) 『經國大典』卷4, 兵典, 番次都目 濟州子弟案 「濟州牧使 於三邑居人內 擇從 仕可當者 報觀察使以啓 本曹錄簿每日親着」

로 差定함으로써 중앙에 종사하는 제주자제의 비중을 높여 주었다. 이는 제주자제들을 現地에 머물러 있게 하기 보다는 조정으로 불러들임으로써 分離性에 대한 警戒라는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조치였다. 이렇기 때문에 選上된 자제들이 歸鄕할 때에는 두사람마다 馱馬 한 필을 出給한다고 규정하여⁶⁾ 驛馬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되도록 特別配慮의 인상을 많이 심어 주었다.

이렇게 선발된 자제들은 일종의 特惠人으로 중앙의 慰撫政策的 教育施惠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왕조교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新興士大夫들에 의해 도입되고 官學化된 성리학적 교육이념들을 熟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綱常의 眞理(綱常之道)이다. 즉 ‘하늘의 법칙을 간직하여 사람의 욕망을 제거한다’(存天理 滅人慾)는 공부로서 易姓革命은 天命을 구현하기 위한 防伐로서 하늘의 뜻이며 百姓들은 이에 마땅히 따라야 할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綱常의 眞理가 제주도에도 유포된다면 제주인들도 기꺼이 朝鮮朝의 體制를 받아들이고 分離性을 고집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결국 選上政策은 제주도 전통세력의 懷柔와 弱體化 작업을 통해 조선조 체제의 正統성과 政治的 實踐에 대한 同調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행되었던 제도이자 아울러 조선조 건국세력들이 統治理念으로 규정한 성리학의 보급확산을 위해 교육적으로 활용하였던 제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때 敎

6) 『經國大典』卷4, 兵典, 驛馬案 『濟州子弟及押貢人廻還時每二人給馬一匹』

育은 支配階級の 統治強制力을 배가시키는 象徵的인 힘(symbolic power)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로 하여금 教育의 客體的 立場에 머물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地方官의 派遣

조선조의 對제주도정책으로서 服屬化 또는 內地化 추진은 選上된 子弟들이 牽引車 役割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조의 교육이데올로기인 性理學的 理念이 전달되었다. 이렇듯 교육이념의 전달은 選上된 子弟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였지만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달은 牧使나 儒學教授官의 파견에 의해서 振作되었다. 제주도의 濟州牧이나 大靜縣, 旌義縣에 각각 鄕校를 설립하고 守令으로 하여금 이를 독려하도록 守令七事 중에 興學을 포함시켜 이로써 考課, 褒貶한 것이나⁷⁾ 제주도 鄕村 三邑의 儒學教育을 위하여 教授官이 파견되었던 것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특히 儒學教授官의 제주도 파견은 보다 체계적인 성리학적 체제의 보급을 위한 學的 土臺를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鄕村은 말단 행정구역이자 王朝의 기초적 지배기반이다. 그러므로 君主나 支配層이 향촌의 통제정책에 깊이 뜻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말해서 향촌의 지배기반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왕조의 통치체제는 정립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정에서 일찍부터 分離性에 대해 경계를 하였던 탓으로 그러한 警戒策의 하나로 鄕村敎化가 시급히 요청되었던

7) 『經國大典』卷1, 吏典, 考課條.

것이며 또한 敎化의 한 方案으로 뜻있는 지방관들은 鄕村敎育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官權과 在地勢力의 二重支配下에 놓여 있던 조선전기 제주도의 실태로 볼때 국가의 처지로서는 在地勢力의 私學的 敎育機能에 제주도를 완전히 맡길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선조정은 통제정책의 차원에서, 또한 뜻있는 지방관들은 鄕村敎化라는 차원에서 제주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주도에는 太祖 3年(1394)에 처음으로 都評議使司에서 건의하여 10세 이상의 土官子弟를 가르칠 敎授官이 파견되었다가⁸⁾, 定宗 2年(1400) 이후에는 判官으로 하여금 敎授를 겸하게 하였다.⁹⁾ 그러나 점차 儒生數가 증가하고 업무가 복잡하여져서 判官의 업무가 倍增하였기 때문에 敎訓하기 어렵다 하여 太宗 18年(1418)에는 별도로 敎授官을 파견하고 旌義, 大靜의 學校도 아울러 담당케 하므로써 文風을 진작시켰다.¹⁰⁾ 그런데 이들 敎授官이나 訓導는 檢律과 함께 조정에서 임명받은 王化官으로서 엄치를 알고 지방민들에게도 청신한 풍토를 시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商人들과 협잡하여 私物殖貨하고 馬匹賣買 등에 분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이러한 王化官의 取利行爲는 士風을 위축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거리가 멀고 水路가

8) 『太祖實錄』卷5, 3年 3月 丙寅「都評議使司上言 … 乞自今置敎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 上從之」

9) 李元鎮, 前揭書. 「我太祖六年丁丑革萬戶 置牧使兼食節制使 恭靖二年庚辰以判官兼敎授 太宗元年辛巳 復置安撫使兼牧使」

10) 『太宗實錄』卷35, 18年 4月 戊戌「復差濟州儒學敎授官 禮曹據濟州牧官呈上言 州及任內 儒生二百余人 詞訟雜務煩劇 雖以判官兼敎授官 實難敎訓 請依前例 別差敎授官 旌義大靜學校 并令考察 以振文風 從之」

11) 『世宗實錄』卷36, 9年 6月 丁卯「濟州道察訪金爲民啓 謹將濟州公私積年弊

험악하여 敎授官이나 訓導들은 제주도 부임을 꺼리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成宗 21年(1490)에는 제주도에 부임하는 敎授官이나 訓導들에게는 加階와 給馬의 특별 대우가 마련되었다.

李約東(1416~1493), 沈連源(1491~1558) 등이 이 시기 제주도의 文風振作에 주력하였던 대표적인 地方官이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朝鮮朝 敎育思想의 정당한 系譜인 道統의 大河的 脈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제주도의 文教振興에 주력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이제 교육이념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大勢가 되었으며 따라서 한 지역의 性理學的 文風圖謀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學者를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합당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관들이란 대개의 경우 苛斂에 눈 멀었던 貪官汚吏일 뿐이며 따라서 몇몇 뜻있는 지방관들이나 교수관의 노력은 항상 一時的인 것으로 여겨졌고 사실 또한 그러한 형편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들이 官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데 있었다. 교육을 맡은 사람이 官府에서 파견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形式敎育(formal education)에 치중하게 되고 나아가 학생은 스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 고을에서는 戶籍을 살펴 학교에 입학시키므로 학교 역시 行政구역을 넘어서 널리 學生을 모을 수가 없어 스승 또한 학생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근거로서 운명적이고도 은혜로

事 案列以聞 … 濟州敎授官敎諭檢律 雖非守之例 亦皆受命於朝 以佐王化者也 宜養廉恥 以示士風 或將私物殖貨買馬與商爭利 取侮於海島之民 深爲可恥 嚴立禁防 以礪士風」

온 만남(*begegnen*)의 문제를 형식적인 차원(*treffen*)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다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유배교육을 통해서 初傳(第 1代 弟子)形式的 師弟關係가 성립되었지만 地方官이나 教授官에게는 그러한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며 또한 鄕校 등 교육기관을 출입하는 一部 제주인들이 뜻있는 지방관들의 교육적 노력을 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李約東은 당대 士林의 宗主인 金宗直의 門人으로서 그의 문과급제시 淸道郡守로서 榮親宴에 참석하는 등 학문적 교분이 남달랐던¹²⁾ 지방관으로 재임시(1470) 제주인들의 敎學에 남다른 애정을 갖는다. 그는 제주유생들이 向學熱은 있으나 좋은 敎授가 없어서 학문이 成熟大成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公務의 여가를 이용하여 몸소 經書를 敎授하였으며 이미 經史에 정통하였으므로 유생들이 敬服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재임후에도 濟州三邑의 儒生敎育을 걱정하여 제주목사는 文武를 겸비한 人才를 보내어 民治와 敎學을 겸행하여 인재양성에 노력하도록 上啓하였다.¹³⁾ 이러한 연유로 그는 제주유림들에 의해 憲宗 10年(1669)에 永惠詞에 享祀되고 후일 州賢으로 推仰된다.

沈連源은 金宗直의 學統을 이은 金安國의 弟子로¹⁴⁾ 제주에 부임(1534)하자 교육기관으로 南門城 안에 鄕學堂을 설립하고 濟州鄕校의 明倫堂을 重修

12) 張志淵, 『朝鮮儒敎淵源』. 「門生受業者甚多如金寒暄堂…李平靜約東諸公多不能盡錄」.

13) 『成宗實錄』 8年 閏2月 庚子 「濟州人願學者多然無師授不能成就臣爲牧使治事之暇敎以經書今若三邑守宰文武交差以治以敎則人材亦出矣」.

14) 金堉, 『海東名臣錄』, 卷5. 「及長質業於墓齋金公竟歲不返才識大進」.

하는 등 敎學振興에 일조한다. 그는 제주유생들에게 주는 글에서 敎育目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른바 明倫이라 함은 人倫의 도리를 강론하여 밝히는 것이니 三代之 배움은 다 인륜을 밝히는 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배움의 길은 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근본은 孝悌에 있을 따름이니 만약 효제의 실재를 잘 닦지 못한다면 이 堂에 올라서 아침에 읊고 저녁에 암송하여 무슨 소용이 있으랴」¹⁵⁾

성리학의 교육목표인 明人倫을 지적하는 예기로서 人倫은 글자 그대로 君臣, 父子, 兄弟 등의 인간관계이다. 그래서 인륜을 밝힌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안다는 예기이며 나아가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가 수행해야 할 직분을 안다는 예기로서 곧 明人倫은 조선조 교육의 목표인 동시에 선비의 삶의 목표이기도 했다. 심언원은 學識과 人望이 있는 제주인을 택하여 學長을 삼았으며¹⁶⁾ 그로 하여금 학생들을 모아 이 敎育目標를 가르치게 하였는데 學長은 品官이 아닌 것으로 보아 代用敎員格인 듯하다. 당시 代用敎員 능력을 갖춘 제주인은 흔하지 않았지만 金良弼이나 李義英 같은 濟州敎授들의

15) 李元鎮, 前揭書, 「所謂明倫者 講明人倫也 傳曰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夫爲學之道 不越乎是矣 然其本原 在於孝弟而已 若不克修孝弟之實 則雖登是堂 朝吟而暮誦之 有何益哉」

16) 上揭書, 「令學長聚貢生及童蒙而敎訓之」

盡力이 주목된다. 金良弼은 심언원에게 明倫堂 重修를 건의하였으며, 李義英은 공사를 主管, 監督하였다.¹⁷⁾ 향교는 講學만이 아니라 文廟祭享의 임무를 겸하고 있었던 만큼 심언원은 學園環境을 정화하고 殿宇나 學舍의 管理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은 곧 士風의 振作과 관련된 일이었다.

(3) 鄕校의 設立

鄕校는 조선조 지방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조선조는 건국 초부터 學校를 ‘敎化의 本’으로 삼았기 때문에 人倫을 밝히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大學으로 수도에 성균관을 두어 고급인재를 양성했고 小學으로 중앙에 四學과 지방에 향교를 두어 연소한 京, 外子弟들을 길러냈다.¹⁸⁾ 제주도에는 太祖 元年(1392)에 學校가 세워졌는데¹⁹⁾ 이것은 地方 鄕校로는 가장 일찍 설립된 예로서 근본적으로 鮮初의 對 제주도정책과 관련한 懷柔策임과 동시에 제주도를 敎化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한 中央의 제주도에 대한 警戒의 입장이 開陳되어 있다. 旌義, 大靜의 兩縣은 太宗 16年(1416)에 分置되어 그후 곧 鄕校가 설치되었으며 이로써 제주도에 3개의 鄕校가 설립된다.

職制를 보면 濟州牧은 教授(從 6 品) 1人, 訓導(從 9 品) 1人이 있고

17) 上揭書.「與教授金君良弼慨然興嗟卽有重新之志也…夫是役也 今教授李君義英 實監掌程督 閱月有奇而告成」

金錫翼『耽羅紀年』卷2.「中宗 三十一年 秋 牧使沈連源 重修明倫堂 初沈連源與教授金良弼 謀議重 久而未遣 至是 令教授李義英 掌程督撤 而改 」

18) 鄭道傳,『三峰集』卷7, 朝鮮經國典上, 禮典, 學校.

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 學校案「在域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鄕校再造」

兩縣에는 訓導가 各 1人이 있어서 敎訓을 담당하였다. 世宗初 兩縣의 生徒數는 각각 50餘人에 이르렀고 제주인 가운데서 學行이 뛰어난 자를 골라 敎導를 삼아 가르치게 하였다.²⁰⁾ 鄉校 校生의 定員은 經國大典에 의하면 濟州牧이 90人, 旌義·大靜 兩縣이 각각 30人이라고 하나²¹⁾ 수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때에 따라 定額보다 적을 수도 있었으나 대체로 초과하는 예가 많았다. 經國大典 이전이지만 世宗 2年(1420)에는 兩縣 향교의 생도수가 각각 50餘人이나 되었으며 孝宗時의 생도수도 濟州鄉校인 경우는 定員을 초과하였고²²⁾ 旌義縣은 66人이나 되어 정원의 두배를 넘고 있었으나²³⁾ 大靜縣은 15人으로 반밖에 안되었다.²⁴⁾

이 가운데 濟州鄉校 운영 가운데 考講의 구체적인 내용을 憲宗時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²⁵⁾ 향교의 유생은 정식으로 합격해서 들어온 儒生인 接生 60명 외에 講論 받기를 원하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은 모두 뽑아들이고 試驗은 考講의 경우 매달 10日, 20日 그리고 末日에 보았다. 試驗日이 되면 향교에서 寄宿하며 공부하는 학생인 齋生들은 갓과 의복을 갖추어 시간에 맞춰 모였다가 牧使가 나오면 東西로 나눠서서 뜰 아래서 공손히 맞이한다. 牧使가 明倫堂으로 물러나 앉으면 訓長, 掌議, 直月은 동쪽 계단 아

20) 『世宗實錄』卷10, 2年 11月 己卯 「濟州京在所上言 大靜旌義二縣 始置鄉校 兩縣生徒 各五十餘人 請選州人 經明行修者爲敎導」

21) 『經國大典』禮典, 生徒案.

22) 李元鎮, 前揭書, 「校生之數 過於州額 而志學者少」

23) 上揭書, 旌義縣 學校案 「鄉校在縣南城內 校生時數六十六人」

24) 上揭書, 大靜縣 學校案 「鄉校 舊在北城內 中移東門外 還移西城內 今移城南 山下 校生時數 十五人」

25) 以下 濟州鄉校에서 發見된 文件 參照.

래에 서고 齋生은 서쪽 계단 아래에 서서 마주보고揖한 뒤 牧使를 향해 차례로 올라 온다. 訓長, 掌議, 直月은 앞줄에, 齋生은 뒷줄에서 牧使를 향해 두번 절하고 牧使는 이에揖으로 답한다. 試驗에 임할 때는 冊床을 방 가운데 두고 牧使는 북쪽 벽에 訓長, 掌議, 直月은 동쪽 벽에 앉고 齋生은 서쪽 벽에 앉는다. 直月은 나이가 많고 학문이 높은 이를 2명 뽑는데 그 중 한사람이 冊床 앞에 나아가 소리를 가다듬어 朱子の『白鹿洞規』를 낭독하면 齋生은 조용히 듣고 난뒤에 考講한다. 40세 이하는 牧使와 뒤돌아 앉아 글을 외우는 背講을 하게 하고, 40세 이상은 面講토록 하는데 이 때 음과 뜻풀이 보다 글뜻을 분명히 하고 句讀가 잘 되었는가를 보아 높고 낮음을 評한다. 罰則으로는 선비가 한번 不(최하 점수)를 맞으면 罰로 종이 10장을 내고 두번 不를 맞으면 接生은 給料(장학금)을 안준다. 이 때 接生이 아닌 사람은 罰紙 1卷을 내며 세번째 不를 맞으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반면 한번 純通(높은 점수)를 맞으면 賞으로 종이 10장을 주고 두번 純通을 맞으면 종이 한권을 준다. 세번째 純通을 맞으면 接外 儒生에게는 장학금을 接內의 儒生에게는 종이 1권과 10장을 주었다.

教育思想史的 側面에서 향교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그것의 文廟祭享의 機能 때문이다. 文廟는 儒學에 공이 있는 聖賢들의 神位를 모셔놓고 때에 따라 祭享하는 제도로써 國家의 中祀이다. 서울의 成均館과 지방의 鄕校에는 모두 文廟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全國의 선비들이 每 초하루 보름마다 朔望祭를 지내고 春秋仲中에는 釋尊大祭를 지냈다. 文廟에 配享된 우리나라의 儒賢은 18명으로서 성리학 이전의 학자는 薛聰과 崔致遠 두사람이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성리학적 분위기 속에서 학문을 연마한 학자들로써 道統

淵源을 따라서 文廟에 配享되어 있다. 道統이란 쉽게 말하여 學問과 思想의
정당한 秩序이자 系譜이다. 이렇게 文廟가 道統 일변도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성리학 자체가 밖으로의 異端排斥과 아울러 안으로의 道統確立을 學問
의 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교의 文廟祭享이란 성리학의 정당한 질서이자 계보인 道統의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서 陽明學의 排斥, 異說에 대한 斯文亂賊의 是非, 主
理主氣의 論爭, 湖洛論爭 등이 바로 그 질서와 계보확립을 둘러싸고 전개되
었던 대표적인 學問的 論爭들이다. 곧 文廟祭享에 참가한다는 사실은 그러
한 학문적 논쟁에 참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였으며 제주도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오히려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鄕校 出入이라는 것이 양반신분
의 特權的 意味까지 부여되고 있어서 文廟祭享이 더욱 중시되는 형편이었
다.

제주인들도 科擧라는 공식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양반으로 인정받는
중앙의 정책에 순응하였지만 실제 제주인들이 중앙관료직에 진출하는 경우
는 매우 적었다. 물론 제주인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科擧를 실시하기도 했지
만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여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칠 뿐 실제로 등용되어
제주도를 떠나 한양 또는 다른 지방에서 관료생활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
다. 따라서 科擧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科擧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鄕校를
중심으로 걸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鄕校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
권의 상징이었으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이들은 鄕職²⁶⁾을 독점하였다. 鄕職은

26) 座首, 別監, 風憲 등이 그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양반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職役이다. 어쩌면 그만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科擧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鄕校에의 職責과 鄕職을 중요시 여기고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4) 科擧政策

朝鮮朝 教育理念인 性理學은 원래 글하는 사람을 가르침(Lehre der Literaten)으로써 文藝的 教養人을 기르려는 現世的이며 合理主義的인 倫理를 바탕으로 하였다. 科擧政策은 그러한 文藝的 教養人의 特殊性和 存續力을 위해 구안된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인재양성 목적의 教育적 장치였지만 그것은 곧 官界進出이라는 社會移動(social mobility)의 통로이기도 하였다. 제주인의 官界 進出路는 文·武科 등의 科試와 지방행정예의 참여로 가능하였는데 科試는 제주도가 처한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 하였다. 설사 이를 극복하고 중앙에 간다 하더라도 財力不備에 따른 장기간의 晷류가 곤란함으로 科試를 통한 入仕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御使를 파견해 外方別試를 설행한다거나 全羅道 文科初試 1額을 제주에 할당²⁷⁾하거나 또는 小科初試(儒生陞補試)를 濟州官衙에

27) 外方別試는 非定期科試로서 文,武科만 있고 單試로 及落을 결정, 直赴殿試 자격을 주었는데 濟州는 仁祖1년에 設試되었다. 『仁祖實錄』卷3, 1年, 閏10月 戊子, 참조. 한편 定期試인 文科(大科) 初試1額은 濟州 경우 文官牧使(또는 判官)와 教授가 試取하였다. 『肅宗實錄』卷35, 27年, 6月 丙寅, 參照.

위임함으로써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제주인의 불이익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外方別試가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만 거행되고 陞補試는 文官 受令²⁸⁾이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한 관개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文科의 豫備라고 할 수 있는 司馬試 즉 生進初試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것은 世宗, 文宗朝였고 이후 中宗朝에 이르기까지 중지되었다가 仁祖朝에 다시 설치되었었다. 원래 大小科 初試는 觀察使 주재로 열리기 때문에 이에 응시할 제주인은 육지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험난한 교통이 큰 장애가 되어 初試 응시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제주도의 응시자는 初試에 한하여 제주도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마련되어 제주도에 生進初試를 설치한바 있으나 이는 世宗朝와 文宗朝에 잠시 시행되었을 뿐 시행상에 난점이 있었던지 곧 중지되어 제도로서 성립되지 못한채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仁祖 16年(1638)에 목사 沈演의 상계에 따라 陞補初試가 설치되었는데 해마다 2人을 試取하며 詩賦로 課試하여 등급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오직 文官 재임시에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²⁹⁾

원래 生進初試에서 『四書五經』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生員이라 하고 시

28) 陞補試는 小科初試에 해당하는 것으로 開城, 水原, 濟州에서 시행되었다. 濟州는 仁祖 17年에 실시되었고 考試官 3員이 매년 2명을 試取해 直赴會試토록 하였다. 후일 考試官, 試取生의 數는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는다. 『增補文獻備考』下, 卷188, 選舉考, 參照.

29) 金錫翼, 前揭書. 「(仁祖)十六年牧使沈演啓設陞補初試歲取二人試課以詩賦計書惟文官在任時爲然按世宗戊午設生進初試甲子停後辛未復設又仍停至是沈演又啓設儒生陞補」

부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進士라고 하는데 이들 합격자에게는 ‘白牌’를 주었으며 이들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士類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고 하급관료에 취직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과거가 家勢의 농락을 받게되면서부터는 생진을 ‘小成’이라하여 이에 만족하고 大科로 나아갈 것을 단념하는 풍이 생기게 되었고 지방의 應學者는 대부분 그 목표를 여기에 두는데 그치게 되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를 통한 사회이동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생진초시에 대한 집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御使들에 의한 外方別試와 같은 非定期科試는 주로 제주도에 饑饉이나 疫病 또는 災難이 있어 제주인들이 곤란을 당하였을 때나 혹은 逆謀事件이나 民亂으로 제주인의 不平과 疑懼心이 있을 때 특별히 조정에서 慰諭御使를 파견하여 振恤의 상황을 살피고 文武試才를 행함으로써 치루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제주인들에 대한 懷柔策의 일환이었다. 제주인의 不平과 疑懼心은 곧 전통적인 分離主義的 性向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懷柔策이 요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試取를 통한 懷柔는 일부 제주인들의 身分維持의 必要성과도 副應하는 면도 없지 않아서 朝廷의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하고도 효과있는 方策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제주인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無關한 일이었다.

(5) 圖書政策

鮮初 성리학적 교육사상의 流布에 있어서 국가교육적 활동 가운데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圖書政策이다. 도서의 확충과 보급은 한나라 교육의 성패와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균관 등의 도서관 시책에 대해

여 중앙정부가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베풀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설 鄕校에는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책을 찍어 보내는 등 지방 교육기관에 대하여도 校生의 勉學을 위한 서적의 頒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원래 조선조의 도서 인쇄는 중앙의 校書館(典校署)과 지방 監營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도서는 중앙관서에서 상례적으로 반포되는 경우와 지방관의 요청에 의하여 特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鮮初에는 그 수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탓으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中國 내왕의 使臣으로 하여금 구입 배부할 것을 승탁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 서적이 下賜된 것은 世宗 17年(1435) 9月の 기록이 처음이다. 이 기록에 의하라면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經』, 『禮記』, 『易經』, 『春秋』, 『性理大全』이 각각 2件, 그리고 『小學』 10件이 下賜된다.³⁰⁾ 새로운 經學으로서의 성리학이 理學으로 이해되고, 理學의 개념이 새로이 정립되는 한편 『四書』, 『五經』, 『性理大全』이 理學의 기본 경전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던 시기가 世宗朝라는 점에서 世宗 17年の 書籍下賜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世宗은 崇文政策을 내세우고 많은 書冊을 印行頒賜하여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英邁한 군주였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書籍頒賜의 기록도 특히 世宗年間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世宗朝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自己化하려는 측면과 동시에 성리학을 널리 보급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던 시기였다. 이러한 성리학의 보급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에도 『四書五經』 및 『性理大典』이 하사되었던 것이다.

30) 『世宗實錄』 卷 3, 17年 9月 己丑 「賜大學中庸論語孟子詩書禮記易春秋性理大全各二件小學十件于濟州鄕校」

그런데 『四書五經』이나 『性理大典』은 성리학적 禮制의 정비과정에서 學的 根據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었던 것이며 성리학의 실천윤리로서는 『小學』이 새로운 德目으로서 보다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鮮初의 圖書政策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책으로는 아무래도 『小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地方教育에서 『小學』이야말로 성리학 이해의 기초교재로서 儒學教育의 차례를 세우는(立敎之序) 必讀書였기 때문이다. 원래 『小學』은 朱子가 三代의 教育理想을 실현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經史子集의 諸經典에서 抽出選擇한 것이며 ‘黷掃，應對，進退之節’을 위시하여 ‘愛親，敬長，忠君，隆師，親友之道’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편집하였기 때문에 유교적 이상실현에 가장 적합한 教科目이었다. 사대부들의 기본 교과서인 『四書』와 『五經』은 모두 一書一經으로 어느 일면만을 취급한데 반해 『小學』은 諸經典에서 立敎，明倫，敬身의 3대 綱領에 적합한 내용을 선집한 것이기 때문에 『四書』와 『五經』을 유교의 강령이라 한다면 『小學』은 이 강령을 실천하는 施行細目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 『小學』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世宗朝부터이며 世宗의 小學教育 獎勵로 제주도에도 『小學』 10件이 하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小學教育이 적극화 되었던 것은 成宗朝였다. 成宗의 小學教育 獎勵策은 중앙에 한하지 않고 全國의 諸道諸邑에 까지 미쳐 모든 學徒들로 하여금 반드시 『小學』을 강독케 하였는데 특히 成宗은 綱常을 밝히고 敎化를 진작하여 유교적인 사회로 ‘移風易俗’하기 위해서는 『小學』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여 成宗 24年(1493) 9月에는 ‘제주도에는 서적이 거의 없다’는 柳子光의 上啓에 의하여 濟州判官 金益謙에게 서

책들을 보내면서 제주목사 李從允에게 교육장려를 위한 장문의 간곡한 下敎를 내린다.

「제주목사 이종운에게 말하기를 …本州와 旌義, 大靜 등 三邑은 멀리 海中에 있어서 학문에 힘 쓰는 이가 거의 적은 것은 오직 혼계하여 인도하는 방도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書冊 역시 얻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 지금 四書, 毛詩, 小學을 각각 3건씩 보내니 너는 김익검과 삼읍에 교수, 혼도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권장하고 인재를 양육하라 하였다」³¹⁾

그러나 國初 官學에 의해 주도되었던 소학장려책은 문교정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분히 형식적으로 관학기관에 의해 타율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결국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고 성리학의 실천윤리틀 기반으로 하는 『小學』은 오히려 士林派에 의해 주도되었다. 『小學』과 그 교육의 진흥은 鮮初 士大夫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으나 사림파의 관심이 더욱 각별하였던 것은 그 내용이 성리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의 실현과 깊은 연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성리학과 그에 바탕을 둔 새로운 통치질서의 수립을 위해서는 그 목표에의 도달을 위한 실천적 행위가

31) 『成宗實錄』卷282, 24年 9月, 己亥條. 「下書濟州牧使李從允曰…本州 與旌義大靜等三邑 邈處海中 務學者蓋寡 非唯訓迪之無方 書冊亦不易得…今付四書毛詩小學各三件以送 爾其與益諫及三邑教授訓導 協心獎勸 養育人才」

전제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향상되어가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보다 강하게 지닌 사림파의 지배시대에 가까와지면서 『小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당연한 역사적 추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中宗 12年(1517) 12月の 「본도는 외딴 섬이라 비록 교수와 훈도를 둔다 하더라도 누가 성의를 다하여 가르치겠는가. 지금 서책을 가지고가서 가르치는 것은 나의 마음과도 일치되니 가서 진력하라」³²⁾는 傳敎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趙光祖 등의 사림파에 의해 진행된 中宗朝 개혁정치가 가장 무르익었을 무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小學』의 實踐倫理가 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金宗直이나 趙光祖 一派로서 제주도 謫居의 刑을 받은 流配人들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하나는 단순히 유배인들의 성향이 『小學』을 중시했던 사림파들이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이 『小學』으로 필박을 받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趙光祖 등 사림파가 중시하던 初學者의 필독서인 『小學』이 己卯士禍를 계기로 한때 無用之書 또는 生禍之書로 낙인이 찍혀 『小學』을 읽다가 들키면 趙光祖의 一派로 지목되고 禍를 자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小學』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한 世人의 호기심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유배인 洪裕孫, 金淨, 李世蕃 등의 士林들이 주목되는 것이다. 洪裕孫은 戊

32) 『中宗實錄』 15卷, 12年 12月 戊寅. 「本州絶島也雖置教授訓導孰肯致意而敎之乎今欲資書冊而敎之允副予心往哉」

午士禍 때문에, 金淨과 李世蕃은 각기 己卯士禍를 빌미로 유배되는데 특히 中宗朝 개혁정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金淨은 「小學大學 皆日用常行之事 三代之時 皆以此進德修業 後世則好之者 善寡其笑宜也」³³⁾라 上啓하여 『小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다.

3. 流配人の教學活動

(1) 流配教學活動의 意味

조선조 선비는 政治家이자 教育者였다. 원래 性理學은 禮敎의 側面과 政敎의 側面으로 나누어지며 禮敎가 성리학의 倫理敎育的인 면으로서 敎育의 길(道)이라면 政敎는 政治敎育的인 면으로서 政治의 길(道)이라고 할 수 있는데 兩者는 불가분의 관계(logical connection)를 이룬다고 할만큼 表裏的이다. 특히 그가 유배인이었을 때는 정치의 길이 단절된 상태에서 禮敎의 心性修養主義에 입각한 教育者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었다. 유배지에서 유배인들이 자기 존재를 確認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教學活動 뿐이었다. 즉 教學活動은 유배인들이 유배지에서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여러면에서 시사적이다. 우선 그것은 전적으로 제 주인과 유배인 공동의 主體的인 參與 아래 비로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敎育의 構造는 相互浸透的이다. 결코 어느 한편이라도 참여를 거부하게 될 때 달리 선택할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相互制

33) 『中宗實錄』卷36, 14年 7月, 甲午條.

限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에서 유배인들의 黨色이나 學派 같은 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고, 제주인들의 階級的 位相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相互開放的이다. 특히 이러한 相互開放性은 어느 일면에서는 조선조 階級差別教育과 黨派教育의 극복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교학활동은 단순히 師弟關係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주변의 제주인들과 社會的 關係를 의미하는 相互結合의 성질을 띠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육지부에서는 주로 形式教育의 주도아래 교육이 전개되는 양상이었던데 비해 제주도는 오히려 流配人의 教學活動 같은 非形式的 教育(informal education)이 永續的으로 이어져 제주 교육의 한 樣相으로 정착되었으며 이것은 朝鮮前期 以後 계속된 교육에 대한 제주인의 客體的 限定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構造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같은 교학활동의 여러 성질 속에는 流配를 가능케 했던 當代 社會體制의 矛盾이나 혹은 流配地의 여러 矛盾이 반영되어 있고 教學活動은 그러한 客觀的인 여러 矛盾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克服하고자 한다는 意味를 강력히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조 유배의 원인은 크게 士禍와 黨爭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朝鮮前期에는 士禍流人들에 의한 來島와 教學活動이 전개되었다. 특히 戊午士禍와 己卯士禍에 관련된 流人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2) 戊午士禍의 流人

조선조 창업초기에 있어서는 지배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이념적 정비가 일찍부터 요청되어 성리학이 도입되는데 성리학의 도입, 발달

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一群의 학자집단을 士林派라고 한다. 이들 사림파들은 性理學과 朱子家禮의 보급을 통해 현실적인 여러가지 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그를 통해 自派勢力의 확립을 모색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金宗直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결속된 어느정도의 組織性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렬한 同類意識도 지니고 있었고, 상호간의 지속적인 접촉도 유지하였으며 집단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規約는 없어도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던 學者集團이다.

鮮初 사림파의 學統은 길재 → 김숙자 → 김종직으로 연결되는데 후진 교육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김종직부터였다. 그는 世祖 5年(1459) 2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래 成宗 23年(1492) 62세로 죽을 때까지 많은 門人들을 길러내었다. 김종직의 교육활동은 京職에 종사하던 世祖 1年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본격화한 것은 成宗 1年(1470) 부터였다.³⁴⁾ 洪裕孫의 경우는 服喪 廬幕時에 김종직에게 師事한 제자³⁵⁾로서 戊午士禍로 인해 8년간 유배된다. 사림파의 영수로 추앙받던 김종직의 학문적 성향은 詞章과 經學의 불가본성을 강조함으로써 당대의 과도기적 양면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양면성은 그의 門人代에 와서는 두 갈래로 分岐, 繼承된다. 즉 그가 비록 “其爲學者各因其材而設教”³⁶⁾의 방식에 따라 교육하였다고는 하나 김굉필에게는 小學

34) 『佔畢齋文集』의 年譜에서는 세조 10년 그가 34의 나이로 在京從仕하고 있을 때 “教誨不倦 學徒坌集 填溢街巷” 이었다고 하였으나 실은 성종 1년 11월 咸陽군수에 제수된 이래 12년간 계속된 外職生活期間이 집중적인 교육기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佔畢齋詩集』 卷15, 詩, 「贈楊秀才凌·洪貢生裕孫」條, 『續東文選』 3, 同條. 「浚與弟漑 從裕孫 自京洛徒步千里來學 及其還也 見其依依 似不忍別 不能忘言 書五詩以贈云 裕孫南陽人也」

36) 『佔畢齋文集』 附錄 1, 行錄.

을, 홍유손에게는 杜詩를, 김일손에게는 漢文을 가르친 예에서 보듯이 그 문인들은 詞章을 추구하는 부류와 經學 즉 성리학을 탐구하는 부류로 갈리게 되어³⁷⁾ 결국 홍유손의 경우는 詞章學에 주력하게 된다.

그런데 詞章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의 학문이나 교육활동을 통한 문인 배출에 있어서는 경학에 관심가진 인물들과는 비교할 바가 못될 만큼 보잘 것 없었다. 이러한 사장학의 특징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홍유손 역시 이렇다할 문인을 두지 못했으며 이것은 유배지 제주도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 자신을 竹林七賢에 비유했듯이 方外人으로서 그의 超世俗的인 태도와 거침없는 詩文은 제주유생들에게 敬歎의 的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戊午士禍(1498)가 일어남으로써 스승의 죄 때문에 무고한 제자도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이 사건을 계기로 사제의 관계는 학문의 전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生死의 關係로 심화되었는데³⁸⁾ 이로써 홍유손의 적거는 師弟의 人倫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제주 유생들에게 웅변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홍유손은 스승 김종직의 양면적 학문태도로 인한 現實自足的인 경향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며 스승의 現實安住와 ‘尸位竊祿’을 諫할 만큼³⁹⁾

37) 同上條.

38) 現存하는 先儒들의 淵源錄을 보면 대개 金宗直으로 부터 師弟關係의 淵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金宗直과 함께 활동한 徐居正, 成俔, 魚世謙 등 쟁쟁한 인물들의 師友關係는 기록이 없고 金宗直, 金宏弼, 鄭汝昌 이 세 사람이 成宗 ~ 燕山에 걸친 師友關係의 全部를 차지하고 있다.

39) 『秋江集』卷7, 雜著, 師友名行錄. 「辛丑年 南陽守蔡申甫 以餘慶爲能文 放其役 卽步歸嶺南 謁佔畢齋 受杜詩 先生曰 此子已見顔子所樂處 學者皆宗之人 頭流山肄業 到京諫先生 不建白時事 何空取人爵祿爲也 … 先生大惡之 自是每稱餘慶謫詐」

현실 대응의식이나 자세가 強硬派的 政治性向을 띠고 있었다. 그같은 성향은 본명 유배라는 제도에 의해 억압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反動的 意識이 그가 접한 제주인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의식은 제주인들의 고유한 分離主義的 性向과 묘한 調和를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조화는 後代로 계승이 되면서 제주인들의 運動的 力量을 보충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 점은 朝鮮末期 제주 교육사상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3) 己卯士禍의 流人

가. 金淨의 謫死

金宗直을 통해 經學에 주력하였던 金宏弼은 戊午士禍로 평안도 熙州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교육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때 趙光祖를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김굉필의 교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학통을 이어 받아 그것을 조선조 교육사상의 정통으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김굉필 그 자신과 스승 김종직의 文廟從祀를 가능케 한 趙光祖와의 사이에 학문적 연결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中宗反正 後 조광조의 官界進出을 통해 中宗 12年(1517) 부터 급속히 성장한 사림파는 臺諫과 弘文館을 장악하고 언론활동을 통하여 政曹의 보수 세력을 견제하면서 言官 優位の 지배체제를 굳히하고자 했으며 특히 賢良科의 실시를 통해 개혁정치세력들을 규합, 勳舊派가 주축을 이루고 있던 靖國功臣의 僞勳削除를 추진함으로써 그 위세를 떨치게 된다. 그러나 조광조를 필두로 한 사림파의 개혁정치에 불만이 컸던 훈구파들이 逆攻을 취함에 따라

사림파들이 대거 축출당하는데 이것이 곧 己卯士禍(1519)이다. 조광조의 일파로서 학문과 정치의 합일을 모색하였던 ‘至治’ 지향의 개혁세력 선두인 己卯八賢의 한 사람으로 과격파 소장층이었던 金淨은 기묘사화로 인해 유배오게 되며 1년여의 적소생활을 끝으로 絞死自盡한다.

그의 학문은 天人合一 지향의 心性說을 바탕으로 이미 自得과 獨得處가 열려있었으나 1년여의 유배생활을 끝으로 36세라는 이른 나이에 賜死된다. 김정과 함께 中宗朝 사림파의 핵심세력이었던 己卯八人⁴⁰⁾은 공히 연령상으로는 소장층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이고도 과격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戊午流人 홍유손의 정치성향과도 유사하며 제주 교육사상사의 특성을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된다. 짧은 유배기간 중에 그는 士林의 經學的 傳統에 따라 教學活動에 진력하여 金良弼과 文世傑 등의 제주인과 學的關係를 맺는다. 비록 그들의 관계라는 것이 성리학의 전수를 목표로 이루어진 書齋教育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김정이 제주도의 巫堂과 僧徒帶妻 등의 폐단에 대해 통박한 것을 보면 朱子家禮나 鄉約같은 풍습 순화가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祀鬼를 몹시 숭배하여 무당이 매우 많아서 재앙과 불행한 일이 생기면 소리질러 비웃으며 두렵게 위협하면서 재

40) 中宗朝 사림파의 핵심인물들로 파악되고 있는 己卯八人들의 士禍 당시 연령을 보면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걸쳐 본포되어 있었다. 즉 趙光祖:38세, 金靜:36세, 金湜:37세, 金絅:32세, 尹自任:32세, 朴世璵:32세, 奇遵:28세, 朴薰:35세.

물을 쉽게 갈취하고 … 이 지방의 중은 다 처를 길러 마
을 안에 살고 있어 완악함이 목석과 같고 만악 巫鬼같은
자는 사람을 겁내 위협하니 떡과 술로써 또한 利에만 쫓
아 감이니라」⁴¹⁾

성리학적 질서의 보급에 있어서 風教德化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鄉約인바 무릇 惡習을 타파하고 바른 風俗을 일으켜 온 백성 전체의 학문과 생활을 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鄉約運動을 주도했던 장본인 金淨으로서 의견 개진이 당연스러웠다. 하여 그는 제주도의 실정을 보고 「만일 학문으로서 가르쳐 그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길이 풍속을 고칠 기약이 없을 것이다」⁴²⁾ 라고 얘기하였다. 이는 곧 風化의 教를 통한 教育의 社會化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金淨의 指摘을 토대로 할 때 當代의 또 다른 제주 교육의 現實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즉 朝鮮前期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재래의 巫俗信仰이 번창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巫俗의 教育文化가 儒敎教育 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무속이 강세를 보이고 일부 남성들을 상대로 유교교육이 전개되는 등 儒敎式 體系와 巫俗式 體系가 竝存하고 있었지만 그 둘은 서로 충돌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즉 외형적으로는 教育의 二重文化 構造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쌍방이 결합하여 하나의 독특한 교육체계를 이루고 있는 셈으로 오히려 相互補完的인 성격

41) 金淨, 前揭書. 「酷崇祠鬼 男巫甚多 人災禍 取財如土…而土之僧徒 皆畜妻村居 頑如木石 若如巫鬼者 嚇人餅酒 亦利之歸耳」

42) 上揭書 「若不教以學文以開其心則永無移風之期」

을 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正統 性理學者인 金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갈등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對峙構造의 해결을 위해 儒學 敎育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李世蕃의 入島

己卯士禍로 제주도에 유배를 온 사람으로는 김정 외에 이세번이 있다. 그는 조광조나 김정 등 己卯諸賢의 무죄함을 伸救抗訴하다가 中宗 15年 (1520)부터 7년간 유배되었으며 종내 이곳에서 古阜李氏 濟州入島祖로서 謫死하였다. 원래 그는 중종조 사림파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賢良科와 관계되어 조광조 등의 사림파들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헌량과는 종래의 科擧制가 지닌 모순 내지 폐단을 뜯어 고쳐 새로운 取人의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외에 훈구세력이 진출의 통로로서 이용하여 온 전통적 科擧와는 다른, 새로운 방도로 自派의 진출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설치된 제도였다. 그런데 헌량과는 薦擧科이므로 그 응시 자격은 천거를 받은 자에 한하였다. 따라서 헌량과의 실시는 헌량의 천거가 선행되어야 했다. 하여 中宗 14年(1519) 4月 13日(丙子)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량과가 실시되었는데 이 때에 120인이 천거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사람이 이세번이다. 120인 가운데 급제한 인물로는 28인이었지만 이세번은 급제는 못했다.⁴³⁾

120인은 京鄕 각지로부터 천거되어 온 이른바 ‘才行可用之人’으로서 이

43) 『己卯諸賢傳』, 『己卯名賢錄』 및 「己卯錄保有」, 「己卯錄續集」 참조.

들의 천거는 居京人의 경우에는 弘文館, 臺諫, 六卿 등에 의해 지방인의 경우는 留鄕所를 거쳐 관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모든 被薦人에 대해서는 천거명목 즉 薦目이 제시되어야 했는데 그 평가요목(評語)은 대개 性品, 器局, 才能, 學識, 行實 또는 行跡, 志操, 生活態度 또는 現實對應意識 등 7개 항목으로 구분되어졌다.⁴⁴⁾ 그런데 천거된 120인 거의 모두가 기호지방 내지 영남지방과 관련된 인물들이었고 또 어떤 형태로든 조광조 一派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고 보면 이 천목은 결국 사림파가 추구하고 있던 학문 내지 학문하는 자세, 가치관, 행동유형,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결국 천거된 120인은 거의가 사림파의 성분을 지닌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세번 역시 예외가 아닌 것이다. 그에 대한 「都事李世蕃 有學問操守」라는 기록이 이를 반증한다.

그가 유배 중에 병에 걸리게 되자 부인과 두아들이 간호를 위하여 적소에서 同居하게 되고, 謫死 후에는 식구들이 아예 제주도에 定住하므로써 결국 이세번은 古阜李氏 濟州入島祖가 된다. 이러한 이세번과 司馬試 進士科에 합격하여 당시 太學儒生으로 수학중이던 아들 李忠賢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家學的 傳統은 제주 교육사상사의 면모를 다양하게 하는 動因으로 작용한다. 15세기 사림파의 학문적 傳受關係와 師友關係를 살펴 보면 바로 家庭的인 學問의 傳統이 기초가 되었고 거기에서 血緣的인 관계와 地緣的인 連帶가 서로 얹혀 있었다. 제주도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의 수용범위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런 입장에서 李忠賢의 定住 같은 경우는

44) 『燃藜室記述』卷8, 賢良科罷復條

제주도 學風一新에 중요 變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濟州人과 濟州教育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육이 있기 마련이지만 조선조에 들어 제주도는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 교육구조에 공식적으로 入門하게 된다. 이로써 제주도에도 성리학적 教義를 熟知한 學人들이 배출되는데 鮮初에는 選上政策과 特別試取 등이 그 통로 구실을 하게 된다. 아직 이들의 학문적 역량은 미숙한 차원으로 中央의 교육이념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수준의 敎化的 次元에 머물러 있었지만 島內 學人들의 미숙한 學問的 力量은 유배인들과의 師友講習을 통해 振作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을 무릅썼던 그들의 教育的 位相은 가치로운 것이며 특히 濟州教育思想史의 脈을 형성하는 “精神”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 高得宗의 選上

鮮初의 選上政策에 의하여 教育을 받은 대표적인 濟州人은 高得宗(1388~1452)이다. 그는 제주도 전통 土豪勢力의 출신으로 10살 때 이미 한양에서 공부를 하였고 太宗 13年(1413)에는 그의 耽羅星主 가문을 威勢로 하여 다른 세력출신의 자제 文邦貴, 梁深과 함께 孝子로 선상된다.⁴⁵ 親喪을 지냄에 있어 제주도에선 처음으로 三年喪을 행했다는 것이 그 표면적인 이

45) 『太宗實錄』 卷1, 13年 6月 戊午 「濟州都按撫使尹臨啓孝子節婦可褒賞者一前直長文邦貴 提控梁深 生員高得宗 等丁親喪廬墓備始行三年之制一州感慕

유었으나 그 이면에는 耽羅의 전통세력 대표가 조선정부의 喪制인 3年喪을 수용했던 일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서 결국 조선정부의 정책 동조에 대한 褒賞의 意味를 띠고 있었다.

고득중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배려한 特別試取로 太宗 14年(1414) 文科에 급제하여 이후 제주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堂上官에까지 승진하기에 이른다.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그는 9번에 걸쳐 告發되는 특이한 경력을 갖는데 그러나 특이한 것은 고발된 回數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고발되어지면서도 隱退하지 않은 채 계속 政界에 머물렀다는 점으로 이는 조선정부의 對제주도 정책의 懷柔的 屬性을 보여주는 한 실례이다. 또한 그의 관직 제임 초기 활동의 거의 전부가 제주도와 관계가 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제주도 출신의 관료라기 보다는 오히려 조선정부에 억지로 편입된 제주도 대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관직 제임기간 동안 3차례⁴⁶⁾ 제주내왕을 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의 興學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입장 천명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것은 곧 제주도에 대한 조선조 국가교학질서의 직접적 보급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교육에 관한한 그는 제주도의 상태를 學校가 없어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⁴⁷⁾ 판단하고 자신의 제주도에 대한 임무로 學問을 권장하고 教育을 진흥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스승의 중요성을 대폭 강조하게 된다. 스승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개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

46) 太宗 18年(1418), 世宗 元年(1419), 世宗 6年(1424)이 그것이다.

47) 高得宗, 『救弊俗興仁政狀』, 「學校之政不備 絃誦之聲未達於閭巷 禮義之節不明 孝悌之義未漸於賤隸」.

득종은 일단 “기르는 教育” 대신에 “만드는 教育”을 긍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드는 교육의 특징은 기르는 교육과 달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시 된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철저하게 결정되는 조건반사적이고 상호단선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다. 고득종이 스승과 함께 학교라는 환경을 강조하고 체벌을 중요시 했음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스승(師)에 대한 설명을 위해 유학에 있어 堯舜에서 孔孟으로 전해 내려오던 학문의 도통을 주장하여 宋代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唐宋八大家 중의 첫째 인물로 손꼽히는 韓愈(768~824)의 『師說』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다.

「스승이란 우리에게 성인의 도를 전하여 주고 우리에게 학업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모든 미혹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터 알과 행동을 아는 이가 없으니 어찌 미혹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미 미혹함이 있으면 스승이라도 능히 미혹함을 풀어주기 어려우니 배움에 반드시 스승을 세운다고 어찌 모든 미혹함이 풀려질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우는 어린이들과 목석이나 다름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이 만일에 스승의 가르침이 없다면 타고난 어진 마음이 利欲에 따라 녹아 떨어지고 참된 말이 음란한 말에 따라 빼앗기어 방자하고 사특한 마음으로 해서 어떠한 악독한

일이라도 못하는 일이 없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꼭 스승을
두어 그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야 한다. 능히 타이르고 가르
치면 그들의 이욕은 어진 마음으로 고쳐지고 그들의 음탄
한 말은 참된 말로 바뀌어질 것이다」⁴⁸⁾

이는 제주도에서 學校의 不在로 인한 스승의 역할 퇴락을 개탄하고 스
승의 필요를 역설한 글로써 성리학적 敎義가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웅변해주
는 맥락이다. 이 글에서 보듯 고득종에게 있어 스승이란 Kant류의 嚴肅主義
者(Rigorist)적인 본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다.

스승에 대한 강조는 교육의 형식논리인 師弟關係에 대한 강조이며 곧
조선조 교육체제이념인 성리학 그 자체에 대한 강변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배우는 사람의 학적 임무는 스승으로부터 道를 전해 받아서 제자
에게 道를 전해주는 이른바 繼往開來의 태도였기 때문이다.⁴⁹⁾ 특히 조선조의
刑政에 있어서 高麗律과 다른 것으로 제자로서 스승을 살해하는 下剋上의
범행을 十惡에 넣어 극형에 처했음은 사제관계나 성리학에 대한 강조가 개
인적인 차원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스승에 대한 강조는 남아
존 父와 가르쳐준 師와 먹여주는 君을 하나같이 섬기고 그 은혜를 죽음으로
써 갚아야 했으며 그리고 父가 죽으면 致喪三年, 君이 죽으면 方喪三年, 師

48) 高得宗, 『條例十箇條』. 「師者所以傳道受業解惑者也 人之生也 非生知安行者 不能無惑 既有惑則 非師不能解惑故 學必立師 然豈特解惑而已 孩提之童愚昧之民 苟非師教 仁心鑠於利欲忠言奪於滯辭 放僻邪慝無所不至故 必喻之 教之 苟能喻之教之 利欲轉爲仁心 滯辭化爲忠言」

49) 栗谷은 『聖學輯要』에서 「必使斯道大明而大行 以接道統之傳 萬世幸甚」이
라고 하여 道統傳受를 강조하였다.

가 죽으면 心喪三年이라 하여 모두 삼년상을 지냄으로써 君과 師와 父를 삼의 기본전제로 받아들였던 성리학의 소위 君師父一體의 논리에 대한 강변이기도 하다.⁵⁰⁾

그러한 스승의 교학활동의 場을 고득종은 家塾과 黨庠, 州序, 太學의 순으로 위계화 시켰는데 이것은 곧 書堂, 鄉校, 또는 四學 그리고 成均館의 순으로 대별되는 조선조의 기본학제이며 인간을 만드는 교육적 환경이다. 결국 이는 학교가 인간들의 '禮義의 宗'이요 '元氣의 寓'라 하여 인간과 학교와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의 風度를 振作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는 곳이 京, 外의 學校 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學校觀의 연장이다. 이를 위해 學習이란 프로그램化 되고 결국 성리학적 정치이데올로기化 되는 과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國學, 州學校, 黨學校, 家塾 등은 그에 따른 일정한 과목이 있다. 塾師는 소학을 가르치고 초학자를 맡아 가르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庠學校에 들어가게 한다. 庠師는 사서를 가르치고 그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序學校에 진학하도록 한다. 序師는 오경과 가숙 및 상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여 그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국학에 추천한다. 學師는 앞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함과 아울러 중국

50) 『小學』內編, 明倫, 通論. 「事親 有隱而無犯 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致喪三年 事君 有犯無隱 左右就養有方 服勤至死方喪三年 事師 無犯無隱 左右就養方無 服勤至死心喪三年」

송나라시대 명현들의 문집과 각종 전기, 역사서에 의해 당
학교 및 주학교에서 배운 각과목으로 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위해 교수하고 그 중
성적이 우수하며 古今事理를 통달하고 남보다 뛰어난 勇力
과 세상을 건질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조정에 추천한다」⁵¹⁾

이 가운데서도 고득종은 특히 家塾의 교육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7세 부
터 꼭 家塾에 입학하여 『小學』을 읽고 인륜의 도리를 배울 것을 역설했다.⁵²⁾
家塾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몇몇의 개인이나 향촌이 조합하여 훈장을 두
고 교육하는 이른바 組合家塾을 적극 권장⁵³⁾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夜學을
家塾 옆에 설치하여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文盲者 教育을 권장⁵⁴⁾한 점은 궁
극적으로 문자해득능력 습득을 위한 언어실천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동일한
성격의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교육들은 이미 正當化 되어 있는 성리
학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도적 동참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부분은 고득종의 교육방법으로서 賞罰에
관한 것이다. 특히 그는 벌의 교육적 효과를 크게 신뢰하였는데 따라서 體

51) 高得宗, 同上條, 「太學州序黨庠家塾 各有定課 塾師教之以小學 掌初 學 有
優者進之庠 庠師教之以四書 有優者進之序 序師教之以五經 複習塾庠 之素習
者 有優者進之學 學師複習庠序之素習者 兼看宋朝諸賢書及諸史 通古 今達事
理 足以有兼人之勇濟世之才 進之于朝 惟欽哉欽哉」

52) 同上條, 「子之生也 雖士庶下賤輩 甫七歲 必入家塾」

53) 同上條, 「子年至入塾而 或父母俱亡 或無以自供則 共里之人相助不足 務使
入塾」

54) 同上條, 「別設夜學於家塾之傍 舉二十以上四十以下未嘗就傳者以教之」

罰計劃이 단계적이고 매우 치밀하다. 強化(reinforcement)를 통해 행동변화를 유도하려는 만드는 행위로서의 教育觀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이다.

「상은 종이로 하고 벌은 때로 한다.가숙에서의 벌은 허물을 고칠 때 까지를 한도로 하고 당학교에서의 벌은 10회이상이면 다시 가숙에 주학교에서의 벌은 6회이상이면 당학교에,국학에서의 벌은 3회 이상이면 주학교로 내리워 각각 再修하게 한다. 각종 학교의 벌은 받는 법은 一犯은 타이르고 再犯은 꾸짖고 三犯은 공개하고 四犯은 벌을 준다. 벌은 주는 한도는 一罰은 3번내지 10번,再罰은 6번내지 15번,三罰은 9번내지 20번까지 때를 때린다」⁵⁵⁾

치밀한 체벌계획이 의도하는 바는 이른바 “적절하고도 타당한 체벌”을 행사함으로써 교사의 엄격성을 지키기 위함인데 그 방법의 유의사항으로 체벌의 도구가 일정한 것으로 정해져서 매질의 부위도 제한되고,매질의 횡수도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고득종에 있어서 체벌의 도구는 회초리로 한정되었으며 매질의 부위 또한 종아리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 무엇보다 매질의 횡수와 방법을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벌이란 아동으로 하여금 배움에 대한 충동을

55) 同上條. 「賞用紙幣 罰用鞭刑 塾刑期於改過 庠刑過十則退于塾 序刑過六則退于庠 學刑過三則退于序 其用刑之法一犯則喻之 再犯則責之三犯則揭之 四犯則刑之 初刑自三度至十度 再刑自六度至十五度 三刑自九度至二十度」

촉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스승의 역할이란 궁극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을 때 벌을 주는 什長의 역할 이상으로 결정적이고도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초리 매질에 대한 유교적 전통은 ‘夏楚二物 教其威也’나 ‘扑作教刑’이라는 말이 있듯이 君師父一體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적극 권장되었다. 夏, 楚는 막대기와 회초리를 뜻하며扑은 교육용 형틀을 말하는 것으로 교사의 엄격한 수단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고득종의 체벌계획 역시 그러한 성리학적 전통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제주인들에게 이러한 체벌계획을 소개함은 결국 그 체벌의 근거가 되는 성리학적 이념을 소개하는 것이다.

(2) 金良弼의 獻身

조선전기에 제주인으로서는 드물게 성리학 및 그 실천윤리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도내의 후진 교육에 헌신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는 金良弼이 있었다. 그는 유배인 김정에게 師事하여 生生哲學과 같은 正統性理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데 김정은 제주도에 김양필 외에는 글 아는 자가 매우 적다고⁵⁶⁾ 하며 그를 아꼈다. 그의 교육적 열의는 다음 詩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錐憂斯學向頽傾	누가 사학이 퇴경하여 짐을 우려하였던고
致使黉堂得再成	이르러 학당으로 하여금 재생함을 얻게 하였도다.
蜀郡幸沾文字化	촉군은 다행히 문화의 혜택을 입었고
袁州欣見祖君營	원주는 기뻐 조군의 경영함을 보도다.

56) 金淨, 前揭書「土人生員金良弼外 識文者絶少」

一源道理堪憑計 한 근원이 도리에 기대어 탐구함을 능히하고
 萬古尋倫可繼明 만고의 인륜을 밝혀 이을 수 있도다.
 莫謂海邦偏且遠 바다의 나라도 편벽하고 멀다 이르지마오.
 定應聲譽達天庭 정히 응당 명예가 천정에 달할 것이로다.⁵⁷⁾

이 시는 김양필이 목사 심언원을 도와 丙申年(1537)에 제주향교를 중수하게 되어 지은 것으로 당대 鄕校의 頽廢와 敎化의 失墜에 대한 쇄신 노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즉 學校의 興廢가 곧 나라의 存立과 民生死活에 큰 작용을 한다는 주장이다.

57) 李元鎮, 前揭書. 濟州牧, 學校條.

第3節 朝鮮中期 教育思想史

-教育展開의 孤立封鎖期-

1. 中期의 主題的 特徵

朝鮮中期는 明宗朝(1546)에서 肅宗朝(1720)에 걸친 기간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黨爭으로 官僚 상호간의 權力暗闘가 심대하였으며 思想的으로는 성리학이 發展, 深化되던 때였다. 濟州島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중기는 出陸抑制라는 제도적인 禁壓政策이 강요됨으로써 對外的인 教育進出의 길이 거의 봉쇄된 상황에서 교육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出陸抑制政策은 근본적으로 抑壓의 裝置이기 때문에 그 政策이 시행되는 동안 제주 교육은 자연 萎縮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嶺南學派나 畿湖學派 등 教育勢力의 존재를 통해 교육내용이 가장 爛熟하게 發興되던 朝鮮中期의 전반적인 교육추세와 비교할 때 매우 相反的인 傾向으로서 지극히 고립적이면서 동시에 예외적인 흐름이었다. 결국 조선전기 제주 교육의 객체적 입장은 조선중기에 들어 고립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黨爭으로 인해 빈번하여진 유배인과 제주인들과의 教育關係는 어느정도 그러한 教育的 萎縮을 報償해 줄 수 있었는데 제주도 橘林書院의 建立과 五賢配享은 報償의 象徵的 意味를 띠고 있었다. 즉 出陸抑制政策 때문에 對外的인 길은 막혀있었지만 교육의 孤立性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對內的으로는 教育的 活力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나름의 鄉黨文化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教育的 活力의 對內的 場(field)이었던 제주도 橘林

書院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黨爭流人과 濟州人과의 師友講習의 教育關係를 조망해 본다.

2. 書院設立과 儒賢配享

(1) 書院의 設立과 橘林書院

書院의 발생은 朝鮮朝 前期의 教學理念이 안고 있던 矛盾을 어떤 형태로나마 극복하려는 교육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조선전기의 官學的 教學體系가 안고 있던 모순에는 官學의 衰退라는 教學體系의 崩壞와 士禍로 표상되는 政治道義의 紊亂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士禍 이후 서원은 교학진흥의 거부할 수 없는 心要策으로 부각되는데 특히 明宗은 興學을 위해 허물어져 가는 官學에 기대하기보다 서원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서원은 그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¹⁾ 그러나 결정적으로 서원제도가 정착되고 성립된 것은 退溪의 書院普及運動에 의해서이며, 그는 서원을 士林의 講學과 藏修를 위한 교육기구로 성격지웠다.²⁾

이러한 書院의 전개과정은 크게 3 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6세기 중엽부터를 斯文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했던 講學優位の 第 1 期라

1) 예컨대 白雲洞書院에 대한 賜額 조치가 그것이다: 『明宗實錄』卷9, 5年 2月, 丙午條 참조.

2) 李滉 『退溪全書』卷42, 記, 迎鳳書院記. 「雖然上國之於書院 必擇儒先之知道者爲之山長主盟以倡率 故道術不分 而學者知所趨矣 若吾東方 則院教新興 而此典未講 或入阮之士爲學之方 不幸而不出於古人爲己之學 而惟科目 譚競之事 是尙是務 則雖日從事於書林藝苑之中 而求 聖賢之門墻 比如適 越而北轅 反之於心而無得 撥之於事而太乖 豈不可畏之甚耶 嗟乎 擇里擇術 孔孟之深戒 爲今之士 科舉之習 雖不能全廢 其祀聖賢爲己之學 正心修身之 道 則內外本末輕重 緩急之序 判然如 壞之不侔矣 學者誠能審擇於此 而勇 決其取舍」

고 한다면, 서원의 본래 목적을 상실, 강학기구 대신에 祀賢爲主로 변모하였던 17~18세기를 第 2 期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를 書院整備時代, 즉 第 3 期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에 정착된 서원제도는 고등교육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藏修優位の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의 서원은 養育人才의 교육적 기능 대신에 부차적이었던 祭享을 강조하게 된다. 書院享祀人은 반드시 斯文 有功人이 아니라도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어 서원의 濫設, 疊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정략적인 黨爭에 있었고, 自黨의 학문적인 정통성이 곧 書院數에 의해 과시되는 까닭에 書院享祀는 바로 黨權의 尺度로 둔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서원의 역기능이 계속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고 드디어 大院君 집권시에 書院撤廢令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에 書院이 설립된 것은 第 2 期에 해당되는 享祀優位 時代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제주도에는 精舍와 같은 강학위주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목사 沈連源이 세웠던 鄉學堂이 폐쇄되자 林亨秀(1504~1547)목사는 金寧 浦口 위에 金寧精舍를 지어 東學이라 하고 明月城 서쪽에는 月溪精舍를 지어 西學이라 하여 學生들을 모아 교육시켰던 것이 그 예이다.³⁾ 일반적으로 精舍라 함은 名望이 높은 儒士가 처음부터 仕宦에 뜻이 없어 閑雲野鶴과 더불어 草野에 묻혀 있거나, 또는 벼슬을 살다가도 歸田圖하여 그의 鄉里나 風光이 明眉한 곳을 골라 隱居, 藏修의 자리를 일면 그를 흠모하는

3) 李元鎮, 前揭書. 「月溪精舍在明月城西金寧精舍在金寧浦上 月溪爲西學 金寧爲東學 分校生附近居者讀書于此 擇士人之學文者 爲師長」

志學의 청소년들이 찾아와問道,執擘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私塾(私設 아카데미)이었다. 따라서 그 명칭은 대개 그 地名이나 景勝의 특징 또는 그 주인의 雅號와 越向하는 바를 따라서 택정되었다. 精舍는 보통 名儒가 창건한 講學의 書齋이기 때문에 그의 歿後門人들이 서원으로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퇴계의 龍雲精舍와 율곡의 隱屏精舍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精舍가 書院으로 발전, 변모되지는 못했다.

본격적 의미의 서원은 「道學書院」과 「忠節書院」으로 되어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書院」, 후자는 「祠」로 불리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의미의 서원으로는 제주도에 橘林書院과 三姓祠가 있었다. 굴림서원은 宣祖 11年(1578)에 趙仁後 判官이 中宗 16年에 己卯士禍로 유배와 賜死된 金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廟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⁴⁾ 成潭의 門人으로 당대의 명문장가인 林悌가 절도사인 부친을 뵈고자 來島하였다가 조인후의 부탁으로 記를 썼고⁵⁾ 孝宗 10年(1659)에 李檣 牧使가 제주유림 金晉鎔의 건의를 받아들여 藏修堂을 건립하자⁶⁾ 顯宗 6年(1665)에 崔鎮南 判官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이를 祠로 하고 장수당을 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懸額하였다.⁷⁾ 그 후 顯宗 10年(1669)에는 金尙憲과 鄭蘊을 配享하여 肅宗 1年(1675) 三臣의 서원으로 賜額을 요청해 보지만 비변사에 의해 거절

4) 金錫翼, 前揭書. 「宣祖 十一年 春 判官趙仁後 建冲庵廟于嘉樂川東」

5) 林悌『南溟小乘』, 「金先生祠宇成 趙侯屬余記之」

李元鎮, 前揭書. 祠廟條.

6) 金錫翼, 前揭書. 「牧使李建藏修堂 是因金晉鎔議 遂建學堂于南城內 高得宗舊基 扁藏修 倂興學事」

7) 上揭書. 「顯宗 六年 判官崔鎮南 移建冲庵廟于藏修堂南 揭額橘林書院」

되었다.⁸⁾ 肅宗 8年(1682)에 가서야 宋麟壽를 배향하면서 四臣書院으로 賜額되어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⁹⁾ 肅宗 21年(1695)에는 宋時烈을 배향함으로써 五賢配享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¹⁰⁾ 특히 굴림서원의 체제는 掌儀 1명, 有司 2명이 있었고 학생수는 正祖代의 邑誌에 의하면 額內院生 30명, 額外院生 36명, 別置居接生 20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서원은 모두 賜額書院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賜額 즉 王의 認定을 받는다는 일은 서원의 社會的 地位를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免稅, 免役의 특전을 향유한다는 실질적인 이득이 따랐다. 물론 이것이 정치경제적인 역기능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원정비의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제주도에 대한 國家의 政策的 配慮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賜額이 重臣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파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한 서원의 享祀人物 選定에 있어서도 禁令이 엄격하던 때에 그것 역시 파격적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鮮初에서 부터 시작된 懷柔策의 연장임을 示唆하는 例라고 할 수 있다.

굴림서원은 高宗 8年(1871) 大阮君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廢院되기까지 근 212년간을 존속되었는데 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學統을 추증하고 한편으로는 哲學과 歷史의 큰 스승(經史大師)을 흠모하는 것이었기

8) 『肅宗實錄』元年 9月 庚戌「三臣書院亦宜宣額 下備局 備局回啓 言賜額事重 有難輕議」

9) 金錫翼, 前揭書, 「肅宗 八年…以宋麟壽 金尙憲 鄭蘊 從享于冲庵廟 假宣額曰橘林書院」

10) 上揭書, 「二十一年 以文正公宋時烈 從享于橘林書院 宋時烈 字英甫 號尤菴 恩津人 己巳春淪 謫本州 纔踰月被逮 受後命于中道 官左議政從祀文廟」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굴림서원의 교육적 기능으로서 그 가치는 큰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유배인 崔益鉉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작은 제주섬은 오랫동안 개명하지 못하여 잡스런 말과 가죽옷 등 그 풍속이 비루하였는데 五賢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 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하여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 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¹¹⁾

(2) 五賢配享

書院이란 書齋學校와 先賢先師를 제사 지내는 祠廟를 합친 것으로서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書堂이나 書齋, 精舍 등과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祠宇, 鄉賢祠와는 다르다. 특히 선현의 奉祀는 곧 그 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文廟從祀의 性格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儒賢들을 모셔 놓고 享祀를 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다.¹²⁾ 유현배향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걸속은

11) 崔益鉉 『勲菴集』, 「叢爾耽羅久未破荒 龍言皮眼 陋矣俗尙 噫我五賢 于坎于職 觀感興作 民到今式 苟究其由意實自天」

12) 書院享祀의 내용을 典故大方 書院享祀條에 의거하여 書院의 數와 享祀人物의 數를 통계내어 보면 書院의 數는 賜額書院이 205곳이고 非賜額書院이 196곳으로 모두 401곳이다. 여기서 享祀되어 있는 人物의 數는 賜額書院이 290인, 非賜額書院이 397인으로 모두 687명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享祀되어 있는 儒賢은 退溪가 31곳, 宋時烈이 28곳 그리고 栗谷이 20곳의 순으로 되어 있다.

교육에 의해 더욱 발전, 계승되었으며 특히 지방 士風醇化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항사에도 賜額, 非賜額의 구분이 있어 항사의 경중이 달랐는데 祠典의 경중으로 보면 문묘보다 한 등급 낮은 것이 賜額書院 享祀였고 또 한 등급 낮은 것이 非賜額書院 享祀였다. 이러한 儒賢配享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시대정신의 교육적 표현을 구체적인 인격 속에서 찾고자 했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뒤의 학자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感發興起케 하려는 교육적 의미인 것이다.

굴림서원에는 金淨, 金尙憲, 鄭蘊, 宋麟壽 그리고 宋時烈 이렇게 5명의 유현이 배향되었다. 김정이 1578년에 처음 배향되고 1695년에 끝으로 宋時烈이 배향된 것을 보면 그 기간이 대략 백여 년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백여 년이라는 시간은 특정 儒賢의 思想的 主觀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濟州島와 關係를 맺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教育活動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조망하여 제주 교육사상의 정당한 계보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제주인의 교육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굴림서원에 배향된 오현은 濟州教育思想史에 있어서 思想의 收斂, 擴散을 밝히기 위한 具體的 媒介體이다.

五賢 가운데 김정과 정온 그리고 송시열은 流配人으로서, 김상헌은 按撫御史로, 송인수는 牧使로 각기 來島하게 된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사회 역사적 위상 속에서도 몇 가지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제주도에 끼친 교육적 영향이란 施惠的 次元의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조 교육사상의 정당한 질서인 道統과의 연관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들이 당대를 계승하는 시대정신의 문맥을 직, 간접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인 관련성을 찾게 된다. 즉, 金尙憲과 宋時烈은 도통의 핵심세력으로 조선조 교육사상을 발전적으로 주도하였던 畿湖系列의 큰 스승(大師)이며 金淨이나 宋麟壽, 鄭蘊은 嶺南系列의 學者들과 師弟 혹은 從遊關係를 통해 性理學的 思惟秩序를 형성하고 있었던 人物이다.

김상헌과 정온이 활동하던 宣朝代는 明, 淸 交替의 激變期로 이러한 정세의 급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性理學的 道統이 무너지는 것인만큼 尊周의 大義가 절규되었고 그런 명분을 통하여 夷狄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의 저항이 척화의 이름으로 강조되었는데 김상헌과 정온이 淸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또한 상호관련을 맺는다. 이들이 굴림서원에 향사된 것도 그들이 丙子 胡亂 중의 忠臣과 義士로서 제주도와 관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헌의 경우는 淸議와 文名이 송시열의 追崇으로 후인에게 더욱 널리 알려졌는데 송시열은 평소 김상헌을 大義의 宗主라 생각하고 書贊을 올려 사제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굴림서원에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향된 셈이다.

가. 金尙憲의 按撫

김상헌(1570~1652)은 선조 34년(1601) 7월에 吉雲節과 蘇德裕 등의 民亂으로 도내 민심이 흉흉하므로 동년 8월에 按撫御史로 제주에 내도하여 각 처를 순회하고 다음해 1월말에 떠났다. 그 사이에 민정시찰은 물론 도민의 의구심을 달게 하고 향교에 들어가 考講도 하였다. 그는 후일 孝宗의 宗廟配享臣이자 道統의 핵심인물로 기록되는 西人系 畿湖學派의 대표적인 학자

로서 金湜 → 金德秀 → 尹根壽 → 金尙憲 계보의 교육사상가이다. 그가 내도할 당시는 기호의 학풍과 윤근수의 門에서 길러진 명본을 고수하는 學的 態度가 가장 무르익었을 32세 때였다. 그 당시 그는 스스로의 독서가 극히 적다고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학문, 문장의 연원이 所從來가 있음을 자부하고 있었다.

안무어사로 부여받은 임무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는 「本州 儒生을 考講 製述로 等第시켜 문서로 보고하라」¹³⁾는 것이었다. 이것은 禮曹에서 「제주유생의 고강과 제술은 어사로 하여금 등제시켜 순서로 보고하게 하되 고강은 經史 중에서 스스로 自願하고 제술은 大提學으로 하여금 문제를 내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¹⁴⁾ 하는 질의에 대한 宣祖의 허락과 관련한 업무였다. 講이라 함은 원래 배운 글을 선생 앞에서 외우는 일을 말하며 製述이란 시나 글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종의 文藝로 試取하는 방법이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종류의 文科初試가 설치된 시기는 자세하지 않으나 김상헌의 경우처럼 어사를 別遣하는 일이 있을 때는 시행되었었다. 비변사에서 내려진 事目에 따라 김상헌은 내도후 試才하였는데 이 非定期科試에 4인이 入格하게 된다.

김상헌의 제주인들에 대한 인상은 매우 애정적이며 또한 긍정적이었다. 인간성에 대한 긍정과 교육에 대한 낙관은 곧 人間教育의 터전이다. 이러한 김상헌의 肯定은 나아가 제주 교육의 기반에 대한 긍정이며 그 기반이란 곧

13) 金尙憲, 前揭書, 「本州儒生 考講製述 等第啓聞事」

14) 上揭書, 「濟州儒生考講製述 令 御史等第 啓聞矣 考講則經史中自願 製述則令大提學出題以送 何如」

제주 교육사상의 원천이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김상헌이 오현의 한 사람으로 배향케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나는 지방민을 보니 밖으로는 어리석은 듯하나 안으로는
공교로운 지혜가 많아서 일찍 그 자기의 곤고한 일과 수재
의 나쁜 일을 말하여 일일이 밝히고 매우 조리가 있었으며
또 의리를 섞어 말하여서 남에게 경청하게 하였는데 단언
히 전언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었다」¹⁵⁾

김상헌의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來島 원인인 蘇德裕와 吉云節 逆謀事件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조정에서는 제주도를 逆鄉으로 邑號를 降等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¹⁶⁾ 邑號의 강등은 그 고을에서 反亂, 逆賊과 같은 重罪를 저질렀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적 통제제도이다. 물론 이 조치는 李恒福의 반대로 면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예를 통해 중앙의 제주도에 대한 경직된 인식의 한 단면을 보게되는데 결국 邑號의 降等を 통해 수치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제주도의 分離主義的 性向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상헌의 태도는 제주인들이 逆謀나 꾀하는 不平分子가 아니며 나아가 그 逆謀의 원인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內在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15) 上揭書.「余見土人 外似愚蠢 而內多巧慧 嘗言其自己困苦之事 守宰無狀之實一一貫穿 甚有條理 且雜以義理 動人傾聽 斷非全然鹵莽之類」

16) 『宣祖實錄』24卷 34年 8月 壬午「初濟州將議降號」

김상헌이 橘林書院에 배향된 것은 顯宗 10年(1669)이었다. 이 당시 굴림서원에 주목되는 일이 이연 牧使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그는 조선 전기에 활약이 컸던 李約東 목사의 孫으로 顯宗 9年 제주향교가 허물어졌으므로 嘉樂川 서쪽으로 이설하고 望京樓와 愛梅軒도 改建하면서¹⁷⁾ 굴림서원에 그의 祖父 李約東을 金淨 위로 배향하는 사건을 벌인다. 물론 이것은 이연이 私情에 의하여 妄作한 것이라 하여 숙종 1년(1675) 李選 어사의 訴에 의해 位版이 철거되긴 했지만¹⁸⁾ 이를 통해 우리는 享祀人物 선정의 갈등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서원의 건립이 대개 家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원에 향사되는 인물은 자연히 가문중심이었으며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家廟인지 書院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던 당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나. 鄭蘊의 謫居

김상헌과 함께 顯宗 10年(1669) 굴림서원에 배향된 정온(1569~1641)은 光海君 6年(1614) 永昌大君의 獄死에 대해 상소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 斬首할 것을 주장하다가 그 해 8월 大靜縣에 유배되어¹⁹⁾ 仁祖反正까지 10여년간 지내게 된다. 그는 처음에는 鄭仁弘을 스승으로 하여²⁰⁾ 大北이 되었으나 뒤에 정인홍과의 알력 때문에 스스로 제자의 籍을 없애고 中北이 되었다가 다

17) 金錫翼, 『耽羅觀風案』, 「李瑱丁戌六月到任 移建鄉校 改建望京樓 設賑恤倉 己酉卒 于官」

18) 『肅宗實錄』 元年 9月 庚戌 「牧使李瑱又以其祖父李約東不議於士林置之三賢之上有辱三賢莫此爲甚不當仍置…李瑱 置其祖於三臣之上不無循私妄作之述 位版使之撤去上允之」

19) 『光海君日記』 卷11, 6年 甲寅 2月 丙午條 「兩司語鄭蘊極邊安置」

20) 金堉, 前揭書. 「蓋公自幼受學於鄭仁弘」

시 仁祖反正 후 南人이 된 사람으로 그의 학문됨은 일찍이 曹植 → 鄭仁弘 → 鄭蘊으로 이어지는 소위 南冥學派의 본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후일에 가서는 退溪 → 鄭述 → 鄭蘊의 退溪學派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정온의 학문경향은 제주도 유배를 전후하여 크게 質的 轉換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유배시에는 아직 性命을 닦은 후의 실행을 주창하고 경의를 신조로 하여 反躬體驗과 持敬實行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던 남명의 학문경향을 따랐었던 때였다.

그는 유배울 때 많은 서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讀書로써 日課를 삼을 수 있었고 大靜縣監이 謫所 境內에 書齋用으로 두 間의 집을 지어 주었으므로 그 곳에서 지방유생들을 교학하고 먼저 유배와 있던 宋象仁, 李瀾 등과도 詩文 交流를 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 殷代부터 南宋時代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곤란과 憂患을 당하여도 正道를 잃지 않았던 59人의 행적을 모아 『德辨錄』이라 하여 自省書로 삼았고, 매년 정월 초하루 새벽에는 自警箴을 지어 年中 自警書로 하였는데 自省과 自警이란 곧 학문과 인간자아의 主體를 지키는 자세이자 그 기반으로 곧 自律學習의 시작이었다.

夜氣方清淨	밤기운이 청정하니
高聲誦古箴	소리 높여 옛 성인의 잠명 읊네.
先賢知在目	선현들이 눈 앞에 있는 듯
明訓加銘心	명훈을 마음에 새길만 하네.
對越常要敬	대하여 공경함을 구하니
淵源只是欽	근본은 다만 공경에 있네.

沈潛三復了 깊이 세번이나 반복하니

虛室月星臨 빈방에는 月星만 어울리네.²¹⁾

그의 시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런 학문과 인격수도의 자각적 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實踐倫理的인 教育方法論으로서 제주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는 제주인들에게 써준 『邑先生錄』의 跋에서 자신의 教育觀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래 『先生錄』 또는 『先生案』이란 각 관아에서 前任 관원의 이름, 職名, 生年月日, 本籍 등을 적은 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銀臺先生案』이나 『玉堂先生案』 또는 『讀書堂先生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는 때로 『讀書堂先生案』처럼 구체적으로 교육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의미를 象徵的으로 드러낸다. 「무궁한 장래에 褒貶을 불이지 아니할 리 없을 것이므로 案에 이름이 오른 자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 뒤에 이제를 계승할 자, 어진 자는 법을 삼고 모진 자는 警戒를 삼으며 맑은 자는 스승을 삼고 더러운 자는 두려워 함을 살 수 있다면 곧 先生案을 만든 것이 어찌 부질없는 일이겠는가」²²⁾하는 정온의 언급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21) 鄭蘊 『桐溪集』 詩, 夜頌宋儒箴銘.

22) 鄭蘊 『邑先生錄』 跋「而奇褒貶於無窮 則登名於案者 其不湯然於中乎使後之繼今者 能以仁者爲法 而暴者爲戒 清者爲師 而汚者爲 則先生案之作 豈夫 徒然哉」

다. 宋麟壽의 復權

송인수(1487~1547)는 김상헌이나 정온보다 훨씬 先代의 인물이지만 굴림서원에 배향된 것은 肅宗 8年(1682)이었다. 그는 小學 實踐道學을 주장한 金安國과는 忘年交(나이의 차를 잊고 사귀는 벗)였으며²³ 영남학파의 두 주류중 하나인 曹植의 江右學派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준 한 사람이었다.²⁴ 그는 中宗 29年(1534) 제주목사로 3월에 到任하여 병으로 6월에 떠남으로써 그의 제주 임기는 3개월 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런 짧은 기간 때문에 그가 제주도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진술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굴림서원 배향이 그가 乙巳士禍(1547)의 여파로 賜死된지 135년이 지난 肅宗朝에서 제주도에 미친 영향때문이라기보다는 派黨的 理由에서 향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肅宗朝는 서원의 남설로 향사인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무너진 시기이며 道統 대신에 地緣, 學緣, 黨緣으로 인물이 선택되던 시기로서 朋黨의 대립으로 인한 自派勢力의 근원처 확보, 自派 先師先輩의 경쟁적 奉祀가 우선시 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굴림서원에 늦게나마 송인수의 향사를 도모한 것은 당쟁적 이유에서 淸議라고 하는 일종의 政治輿論 操作行爲를 빌어, 을사사화 당시 大尹의 잔여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小尹이 날조한 소위 良才驛 壁書事件으로 누명을 쓰고 사사된 송인수를 復權하고자 하는 意味였다.

송인수의 향사를 기점으로 굴림서원은 賜額을 받게 된다. 서원향사에는

23) 金堉, 前揭書「金慕齋爲忘年交 慕齋臨終語及國事曰 後日之憂 予當任之」

24) 曹植, 前揭書. 年譜.

賜額, 非賜額의 구분이 있어 경중이 달랐다. 사액이 되면 자연적으로 公認書院이 되어 전답과 노비 및 서책의 일정량을 동시에 하사받으며 서원의 제정을 국가에서 보충받게 되기 때문에 사액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더욱이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은 肅宗朝 初期의 분위기는 사액을 통한 서원보호책에 대하여 重臣 간에 강력한 반발이 일기 시작하던 때였으니 만큼 더욱더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정치적 여건에 따른 懷柔問題가 제일 큰 理由였다.

「제주유생들은 文簡公 金淨, 參判 鄭蘊이 도중에 적거하였고 文忠公 宋麟壽는 본주의 목사이었고 文正公 金尙憲은 순무어사로서 섬에 들어왔으므로 四臣書院을 창건하고 상소하여 請額하였다. 해당 曹에서는 중첩된 설립이라 하여 전례를 들어 상소를 막았다. 金錫齊가 아뢰기를 “四臣은 모두 문학과 절개로 유명합니다. 해외의 사람들이 능히 尊慕할 줄 아는 것은 가당한 일이며 육지의 근처와 비교할 수 없는데 중첩이라 본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25) 『肅宗實錄』 肅宗 2年 10月 甲戌條에 「尙州儒生李在憲等上疏曰 嶺南卽東方之濠洛也 麗朝文忠公鄭夢周本朝文敬公金宏弼文獻公鄭汝昌文元公李彥迪文純公李滉等五賢 先後輩出 萬曆甲午文肅公鄭經世 謀建學宮 合祀五賢 所謂道南書院是爾…恩賜未實 乞允所望 使儒賢俎豆之地 衣被榮光…(禮曹)判書李元翼以爲 此八賢各建書院 皆賜額號 而先朝有書院疊設之禁 今不可疊設賜額號…領議政許積筵白曰 禮曹防啓楷語過矣 此院與他異 國隱及我朝四賢 皆文廟從祀人也 且柳成龍鄭經世 相議建設 如此者先朝亦皆賜額矣 上特命賜額」이라 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사액을 허락하였다」²⁶⁾

나라에서 사액을 내리고자 할 때는 弘文館의 大提學 또는 副提學과 같은 명망있는 學者官員이 먼저 그 書院 院號에 알맞는 候補額號 셋을 선정하여 국왕에게 올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備三望이라고 부르며 국왕은 이 三望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명명한다. 이를 落點이라 한다. 이렇게 액호가 결정되면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위촉하여 쓰게 하고 懸板이 내려 갈 때는 禮曹佐郎을 보내어 致祭토록 한다. 이 때에 그 지방의 수령 방백은 모두 이를 맞이하여야 하며 더욱이 御筆로써 사액을 내리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름난 刻手로 하여금 그 액을 刻하도록 하고 그 원본이 서원으로 奉安될 때는 의장대와 악대를 동원하여 그 威儀를 돋우게 하였다. 글림서원은 숙종 8년에 정식으로 宣額되고 예조좌랑 安健之가 내려와 치제를 하였다.²⁷⁾

라. 宋時烈의 流配

조선 중기 성리학의 鉅儒이며 老論의 領袖였던 송시열(1607~1689)은 肅宗 15年(1689) 왕세자(景宗)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가 83세의 고령으로 유배된다. 3개월 정도 머물다가 鞫問을 받

26) 『肅宗實錄』 38卷 八年, 6月 己亥 「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濟州儒生 以文簡公金淨參判鄭蘊 管謫居島中 文忠公宋麟壽爲本州牧使 文正公金尙憲以巡撫御史入來 島中瓶建四臣書院 上疏請額該曹以疊設前例防啓矣 錫胄奏四臣俱有文學名節 而海外之人 能知尊慕此爲可嘉不可與陸地近眼 紛紜疊設者比也 上特許賜額」

27) 金錫翼 『耽羅紀年』, 「以宋麟壽 金尙憲 鄭蘊 從享于冲庵廟 假宣額曰橋林書院 乃遣禮郎安健之來致祭」

기 위해 상경 도중 南人의 책동으로 정읍에서 사사되는데 그의 유배기간은 3개월 밖에는 안되었지만 당대의 鉅儒요 碩學이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의 파장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그의 내도 자체가 제주유림에는 교육적 충격이었으며 큰 자극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甲戌獄死(1694)로 西人이 집권하면서 그가 伸冤되자마자 서둘러 굴림서원에 향사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학문은 추상적이며 공리공론을 일삼는 理論性理學 차원에 안주하지 않고 孔子의 중심철학인 心法學과 道學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經世學의 대표자인 趙光祖, 李珣, 金長生으로 전수되는 道學과 禮學을 계승하여 直哲學과 心法學을 발전시켰다.²⁸⁾ 그런데 이러한 김장생 → 송시열의 계보는 특히 義理를 내용으로 하는 禮學을 중시했었기 때문에 송시열은 이른바 義理學派를 여는 開山祖이기도 했다. 그의 學風은 제자 任弘望이나 金萬基 가족을 통해 전파되는데 金萬基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 金鎮龜, 손자 金春澤, 金鎮龜의 사위이자 任弘望의 손자인 任徵夏 등이 유배를 오게 됨으로써 그 학적 통로가 마련된다.

특히 김춘택은 적거시 제주유생들이 굴림서원에 송시열을 並享할 수 있도록 上疏文을 청하였으므로 이를 지어 주어 肅宗 21年(1695) 2월에 제주유생 金聖雨 등이 上疏하여 굴림서원에 송시열을 배향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五賢配享의 체제를 갖추는데 조력해 주었다. 송시열이 굴림서원에 향사되던 肅宗 21年은 이조판서 尹趾善이 書院疊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

28)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 中卷, 東明社, 1987. p. 363.

지 못한 지방관과 감사의 論罪를 청하자 국왕은 모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방관의 연대책임하에 서원첩설이 금지되었던 시기로 享祀人物 選定 禁습이 엄격하던 때였다.²⁹⁾ 이런 와중에 송시열이 향사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클 수 있었던 것이다.

송시열의 수제자인 權尙夏는 스승이 제주도에 安置되자 스승의 운명을 예고하고 제주도로 찾아와 이별을 고하고 스승의 의복과 책을 유품으로 받게 된다. 여기서 송시열은 제자로 하여금 萬東廟를 청주에 세워 명나라의 神宗과 毅宗을 제향하도록 유서를 남기고 그의 학문적 신조인 直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게 된다.³⁰⁾ 여러가지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송시열의 집요한 意識集中은 그 자체가 긍정적이고도 실제적인 教育內容이자 教育方法으로서 제주유림에게는 風流師宗의 한 絶頂이었다.

(3) 橘林書院의 教育的 意味

서원은 봉건사회의 시대적 산물이다. 기본적으로 서원은 봉건제도를 옹호한다는 전제 아래 체제 참여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원에는 많은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으며 특히 理學教育의 害毒은 매우 깊었다. 제주도는 출륙억제정책 때문에 대외적인 교육의 진출이 봉쇄됨으로써 굴림서원 기능이 비교적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서원

29) 『肅宗實錄』 21年 6月 壬辰條 「吏曹判書尹趾善 仍陳書院求請之弊 請禁疊設 左議政柳尙運 又請 如有疊設新建之祠 則地方官及監司論罪之事 定式施行 上皆許之」

30) 『炭翁集』 卷135, 雜著, 字設 「不直則失其以生之道 而不免於死矣」

의 봉건성이 온전히 보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봉건성은 明宗 21年(1566) 제주목사 郭乾이 불사를 파괴한 것을 시초로 불교 또는 무속을 미신시 하는 유교교육정책으로 적극화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유교교육을 모토로 굴림서원은 수십년간 도내에 많은 학인을 배출하여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敎化하는데 적지않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굴림서원의 문제점은 그 배향인물들이 비록 제주도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나 모두가 外地人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 교육의 상징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애기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외부에 대해 배타적임과 동시에 강한 선망의식을 보여주는 제주인의 양면성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굴림서원은 제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교육적 친화력 보다 일종의 교육적 사대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제도교육에 대한 제주인들의 불신을 조장시키는 면도 없지 않았다. 제주 교육의 상징적 의미는 조선후기에 가서 삼성사 건립으로 어느정도 극복되기 까지는 굴림서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3. 流配人의 師友講習

(1) 朝鮮中期 流配의 教育的 意味

中期에 들어서면서는 前期에 비해 流配人의 來島가 黨爭의 여파로 매우 빈번해진다. 黨爭이 격화되면서 流配期間도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父子가 來島 하는 등 그 樣相이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길어진 유배기간 때문에 제주인과의 교육관계로서 執贊의 師弟關係를 맺게되는 경우도 많아졌고

제주인들도 결과적으로 學問이 높은 여러 學者들을 同時에 만날 수도 있게 되어 出陸抑制로 인한 教育進出의 孤立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黨色이나 學派의 본위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어서 육지부에서처럼 학파의 角立이라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派의 角立이란 일종의 學風의 전제주의로서 학풍의 個別性은 알되 開放性은 외면하는 처사이다. 당대의 학문적 풍토가 그러한 個別性 신봉에 주력하였다면 적어도 제주도의 경우는 個別性은 모자랄지 모르나 開放性은 각별하였다. 그것은 出陸抑制政策으로 인한 教育의 孤立性 때문에 어떤 個別性을 고집할만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開放性은 그에 대한 일종의 對應樣式의 意味를 갖는 성질이었다

(2) 黨爭流人

유배인 가운데 金晉鎔과 高弘進 같은 뛰어난 濟州學人을 배출시킨 사람은 艮翁 李瀛(1579~1624)이다. 그는 光海君 10年(1618) 仁穆大妃에 대한 廢母論을 반대하다가 5년여에 걸쳐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원래 퇴계의 수제자인 鄭述의 從遊者³¹⁾로 퇴계 → 정구로 계승되는 嶺南學派의 전통에 닿아 있는 學者이다. 그가 안치되었을 시 鄭蘊도 함께 유배되었으므로 두 사람은 同病相憐의 情으로 詩文을 교류하며 激勵할 수 있었다. 특히 이익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金晉鎔과 高弘進, 文榮後 같은 제주인들을 門

31) 朴世采『東儒師友錄』, 補遺, 下. 「寒岡先生從遊一李艮翁謂瀛字洞如號艮慶州人萬曆乙卯生壬子中大小科光海乙卯被囚戊午濟州安置」

下에 두게 된다. 또한 그는 解配(1623)되자 제주에 小室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後孫들을 남길 수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家學的 傳統을 계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文教發展에 큰 기여를 한다.

또한 현종 14년(1673) 陸上石役이 불완전하다는 문제로 유배온 申命奎 역시 대정현에서 7년간 유배생활하는 동안 吳廷寶 같은 훌륭한 제자를 두게 된다. 吳廷寶은 그 후 肅宗 15年(1689) 己巳換局으로 유배오게 된 金鎭龜에게도 가르침을 받는데 김진구는 39세의 장년의 나이로 유배를 왔었기 때문에 訓學的 熱意가 대단하여 吳廷寶만이 아니라 高萬膽, 李重發, 鄭敼選, 梁秀瀾, 金德恒, 白喜敏 등 여러 제주인들을 門下에 둔다. 이같은 김진구와 제주인과의 교육관계는 제주도에 京師學風을 전수시킴과 동시에 제주인들의 學風을 일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조선 중기 제주 교육사상사에서 가장 내용있는 맥락이다.

金鎭龜의 아들인 金春澤(1670~1717)은 肅宗 32年(1706) 세자를 모해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유배오게 되는데 9월에 제주에 도착, 16년전 그의 父親이 적거하였던 州妓 吳眞의 집을 적소로 정하여 전일 그의 부친이 적거할 적에 수학하였던 제주인들과 交流하였다. 때마침 순무어사 李海朝가 御題를 가지고 와서 제주유생들을 試取하자 그의 부친에게 수학한 鄭敼選, 吳廷寶, 高萬膽 등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므로³²⁾ 기쁨에 그의 교육적 열의는 父親처럼 적극적일 수 있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日常을 「모든 물산이 빈곤한 지방이었지만 굴림서원에는 유생과 지방자제들이 모여 와서 독서와 음식

32) 金錫翼, 前揭書. 「秋 遣巡撫御史李海朝來 試取文科 賜鄭敼選 高萬膽 初名萬秋 吳廷寶三人」

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벗하여 詩書로서 즐겁게 지냈다」³³⁾라고 적고있다.

김진구의 사위인 任徵夏도 영조의 藹平策에 반대하다가 영조 3년(1727) 丁未換局으로 제주도에 移配되었는데 그는 전임 목사 임홍망의 손자라는 점 때문에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적소에서 그는 특히 丈人의 제자인 金德恒과 친교하며 학문을 나누었지만 이듬해 2월 서울로 압송되어 영조 6년 의금부 옥중에서 죽게 된다. 제주를 떠날 때 자기의 뜻과 주장이 후세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리라는 要訣諸生の 시를 남기게 된다.

讀聖賢書所學何事 성현의 글을 읽어 배울 바가 무엇이나.

要使此心俯仰無愧 하늘을 우러르나 땅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게 함이네

從古以來人誰不死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가 아니 죽었느냐.

橘林在傍百世可竣 굴림이 곁에 있으니 오랜 세상을 기다려 보세.

嗟小子母以我戒 슬프다. 제자들이여. 나의 일을 가지고 경계치 말며

閉門讀書益勤無怠 문 닫고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게으름이 없도록 하라.³⁴⁾

이 시는 곧 後進敎學의 사기진작을 위함과 동시에 敎育價値觀의 수립과 그 실현방법을 언급함으로써 敎育理想의 실현을 염원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33) 金春澤『北軒集』囚海錄.

34) 任徵夏『西齋集』.

(3) 蕩平流人

조선조 성리학의 理論的 探究에 있어 絶頂의 경우가 두차례였다. 그 한 경우가 16세기 중엽에 발생한 ‘四端七情’에 대한 理氣論的 解釋의 논쟁이라면 또 한 경우는 18세기 초두에 발생한 ‘人性物性’의 同異問題 논쟁이다. 특히 후자의 논쟁을 일컬어 湖洛論爭이라고 하는데 이 湖洛是非는 이이와 송시열의 학풍을 계승하는 權尙夏의 문하에서 처음 발단한 것이다. 권상하의 문하에는 소위 ‘江門八學士’로 일컬어지던 8명의 학자들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특히 韓元震과 李柬이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로서 이들이 곧 論辨을 야기시킨 주인공이다. 당시 한원진은 人性과 物性이 다르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이간은 서로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견해의 대립을 보였다. 그들의 논전 열의는 나아가 친우나 제자들까지 논쟁에 참여케 하였으며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은 두 견해 중 어느 한편을 지지 동조함으로써 마침내 많은 학자들이 학파적 대립 양상을 띠게 까지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이 호락논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湖論과 洛論 계열의 학자들이 유배오게 됨으로써 그 論爭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호론은 권상하의 손자이자 한원진의 제자인 權震應의 유배를 계기로, 그리고 낙론은 이간의 제자인 李存中의 유배를 계기로 개진된다. 그런데 권진웅과 이존중은 英祖의 蕩平策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주도에 유배 오게된 사람들로서 이존중은 3년 동안 제주도 旌義縣 적소에서 지방유생과 자제들에게 學問과 道德을 교학하였으며 권진웅은 大靜縣 姜弼發의 집을 적소로 정하고 그곳을 ‘滄洲精舍’라 하여 지방유생들을 교학하였다. 滄洲精

숨은 朱子가 죽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그 때 그의 학문이 僞學이라고 매우 심한 공격을 받아 매우 어려웠으나 강학을 쉬지 않고 저술활동 또한 그만두지 않았었는데 권진웅은 자신의 처지를 朱子에 비유했기도 하려니와 가르침(精舍)을 통해 그러한 이상향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호락의 人物性同異 論爭은 근본적으로 朱子說을 원용함으로써 주자사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人物性同異의 편벽된 입장보다는 오히려 朱子思想의 풍부한 해석력 그 자체에 공감된 바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호론과 낙론이 개진되었어도 제주도에서는 대립양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角立된 개별적인 思想을 고집하기에는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고립이 심했었고 따라서 그 어느것이든지 받아들였고,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 出陸이 抑制된 제주도의 教育的 狀況에서 파생된 특징인 것이다.

4. 濟州學人

朝鮮中期에 들어 爛熟해진 성리학적 교육이념은 유배인과 제주인의 師友講習 과정에서 제주도에 소개되었고 그에 따라 金晉鎔이나 高弘鎮, 吳廷寶 같은 몇몇 걸출한 濟州學人들이 배출된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에게서 나름의 독창적인 이론 개진을 기대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성리학에 대한 文藝的 教養人으로서 손색이 없는 제주도의 臨表였다.

金晉鎔(1605~1663)은 유배인 이익에게 수학하여 仁祖 12년에는 司馬試

에 급제하고 이어 성균관에 진학하여 仁朝 21년에 崇寧殿 參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고향에 돌아와 訓學에 전념하였던 제주유희의 큰 인물이다. 목사 이회의 임기가 끝날 무렵(1660) 그는 목사에게 「使道가 오신 이래로 校生이 勸課不怠하여 文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떠난 후에도 학풍이 계속되도록 高判尹의 옛집터가 버려져 있으니 그곳에 藏修堂을 지어 준다면 不朽의 盛事가 될 것입니다」³⁵⁾고 건의하여 그의 도움으로 學舍 12間을 지어 장수당이라 이름하고 35명을 선발하여 교육하였다. 또 環穀 三分耗穀 외에 삼백석의 耗穀을 會錄하고 특별히 쌀 50석, 보리 50석, 木棉 2동과 船舶 한척을 장수당의 운영비로 마련하였다.

이렇듯 그는 장수당의 설립을 건의하여 유생들에게 책도 빌려주고 식량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學舍構內에 초가를 세워 공부방 걱정을 없게 하였고 흉년이 들어 제주도에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키 위하여 전라도에 구매교섭을 하는 한편, 양곡운반선 두 척을 관급지정선으로 배치케 하는 등 장학제도를 실시케 하였다. 또한 몸소 강론을 통해 학생들과 기거숙식을 같이 하였는데 이는 스승과 제자가 한 집에 살며 風雨明晦를 가리지 않고 성리학의 정신에 투철함을 몸소 보여준 예이다.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는 高得宗과 더불어 후일 鄉賢으로 추대된다.³⁶⁾ 鄉賢 推戴는 그의 교육적 영향력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35) 金錫翼, 『耽羅觀風案』, 「仁祖乙亥中進士官至崇寧殿參奉」, 『光山金氏文簡公派世譜』 參照.

36) 『濟州先賢誌』, 濟州道, p. 85.

37) 金錫翼 『耽羅紀年』, 「因儒狀以金晉鎔追享于永惠祠肅宗己酉移安于鄉賢祠」, 李源祚 『耽羅錄』, 鄉賢社記.

김진용과 함께 이익의 문인이었던 高弘進(1602~?)은 목사 李元鎮을 도와 『耽羅誌』를 편수, 인쇄하였다.³⁸⁾ 제주도에 대한 考證文獻이 빈약했던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작업이었다. 고흥진이 조력했던 李元鎮 목사는 재임중(1651~1653) 文教에 뜻을 두어 폐퇴된 대정향교를 이설하는 등 교학진흥의 여러 노력을 한 지방관이었다. 고흥진은 현종 5년(1664) 試才御史 尹深에 의하여 試取되어 문과에 합격하게 되는데 이때 文榮後, 文徵後 역시 함께 시취된다.³⁹⁾

따져보면 김진용은 13살에, 고흥진은 16살에 이익에게 사사를 받아 학문적 열의가 가장 왕성했던 나이에 執贊의 師弟關係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첫 스승’의 교육적 의미는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스승과의 만남을 ‘運命的’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李瀾의 유배가 아니었다라면 김진용이나 고흥진과의 만남은 성사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京師의 學風도 접하지 못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제관계는 참으로 운명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제관계는 申命奎(1618~1688)와 제주유생 吳廷寶 사이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다. 후일 오정빈은 스승을 사모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긴다.

38) 金錫翼, 上揭書. 「秋 耽羅誌成 本島 屢經兵火 文獻無徵 李元鎮 爲是 追釋故事 傍攷諸史 始克成編 而令州人 高弘鎮監校梓」

39) 前揭書. 「別遣試才御史尹深來 試取文科賜文榮後文徵後 高弘進三人」
『高氏世錄』參照.

當年立志早遊門	어릴적 학문에 뜻을 두어 스승의 문하에 들어가서
一字人間結拜恩	글자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겉초보은하려고
入夜想思思不盡	밤마다 선생님 생각 또 생각
江寒風急月黃昏	차운 강바람 급히 불 때 달이 서쪽으로 기울 때도 ⁴⁰⁾

이는 放還되어 돌아간 스승을 못잊어 하는 글이기고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서 스승없는, 아니 스승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사람됨이 이루어지는 일은
힘들다는 것을 웅변하는 내용이며 한편 좋은 제자없이 훌륭한 스승이 기억
되는 일 또한 어렵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 오정빈은 신명규와 김
진구를 동시에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행복한 學人이었다.

40) 吳文福, 『瀛州風雅』, 濟州: 韓一印刷社, 1985. p. 45.

第3節 朝鮮後期 教育思想史

-教育的 自生力の 展開高揚期-

1. 後期の 主題的 特徵

朝鮮後期에 들면서 사회는 勢道政治로 인한 제반 폐해와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국가재정은 위축일로에 있었고 三政紊亂으로 인한 稅政의 불공정과 지방관리의 불법수탈로 말미암아 국가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면에 民衆의 지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그들의 문제의식은 차츰 높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조화현상 속에서 한 시대의 精神理念이었던 儒學 안에는 性理學과 實學으로 대별되는 대조적인 思潮가 잉태되고 있었는데 이는 곧 조선후기의 시대적 갈등이 그만큼 크고 심각하였음을 의미한다.

제주인들의 問題意識이 강화됨으로 하여 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제주인들의 教育的 變革性과 健康性이 증대되던 시기도 朝鮮後期이다. 이 시기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出陸抑制政策에 의해 금지될 수 밖에는 없었던 出陸에 의한 直接修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教學的 自生力이 증대되었으며 이로써 한 시대의 思想的 激浪에 몸소 동참하며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鄉黨文化圈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金正喜나 崔益鉉 같은 유배인의 教學活動도 이 시기의 제주 교육사상사 형성에 마뜨릴 수 없는 要因이다.

2. 濟州鄉黨文化圈의 確立

(1) 主體力の 背景

조선조 敎學秩序는 지역적인 이유와 더불어 自派勢力의 확립을 모색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크게 嶺南學派와 畿湖學派로 大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流派와 系譜的 正統性을 이룬다는 건지에서 특정 學派나 學統에 대한 士林의 집착은 대단한 것이었다. 즉 각기 다른 계기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師弟關係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간의 특정 流派的 連帶意識은 매우 강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조선조 교학질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영남학파나 기호학파 내의 士林들이 유배인의 신분으로 來島함에 따라 濟州儒林들이 특정 유파의 계보적 정통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학파의 분위기라도 쉽게 同化함으로 하여 學問的 正統性에 대한 일종의 혼란상을 露呈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제주도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때 遠惡의 島配地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특정 학파의 영향력을 고집할 만한 學問的 自生力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학문적 자생력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떠한 정책적 의도 때문에 學問的 傳統이 미약할 수 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으로 제주도에 대한 封建的 收奪이나 出陸抑制政策 같은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생존을 위한 경지면적의 절대적인 부족과 경지의 척박, 그리고 원시 농업의 답습은 地主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제주인은 대개 같은 경제적 조건을 가진 자작겸 소작농으로서 농민층의 분
 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열악한 조건 아래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제주인은 한편으로는 漁業이나 手工業 등에 의존하고 한편으
 로는 牧場土 및 火田 등의 국유지의 경작과 官房田 및 衙門屯田 등의 公土
 의 경작 등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는 場稅 및 火田稅 등의 地代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더구나 이것은
 점점 인상되어 제주인을 다시 궁핍케 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國家地
 主制를 통한 官의 봉건적 수탈은 19세기 후반에 가중되었다.

한편 제주도에는 경지의 대부분을 밭이 차지하고 있었고 밭은 기후 등
 의 자연환경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굴 등의 特用作物의 재배와 牧畜에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특용작물 및 말 등은 그 대부분이 現物地代의 형태로
 貢納되었으며 이 공납에는 중앙으로 부터 파견된 관리에 의한 自意的 收奪
 이 자주 자행되어 제주인을 특히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주
 인은 생계의 보조수단으로서 미역, 전복 등의 해산물과 涼太 등의 수공업생
 산물을 통하여 충청, 전라도 지방의 내륙상인에게서 식량과 포목 등을 구입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주인은 항상 弱者의 위치를 면하지 못하여 경제
 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敎育의 傳統이 제대로 갖추어지기란 至難한 일이었다.

출륙억제정책의 교육적 의미는 이미 第 3 章의 朝鮮朝 濟州敎育의 條件
 편에서 거론한 바가 있지만 약 200여년 지속되었던 이 特殊政策은 제주도의
 對外的인 敎育進出의 길을 封鎖하는 부작용을 낳아 근대에 이르도록 제주도
 로 하여금 폐쇄적인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쳤는데 걸

과적으로 제주도의 교육을 疲弊化시킨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였다. 결국 출륙억제정책의 여파로 제주도 교육은 유배인들에게 의존함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주인들은 아직은 교육의 客體的 立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 유파의 계보적 정통성을 고집할 입장이 못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封建的 收奪과 出陸抑制 같은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제주인들의 教育的 力量은 鄕校나 書院 등의 공식적인 경로와 유배인과의 師友講習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축적되었고 이는 결국 후기에 들어 출륙억제와 같은 제도적 禁壓政策의 극복을 위한 動因이 된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축적된 教育的 力量을 기반으로 純祖年間(1820년대)에 이르러 출륙억제정책은 해제되었으며 이후 제주도의 교육도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다. 즉 많은 濟州文士들이 출륙을 하여 여러 鉅儒들 밑에서 直接修業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공부를 하게 됨은 물론 이거니와 그들 또한 제주도로 다시 들어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하여 教育의 主體力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유파적 연대의식이 조성되는 등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教育的 活氣를 찾게된다. 특히 그러한 流派意識은 그들의 대개가 全羅道 지역에 출륙하여 학문을 취했던 탓으로 畿湖의 學風과 관계되었고, 畿湖의 學風과 관련한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鄕黨文化圈을 형성하게 된다. 이전에는 鉅儒의 師友錄이나 弟子錄에 제주인들이 기록되는 예가 없었으나 출륙억제정책 해제 이후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鉅儒의 師友錄에 등재되는 것이 그 유파적 연대의식을 대변하는 實例이다.

조선후기의 畿湖學風을 주도하는 세력은 李恒老의 華西學派, 奇正鎮의

蘆沙學派 그리고 田愚의 艮齋學派로 크게 대별된다. 華西學派는 京畿, 江原, 忠北, 忠南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이 학파의 학풍은 화서문하의 대표적인 인물인 崔益鉉의 유배로 제주도에 소개된다. 蘆沙學派는 비교적 제주인들의 출륙이 용이했던 全南을 중심으로 慶南西部 지역까지 뻗쳐 있었으며 제주인 安達三, 高性謙, 李啓徵, 梁觀, 玄尙希 등이 長城에서 기정진에게 직접수업함으로써 그 학풍을 접하게 된다. 특히 안달삼, 고성겸, 이계징은 기정진의 師友錄에도 등재¹⁾되어 있어 기정진의 初傳임을 입증하고 있다. 화서나 노사학파보다는 후기계열이면서 화서나 노사학파와 논쟁적 태도를 보여준 艮齋學派는 全北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었는데 제주인 高景洙, 金泰交, 金玉林, 金景鍾, 高炳五 등이 가르침을 받는다. 이들도 역시 전우의 師友錄에 등재되고 있다.²⁾

그런데 이들 三大學派는 19세기 말엽에 역사적 상황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과정에서 유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역사적 변천에 저항하는 保守的 樣相을 보이기도 하고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척사위정의 민족주체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화서학파와 노사학파는 義舉하여 적을 토벌하고 물리치겠다는 舉義掃清하는 적극적 입장에서 의병운동을 주도하였고 간제학파는 黃海의 섬으로 망명하여 전통을 지키겠다는 去之守舊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제주도에는 특히 華西나 蘆沙學風의 영향으로 척사위정류의 사상적 전개가 만개된다.

1)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卷下.

2) 上揭書. 卷下.

(2) 主體力의 內容

조선후기의 역사적 변혁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인의 教育的 主體力은 비단 출륙에 의한 직접수업의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 되는데 특히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民亂을 통한 分離主義的 性向의 表출이 그 한 예이다. 이를테면 純祖年間(1813)에 일어났던 梁濟海의 謀變³⁾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1811년 평안도에서 농민전쟁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세도정치 폐해와 지방차별 대우에 대해 봉기, 항쟁하여야 하며 ... 제주도는 반드시 제주인이 自立하여야 잘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신념하에서 관리들과 서로 契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비밀히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역사를 모집하며 兵器를 제조하는 등의 준비를 갖추어 목사와 판관 및 정의현과 대정현의 양 현감을 죽이고 전도를 점령하여 해상로를 봉쇄한 다음 “自治하고 自主”할 음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謀變이 기도한 궁극적 목표는 “別國의 建設”로서 이 때 別國의 모습은 그 어휘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로부터 이탈된 別個의 國家로서 복고적이고도 분리주의적인 성향이 그 이면에 짙게 깔려 있었다. 梁濟海는 謀變의 성사 후 島主는 반드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⁴⁾ 했는데 그러한 當爲性은 그 자신이 모변의 주도적 지위에 있

3) 權仁赫, 19世紀 初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第7號, 參照.

4) 『日省錄』 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姜成五問目, 尹光宗進告」.

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겠지만 이보다는 乙那後孫이라는 점이 보다 크게 작용⁵⁾하고 있었다. 이는 옛 三姓時代의 환상에 기반한 尙古的 立場에 터진 한 것으로서 교육사상사적으로는 保存的 教育目的을 함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分離的 傳統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농민봉기는 1898년에 일어난 房屋七亂⁶⁾이 있다. 방성칠은 화전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火田稅와 場稅의 감봉을 요구하며 亂을 일으켰는데 「국운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 곳 제주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고 제주인들의 분리주의 의식을 부추기면서 봉건적 지배통치기구를 부정하고 외부로부터 유배된 적객들에게 官職을 주는 등 통치기구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방성칠 난은 南學黨이라는 종교적 秘密結社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제주인의 分離主義的 意識에 호소함으로써 봉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 梁濟海의 謀變과 공통점이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방성칠 난에는 일부 流配人들이 가세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유배인들의 정치적 성향인 反體制性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독립감정 즉, 분리주의적 성향은 조정의 개입으로 按撫되곤 하였는데 그러한 안무의 형식은 대개의 경우 非定期科試를 치룬다던가 하는 婉曲한 방법을 취했었지만 때로 강력한 행정적 실행행사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같은 強制力은 곧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의 존재를 암시

5) 『日省錄』 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濟州察使李在秀馳啓 金益剛 「(梁濟海)自稱乙那後孫島中主人則戒勿更說」.

6) 趙誠倫, 1898年 濟州島 民亂의 構造와 性格: 南學黨의 活動과 관련하여, 『韓國社會史研究會 論文集』 4, 1987. 參照.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상징적인 것이 李衡祥 牧使의 神堂 撤廢事件이다.⁷⁾ 그는 제주도에 산재해 있던 소위 淫祠(堂)와 佛寺 130여개소를 파괴하고 巫覡 400여명을 歸農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제주도의 佛寺는 완전 소멸되고 巫俗은 여성사회의 비공식적 俗神과 같이 되어 읍지에서 그 명맥을 이어 오게 된다. 조선조가 崇儒抑佛政策을 표방했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佛寺 破壞政策을 시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의 불교가 토속성이 농후하여 巫俗과 동류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때문일 것이며 이러한 신당철폐의 표면적 의도는 지방 행정을 책임맡은 牧民官으로서 지방의 풍속을 개량하고 백성의 教化에 있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神堂撤廢의 裏面에는 行政力의 강화라는 의도가 강력하게 내재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巫俗이 강했었던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자연 巫堂들의 영향력이 지대할 수 밖에는 없었으며 더욱이 그 數가 천여명이나 되고 강력한 結束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수행과정에서 문제로 대두되기에 충분하였다. 이것은 곧 性理學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교육적으로는 非形式教育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巫俗이 體制의 形式教育인 儒敎教育을 압도하는 형국으로 이는 중앙집권의 조선조 체제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이에 강력한 물리적 실행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신당철폐 사건을 통해 지배질서 문란에 대한 糾察 내지는 警告의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조선후기에 들어 완만해진 제주도의 분리주의적 전통에 대한 警戒를

7) 金錫翼, 前揭書, 「撤廢壇堂 毀焚三邑淫祠 佛宇百三十餘所 杖巫覡四百餘名」

보강하고 동시에 제주인의 教育的 主體力을 견제하는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제주 교육의 주체적 활력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書院으로서 三姓祠의 건립이다. 원래 삼성사는 肅宗 24年(1698) 柳漢明 목사가 三姓穴 동쪽에 三乙那廟를 건립하자⁸⁾ 肅宗 28年(1702)에 李衡祥 목사에 의해 嘉樂川 동쪽으로 옮기어져 春秋로 제사가 지내졌고⁹⁾ 삼성사가 서원으로 발전한 것은 英祖 16年(1740) 安慶運 목사가 齋生을 두면서였다.¹⁰⁾ 그리하여 이 곳에도 祠와 齋가 갖추어졌고 正祖 9年(1785)에 賜額되었다.¹¹⁾ 굴림서원 배향유현이 모두 外地人들임을 감안할 때 소위 始祖神으로서 高, 良, 夫 3人의 配享은 제주인의 主體性(identity)과 관련되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다. 始祖神의 配享問題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愛國教育(patriotic education)의 傳統과 관련이 깊다. 愛國教育은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血緣關係를 출발점으로 하고 조상의 땅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태어난 땅에 대한 忠誠心을 바탕으로 하는 古代教育의 전형이다. 이러한 愛國教育의 일차적인 목적은 共同體의 結束으로서 그러한 결속을 다지는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始祖神의 배향과 같은 共同宗教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따라서 삼성사의 건립은 제주인의 自尊과 自立, 自主와도 관련된 문제이며 그것은 궁극적

8) 金錫翼, 前揭書, 「(肅宗)二十四年春 牧使柳漢明 建三乙那廟於毛興穴東邊」

9) 上揭書, 「(肅宗)二十八年 牧使李衡祥 移建三乙那廟於嘉樂川東 於三高氏從享」

10) 上揭書, 「(英祖)十六年 牧使安慶運 設三乙那廟生及齊任」

11) 上揭書, 「(正祖)九年春 遣禮郎高宅謙來 致祭三乙那廟 初州人梁擎天謫吉州 蒙宥回路 上言請賜額 王特命校理高宅謙 爲禮官致祭 因宜額曰三姓祠 御筆揭扁」

으로 제주인들의 分離主義的 傳統과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다시말해 이는 三姓時代를 태평시절로 보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주인들의 교육적 바램과 보존적 교육목적이 制度化된 樣式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3) 主體力의 行使

제주인의 교육적 주체력의 구체적인 행사는 우선 조선후기에 들어 발흥한 일련의 文化運動에서 우선 드러난다. 소위 詩·書·書 검수의 문인취향의 高潮를 지적함인데 兩班士大夫를 제외한 하층계층에 의해 주도된 소위 委巷文化運動을 말한다. 이러한 제주도의 委巷文化運動에는 姜師孔, 朴啓騰, 許琚, 李時亨, 金麗錐, 金九五, 姜道淳, 姜琦奭, 金左謙, 李漢雨 등의 제주인이 同參을 하게 된다. 이들 제주인은 당대에 文名을 날리던 김정희나 김정희를 배경으로 한 文人들과 여러가지 형태로 맺어져서 그들의 推輓으로 文力을 증진시키고 書記로서 문학적 소양을 요하는 임무를 다하기도 하며, 製述文을 짓기도 하고, 詩吟의 상대가 되기도 하였으며 金九五, 姜道淳, 朴啓騰 등은 濟州筆苑으로 推仰되기도 한다. 또한 委巷文化運動의 하나로서 篆刻運動은 제주인들 가운데 金九五에게 승계되었으며 이어 金九五의 아들인 愚齊가 正統을 이었고 愚齊의 아들 金義男이 家法을 따랐다. 이어 金義男을 洪鍾時가 이었고 이어 朴判事(성명 미상)가 전승하는 등 조선후기 특유의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곧 조선후기 제주도의 教育運動이기도 하였다.

이들 제주인들의 文化運動은 出陸抑制政策이나 限品敍用 등의 國制에

뉘여 자신의 포부와 經綸을 떠나갈 통로를 잃은 채 고착된 신분의 벽을 깨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종래 귀족문화였던 漢文文化의 驛壇에 진출하여 委巷文化運動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상대적인 신분상승과 제도적 禁壓政策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효과를 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는 김정희 같은 文名있던 流配人들의 助力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김정희 만이 아니라 官에서도 후원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인계층의 불만이 조선후기에 들어 빈번하여진 제주의 여러 民亂과 더불어 體制不正 등 극한상황을 촉발할까 하는 위구심¹²⁾에서 그들에게 숨구멍을 터주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겠고, 근본적으로는 文化의 底邊化 내지 平準化라는 時流에 대한 양식있는 士大夫들의 大勢把握과 관련이 크다. 특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배인 김정희와 제주인들과의 사우강습은 그 주목을 요한다. 제주도의 委巷文化運動은 유배인 김정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學藝的 흐름이 큰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淸의 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朝鮮學藝에 영향을 미쳐 김정희가 三絶의 高峰을 이루고 다시 그의 문하에 中人出身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함으로써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이같은 제주도의 文化運動은 조선말기 『橘園』 詩會의 모임과 활동으로 계승된다.

그러나 교육의 모양과 내용으로 볼 때 그 주체력의 보다 진전된 運動的行使는 출륙에 의한 직접수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鐵湖의 學

12) 『正始文程』 卷 1, 壬子 11月 6日, 敎「自知棄征之莫混 則嗜看十七子發憤之譚 至于咳唾揮弄之末 而動相撲盡 惚惚竊竊 鮮有能超然聳拔於那裏」 등의 언급이 그러한 위구심의 발로이다.

風, 특히 화서와 노사의 학풍이 제주문사들에 의해 유입되어 결실을 본 것은 구체적으로 濟州義兵運動과 集義契의 결성이다. 집의계는 기울어져 가는 國運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사항쟁을 맹약한 일종의 秘密結社로서 최익현의 제주유배시 종유자였던 李基璫의 아들이면서 奇正鎮의 濟州初傳인 高性謙의 제자였던 李膺鎬가 주도하여 金佐謙, 金炳路, 金炳龜, 金履中, 徐丙壽, 高錫九, 金錫翼, 姜哲鎬, 姜錫宗, 任戒淑, 金基洙 등 12명의 제주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단체이다.¹³ 그런데 이들 12명은 당대 제주유림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제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집의계가 화서나 노사학파로부터 승계한 舉義掃清하는 강경함은 집의계의 선언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光武 9年(1905) 선포된 집의계 結成宣言文¹⁴에서 보듯 體制의 自強이라는 기조 위에 척사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隆熙 4年(1910)에 발표한 宣言文은 「무력투쟁의 구국의거는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의 치욕을 씻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음이니 더한 대의가 있겠는가」라고 결성선언문보다 그 논조가 매우 강경하며 이제 이론적 척사론의 단계를 넘어 武力鬭爭의 확실한 결의를 보인다. 즉 외세의 도전에 의해 조성된 主體性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 하는 문제의 차원이 實踐

13) 『濟州先賢誌』, 濟州道, 參照.

14) 「吾等은 半萬年 歷史를 負재한 우리百姓으로서 朝鮮의 確固不動한 獨立과 守古開化兩黨之紛爭과 奸臣謀利輩爲政과 外원과 倭적侵入之紛爭을 義理로 抗拒하며 忠君愛國과 禮義道德을 滿天下 百姓들에게 感心이 되도록 行動하며 倭人을 一刀一劍에 殺戮할 것을 首領代表 李膺鎬는 契員과 더불어 宣誓한다. 光武9年 3月」

運動으로 전개된다.

濟州義兵運動¹⁵은 제주도에서 解配된 뒤 泰仁에서 거병하여 전라도지방을 휩쓸다가 淳昌에서 日軍에게 잡혀 대마도에 끌려가 憤死한 최익현의 殉國(1906)과 高宗의 退位 그리고 군대해산(1907) 소식에 자극을 받은 제주유희들이 1908년에 일으킨 운동으로 기정진의 문하이자 손자인 奇字萬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였다. 즉 제주유희 高士訓은 金錫允과 의병운동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의 제자인 金萬石을 長城에 보내 기우만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의병의 훈련을 맡게 될 盧尙玉이라는 인물을 천거받게 됨으로써 제주도에서의 의병운동은 급진전을 보게 되고 募兵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조선조의 체제 보위를 위한 척시본적 강경함은 그들의 격문¹⁶에 잘 나타나고 있다. 비록 그들의 운동은 실패하여 고사훈은 39세, 김만석은 31세의 나이로 죽어 갔지만 화서나 노사학파가 지향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大義에 殉하였던 것이다.

15) 金奉玉, 『金萬德傳-義兵抗爭記 및 趙鳳鎬傳』, 濟州: 濟州文化, 1990. 參照.

16)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國恩에 대한 충성이요, 부모에 대한 효도이다. 만약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困窮함을 구하지 못하면 불효가 되는 것이요, 나라의 危急함을 걱정하면서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불충이 되는 것이니 이는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禽獸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교활한 왜적이 병자년 수호조규 이래 감언이설과 강압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니 을사조규로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눈앞에는 왜적의 무리가 강산을 짓밟고 있으니 그대로 두면 이 강토를 송두리채 삼킬 것이요, 우리들은 왜적의 노예가 될터이니 이 어찌 좌시할 수 있으랴. 오호라, 천도가 무심하리오, 경향각지의 충의지사들은 국권수호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우리 제주민도 盡忠護國하고 자손만대에 선물을 지키게 할때가 왔도다. 피끓은 충의지사는 죽음으로써 왜적을 격퇴하여 국운을 회복하여 성문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는 義聲을 합창하며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키는데 생사를 같이 한다면 이보다 다행하고 이보다 더한 충효가 어디 있으랴. 열혈의 충의지사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황사평으로 모이라」

3. 實學의 展開

조선후기는 출륙에 의한 直接修業 못지않게 유배인의 來島에 의한 교학 활동 역시 그 어느 시기에 비해서도 왕성하였다. 특히 性理學의 풍토가 지닌 모순과 한계성을 벗어나기 위한 變革改新의 노력으로서 대두된 實學이 이 시기 유배인의 교학활동에 의해 유포될 수 있었다는 것은 또다른 조선후기 제주 교육사상사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에 金正喜의 유배가 주목되는 것이며 아울러 정통유학의 主理哲學的 傳統을 발판으로 國權守護的 斥邪衛正의 논리를 전개했던 崔益鉉 등의 유배활동을 통해 조선후기의 시대적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儒學의 機能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승계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을 요한다.

(1) 金正喜의 流配

性理學的 人間觀과 世界觀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思想的 反正運動인 實學은 마침내 종래에 행해져 온 학문방법의 전환을 꾀하면서 經世致用, 利用厚生, 實事求是의 새 유파로 나뉘게 된다. 경세치용에 있어서는 제도개혁과 농민문제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고 이용후생에서는 기술개혁과 상공업의 장려를 역설했으며 실사구시의 경우에는 清代 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학문을 근대과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실사구시 학파의 開山祖는 金正喜(1786~1856)이다. 김정희는 朴齊家를 첫 스승으로 모시면서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 되고 燕京 예방으로 清朝學的 傳統을 승계함으로써 실사구시의 方法論을 인식하게 되어 악관의 나이에 몸소 실사구시 학파의

源流로서 두각을 보이게 된다. 근거가 없는 지식이나 선입관을 갖고 학문을 연구해서는 안된다는 그의 실사구시적인 학풍은 당시 뿐만 아니라 후세의 지식인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김정희는 安東金氏의 정치극의 일환으로 자행된 憲宗 6年(1840)의 尹尙度 獄事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한 出仕期를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55세때 大靜縣에 유배오게 되며 終身無期囚로서 9년간의 중요한 후반생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된다. 김정희의 유배생활은 후일 그의 학풍을 잇고 阮堂集 五卷五冊을 편집하였으며 두 차례나 來島했었던 김정희의 內從姪 閔奎鎬가 쓴 『小傳』에 잘 나타나 있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집어 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동안에 人文이 크게 개발되어 文彩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¹⁷⁾

이렇듯 김정희의 제주유배는 제주도의 교육사상에 질적 변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김정희는 제주사람들과 興學敎化의 同化를 통하여 교육사상의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던 것으로 왕성한 師

17)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 遠近負笈 者如市 纔 數月人文大開 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 自公始」

弟關係가 이를 대변한다. 김정희의 제자가 삼천명이라는 「阮翁門下三千士 不負才名獨出群」¹⁸⁾의 詩語가 시사하듯 그만큼 많은 제자를 배출하여 그 人脈이 계승되던 전통이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隨友講習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즉 姜師孔, 朴啓膽, 許琚, 李時亨, 金麗錐, 李漢雨, 金九五, 姜道淳, 姜琦夷, 金左謙, 洪錫祐 등의 제주인들이 그의 제자들이다. 이들의 신분계층은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계층으로서 委巷階層이었다. 사제관계가 이렇듯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김정희의 學問觀에서 기인한다.

「사람의 재주란 각각 하늘에서 받은 것이라 처음에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눈 밝은 사람이 열어 이끌어 줌이 없을 뿐입니다...그러다 보면 지혜와 식견이 월등한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에 큰 병은 게으름에 편안히 있는 것입니다. 태산 꼭대기를 가려면 다시 한 걸음을 나가야하는 것이라 언제나 탄식을 마지 않습니다」¹⁹⁾

인간의 文化는 실은 철저하게 學習되고 繼承되는 것이며 문화수준의 지역적 차이는 인종의 才能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

18) 『姜璋全集』上 「同白小香金松年再會紅館送別」

19) 金正喜, 前揭書. 卷4, 與張兵使寅植 「人才各有天分 初無界於南北 特無明眼人開導 之耳...果有慧識超異者否 此中大病 在安於情 欲向泰山頂上 再進一步 每咄咄 不已」

여 개발되고 계승된 文化의 差異에 기인하는 것임을 김정희는 철저히 믿고 있었다. 따라서 낙후된 文化水準을 끌어 올리고 묻혀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스승의 인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²⁰⁾ 그것은 제주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제주도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촉발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淸나라의 문화와 학자를 접하고 절해고도 濟州島로의 流配經歷을 통하여 김정희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더 문화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타고난 재능의 개발은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신분(上下貴賤南北)에 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거의 없고 平凡한 재능을 타고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평범한 재능을 非凡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라기보다 차라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文化遺産의 繼承 즉 教育에 의해서라는 것이 김정희의 생각이다. 따라서 김정희는 궁벽한 절해고도 제주도에도 문화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中人계층의 詩才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養子 商憲에게 보낸 書翰 가운데 특별히 제주유생 李時亨을 부탁하

20) 그는 이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신속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예로 「人才各有天分 初無界於南北 特無明眼人開導之耳 …走之初來耶 頗示之以九經之色 說之以文選之理 皆 恟恍不人如蚊嚙鐵壁或有來問者 是史要聚選 不爾 則某題之頭項 當作如何 蓋其平日見聞 不出此三家村中 都都平丈耳 若有處官師之尊 以大力量 順風一呼 齊變魯變 恐似不難」라고 하였다.

는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

「 여기 이시형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난데
걸단코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건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같고 닦게 한다
면 족히 이 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²¹⁾

자기는 자신이 속해 있는 東洋文化圈의 頂上에 올라 그 문화의 起源과
脈絡 志向點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하면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울러 가졌던 것이 김정희였다. 이러한
까닭에 유배지에서도 門下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문하에 제자들의 내왕이 빈번
하다는 것은 師道가 존엄하다는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곧 教師
의 權威問題이기도 하다. 유배지에서 김정희가 제주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김정희의 德行과 學問이 제주인들의 表率이 되기에 충분할 뿐 아
니라 제주인들에게 바치는 教育的 關心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승에게

21) 上揭書. 卷2 「此邑李生時亨 年少才逸 決意欲此學其志頗銳 不可阻奪 使
之上去 試與同研 雖其見聞不廣若使磨淬 足以傲此地不讀者耳 其行從船而去
似遲緩矣」

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크게는 嚴格한 스승과 溫和한 스승이다. 엄격한 스승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학생에게도 엄격하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다. 온화한 스승은 차근차근히 타이르면서 언제나 온화하고 성내지 않는다. 그는 학생들의 愛戴를 받고 그의 온화함 때문에 친화감을 주면서도 스승으로서의 威望을 손상받지 않는 분이다. 김정희가 바로 그러한 스승이었다.

김정희와 제주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조선조 후기의 제주도 文風振作이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희의 安置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來島를 통해 계속되었던 秋史學派의 교학적 열의 그 자체에도 그러한 진작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었다. 김정희를 찾아 來島했던 사람으로는 華衣大師, 許維, 姜璋, 閔奎鎬 그리고 具聖業, 鄭元鍾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다수가 사대부에서 한 격 떨어지는 中人階層으로 김정희와 師友, 師弟의 關係였다. 그 밖에 濟州牧使 李源祚나 제자 李尙迪과의 교본도 아울러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김정희가 유배지에서 학문적 긴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 李尙迪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상적은 來島는 안했지만 1843년 桂馥(未谷)의 『晚學集』 8권과 惲敬(子居)의 『大雲山房集』 8권을 멀리 북경에서 구해 보냈으며 賀長齡(耦耕)의 『皇清經世文編』 120권을 부치는 등 書籍을 통해 적소에 있는 스승의 학문적 갈증을 채워주었다. 『晚學集』은 1841년 간행되었는데 표지에는 翁方綱의 題簽이 있고 卷 머리에 蔣祥墀의 ‘桂君未谷傳’ 다음에 ‘助刻姓氏’ 桂縣訖의 ‘識’, 阮元의 “序” 그리고 孔肅山の ‘後序’가 있어 桂馥의 經術을 보기에 매우 귀한

자료이다. 일찍이 桂馥의 학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김정희에게는 귀중한 서적이 아닐 수 없었다. 또 『大雲山房文藝初集』은 1811년 간행하였고 2집 4권 『目錄凡槩文』 96편은 같은 해 長州의 宋揚光(吉甫)가 간행했지만 김정희가 받은 것은 初集 4卷 뿐일 것이다. 『皇清經世文編』은 1827년 刊本으로 自敍가 있다.

이들은 모두 김정희가 평소 몹시 보고 싶었던 책들로 그의 감격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李尙迪의 정본에 감동한 김정희는 松柏 2그루가 서 있는 적거의 雲景을 그려 <歲寒圖>라 題하고 ‘藕船是賞 阮堂’이라고 自署한 뒤 題跋의 一文을 精楷로 淨書하여 이상적에게 주었는데 이 題跋은 師弟關係의 正道를 밝힘에 있어 不二의 好寶이다. 이렇듯 김정희는 적소에서 도 많은 書冊을 대하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通鑑과 孟子에 불과했던 제주도의 서책형편에서는 김정희의 장서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각조 높은 교육적 강화였다. 그가 유배지에서 대하고 있었던 서책들은 이상적이 전해 준 것 외에도 많은 것²²⁾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은

22) 이 目錄은 秋史의 流配書翰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 * 本草; 明나라 李時珍이 편찬한 『本草綱目』 52卷.
- * 詩 醇; 淸나라 高宗이 편찬한 『御船唐宋詩醇』 47卷.
- * 律 髓; 元나라 方回가 편찬한 『瀛奎律髓』 49卷.
- * 書 畫 譜; 淸나라 孫岳領 등이 奉旨贊한 『御定佩文齋書畫譜』 100卷.
- * 周易折中; 淸나라 聖祖가 御贊한 『御纂周易折中』 22卷.
- * 藏 進 帖; 明나라 萬曆 陳元瑞 刻의 『渤海藏眞帖』 8卷.
- * 千 字 文; 梁나라 周興嗣가 편찬한 『千字文』.
- * 靈 飛 經; 道經의 일종.
- * 藝海珠塵; 不分卷 48冊.
- * 海 志; 淸나라 魏源이 쓴 西洋文物 소개서인 『海國圖志』.
- * 岐亭詩帖; 蘇東坡가 黃州에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詩帖.
- * 淸愛堂帖; 淸나라 劉墉이 法帖으로 만든 『淸愛堂石帖』 4卷.

『海國圖志』이다. 『海國圖志』는 清朝의 魏源이 쓴 서양문물 소개서로서 清朝末의 中國은 물론, 朝鮮과 日本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은 후일 『萬國政表』 등이 간행되어 풍부한 해외지식이 제공되기까지는 해외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入門書였다. 이 책은 단순한 世界地史書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淸國 公羊學派의 입장을 대변하는 思想書로서 조선 말기에 들어 朴珪壽와 柳大致 등을 통하여 金玉均 등의 開化派에 영향을 주었다.

『해국도지』의 50권본은 1842년에 완성되어 1844년에 간행되었는데 김정희는 1845년에 벌써 이 책을 제주도에서 입수하고 있다. 1845년 막내아우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국도지는 요사이 좋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네. 그러나 눈 어두운 것이 이와 같아서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군」²³⁾이라고 쓰고 있다. 그는 또한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空冊에다 베끼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는데²⁴⁾ 유배중 김정희의 관심지향성을 말해주는 단적인 實例이다. 또한 그는 知友 權敦仁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서도 「해국도지는 꼭 필요한 책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집의 많은 보물과 맞먹는다」²⁵⁾고 쓰고 있다. 이렇듯 『海國圖志』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근대조선의 개화사상을 낳는 한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희의 영향으로 초기 선구적 개화사상가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은 姜

* 古器款識; 鐵帖이 만든 金文圖錄 『十六長樂堂古器款識』.

* 漢隸字原; 南宋 婁機가 편찬한 書學에 관한 冊.

23) 金正喜, 前揭書. 「海志好作 近日消遣三去 而眼花如此 不得如前日之看讀可歎」.

24) 上揭書 「切欲抄錄 空冊之大 印札兩卷 可以得送耶」.

25) 上揭書 「海國圖志 是必需之書 在我似若他家數寶」.

璋이다. 즉 강위를 통해 우리는 실학에서 개화사상으로의 思想史的 轉換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강위는 김정희에게서 30세 이후까지 經意를 묻고 스승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김정희가 유배되자 그는 유배지에서 3년동안 스승을 모셨고 北齊으로 移配되자 그 곳에도 따라가 계속 가르침을 받았다. 강위는 제주도에서 수발을 드는 동안 博學多識한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스승의 藏書를 閱覽함으로써 그의 공부는 깊고 넓어진다. 스승을 만나기란 쉽지 않고 책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러기에 학문에 뜻을 두는 사람은 千里를 멀다하지 않고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하게 된다. 특히 강위는 김정희를 통해 개화사상의 촉매구실을 하였던 『해국도지』같은 선진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개화의지를 가다듬게 되며 初期 開化派로서의 진로를 가늠케 된다.

이러한 제자들과의 관계 외에도 김정희는 당시 濟州牧使였던 李源祚와도 학문적 논의를 펼쳐보임으로써 김정희 특유의 진지함과 학문적 경지를 웅변한다. 제주유생들에게 있어 그같은 김정희의 태도는 共有의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자세였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되는 바가 컸을 것이다. 李源祚는 憲宗 7年(1841)에 제주목사로 除授되어 2년반 동안 집무하였는데 이 때 김정희와 尙書僞古文十六言에 대하여 논변하게 된다. 김정희는 淸의 閻若璩(1636~1704)가 그의 『尙書古文疏證』에서 논증한 『古文尙書』는 晉代의 僞作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였으나 이원조는 이에 반박하였던 것이다. 원래 閻若璩가 고문상서가 僞書임을 고증하자 毛奇齡은 이에 반박하고 비판했지만 閻氏의 고증에 대적하지 못했으므로 위작이라고 확정되었었다. 尙書古文이 僞作이라면 僞書에 근거해서

人道心을 거론하였기 때문에 宋儒의 人心, 道心說이 기초로부터 동요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²⁶⁾ 특히 老論界 김정희가 그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김정희는 이렇듯 문화 전반, 특히 學問과 藝術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적 친분으로 간곡히 당부하거나 白破나 李源祚와의 경우에서 보듯 論爭하는 방법에 의존,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었다. 특히 그의 學問的 論爭은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근거하면서 한편으로는 學術論爭을 통한 자신의 유배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대체로 學術論爭은 쌍방이 지니는 주장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면서 상대방의 理論的 主張을 깨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長點은 더욱 발휘되고 短點은 천하에 공개된다. 이것은 학문의 발전에 매우 귀중하다. 더욱이 논쟁의 초점을 세상에 내걸어 공표하는 문제는 논쟁의 커다란 공헌이다. 무엇보다 김정희의 공헌은 논쟁의 초점을 제주인들에게 공표함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하는 論爭精神을 발휘시켰다는 사실에 있다. 근본적으로 그의 관심은 비록 동양문화권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중국문화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조선의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에서였으며 더 나아가 제주도와 같은 낙후된 지역의 낙후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같은 김정희의 興學敎化의 노력으로 제주도에서는 實學의 본위기에 입각, 敎學的 刷新의 契機를 맞게 된다.

26)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李基東, 崔一凡 共譯, 서울: 驢江出版社, 1978.

4. 斥邪衛正의 展開

(1) 斥邪論의 意味

19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조 정치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아 점차 질서와 균형을 상실해 가며 악화일로에 길을 걷고 있었다.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요소들 사이의 相互 牽制와 均衡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했던 체제의 安定은 급속하게 와해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하여 조선조 체제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斥邪衛正論은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서의 正統性理學의 문맥에서 조선조 정치체제의 保衛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었다.

이러한 척사사상의 이론적 기수는 李恒老(1792~1868)와 奇正鎭(1789~1876)으로서 그들의 척사논의에서 정통적으로 나타나는 철학적 기초는 강력한 主理論(또는 唯理論)인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조선조 정치체제의 대외관계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조선조의 體制保衛라는 실천목표와 연결되어 있던 척사논의는 理尊氣卑의 논리에서 조선조의 체제와 문화를 理로 보고 외세를 氣로 보는 自尊的 意識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기정진의 唯理一元論的 斥邪 논의는 그뒤 사상사적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李恒老의 主理二元論的 斥邪 논의는 그의 문인들에 의해 이어지며 특히 崔益鉉(1833~1906) 등에 의해 斥邪運動으로 확산되었다.

제주도에 척사위정론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최익현의 제주유배가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주요한 동기는 많은 濟州文士들이 出陸하여 직접 奇正鎭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은 데서 기인된다. 유배인들의 영

향에 의존함이 컸던 조선조의 제주도 교육은 그러나 후기에 들면서 질적으로 새로운 변모를 하게 된다. 즉 出陸에 의한 直接修業(執贊)을 통해 많은 濟州文士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조선조 교육 전반에 걸친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濟州教育史上 하나의 轉機를 이루게 된다.

(2) 崔益鉉의 流配와 教學活動

이항로의 척사론이 최익헌에 의해 척사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丙寅洋擾(1866)와 丙子修好條約(1876)이 계기였다. 이로부터 척사론은 西學에 대한 이론적 비판의 단계를 넘어서 倭洋이 一體라는 인식 위에서 침략적 외세에 대한 항쟁의 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個性을 강한 실천적 의식으로 개진시키고자 했던 최익헌은 사상적 전환의 와중에서 大院君을 탄핵하는 내용의 疏狀을 올린 것이 동기가 되어 高宗 10年(1873) 12월초 제주도 유배를 당하게 된다. 이 때 그의 나이는 不惑의 문턱에 들어서 사상적 활력이 가장 만개하였을 41세였으며 최익헌의 유배로 인해 제주도는 척사론의 大河의 맥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당시 최익헌에게 있어 학문하는 이유는 「학문을 하는 뜻은 의리를 밝혀 그 몸을 닦은 뒤에 미루어 사람에게까지 미치려 함이요, 한갓 博覽強記에 힘써 문장으로 이름이나 날리고 녹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²⁷⁾라고 하여 학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義理의 실현에 두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義理思

27) 『退溪全書』上 「古昔聖賢 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 爲詞章 以釣聲名取利祿而已」

想은 宋時烈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丙子胡亂 이후 排清崇明에 입각한 송시열의 의리사상이 당대의 지상명제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崇明論은 事大意識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 비하여 최익헌의 斥洋, 斥倭論은 사대의 전제를 벗어나 민족자존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리사상의 순수한 발휘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몽주의 節義精神과 조광조의 道學思想 그리고 조헌의 절의정신을 승계하는 송시열의 春秋大義에 입각한 尊王攘夷의 의리사상은 이항로를 통해 최익헌에게 승계됨으로써 이른바 의리론의 정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適所에서 최익헌은 송시열의 글에 깊이 천착하였다. 校宮에 간직된 『尤菴集』을 빌어 潛心玩索하는가 하면²⁸⁾ 『橋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을 통해서도 송시열의 공로가 홍수를 다스린 중국의 禹王보다도 월등하다고 자신의 淵源을 송찬했다.²⁹⁾ 流配漢詩 「掛弓軒次板上韻」을 통해서도 송시열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표시한다.³⁰⁾ 同門인 金平默에게 보내는 유배서간에서는 宋書(송시열의 편지)를 두어 달 가까이 보고 있노라고³¹⁾ 하였고 큰아들에게는 『宋子大全』을 보니 지나간 세월만 허송하여 건문이 얇은 것이 날로 부끄럽다³²⁾고 토로하면서 송시열에 대한 그의 깊은 경외감을 드러낸다.

최익헌은 제주도에 園棘安置되어 資益(친구간에 학문을 면려함)할 길이

28) 崔益鉉, 前揭書, 「校宮所 尤菴集一帙潛心玩索」.

29) 上揭書, 「惟宋文正命世英豪陰陽剖判兩殷一刀窟麻京周祖述考亭全體大用宇宙塞充黑水醜禍蔑禮毀經謂朱可侮謂聖可名樹黨植朋幾覆宗枋先生是懼 攘廓清砥柱頹 功 抑洪非一人私爲天下公」.

30) 上揭書, 詩, 「巴翁當日事徒激後人衷」.

31) 上揭書, 答金重庵, 乙亥, 八月十三日, 「生妄以宋書近數朔掛目」.

32) 上揭書, 答榮祚 甲戌 4月10日 「余閑中看宋書日愧前者浪度賤之爲見也」.

없었기 때문에 그 초조감이 컸었다. 하여 그는 「스승을 가까이하고 벗을 사귀면서 지혜와 견식을 넓히지 못하는 듯하니 그 낭패를 말할 수 없다」³³⁾고 큰아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낭패감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제주문사들과의 관계를 폭넓게 갖게 된다. 제주도에서 최익현의 初傳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金義正, 安達三, 姜基奭, 金龍徵, 金壘, 金致鎔, 金養洙 그리고 李基璫, 姜哲鎬 등이다.³⁴⁾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최익현의 지적대로 왕래종유했던 문사들이며 실제 최익현 자신이 門人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최익현의 師友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는 김희정이 유일하다.³⁵⁾

5. 濟州學人

(1) 李漢雨의 從遊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從遊했던 제주문사들 가운데 비교적 학문됨이 컸던 사람은 李漢雨였다. 그는 詩에 능하기도 했었지만 많은 제자를 배출시키는 등 姜琦奭, 吳承鉉과 더불어 당대 제주의 사표였다. 安達三이라든가 金義正, 李啓徵 그리고 高永旻 등이 그의 제자들이었다. 조선 말기 제주도에서 道學으로는 안달삼을, 詩學으로는 김희정을 南洲 제일인자로 손꼽았을 정도이고 보면 그들의 스승이었던 이한우의 교육적 위상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안달삼과 이계징은 후일 장성에 사는 蘆沙 奇正鎭을 찾아 문하생이 되고 김희정은 勉菴 崔益鉉이 제주도에 유배왔을 때 門人이 되기도 하지만

33) 上揭書. 答榮祚 甲戌 10月20日 「親師就友以進知見則其爲我損不 可訖也」

34) 上揭書. 年譜, 癸酉, 12月. 「島中文士金義正姜基奭金龍徵金壘金致鎔金養洙諸人往來從遊」 李基璫과 姜哲鎬는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것임.

35) 尹榮善, 前揭書. 卷下.

그들의 학문적 기초는 모두 이한우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그의 학문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건대 이한우가 김정희와 종유할 당시 이한우의 학문적 수준은 이미 크게 이루어진 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學人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의 해후일 수밖에 없다. 이한우의 「題秋史先生壽星草堂」이라는 시에 그런 분위기가 가득 담겨 있다.

千里南溟一草堂	천리 밖 남쪽 물가 초가집 한 채
聖恩許見壽星光	임금님은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셨네
孤衷夜夜焚香坐	밤마다 외로운 마음 향 사르고 앉아
感泣頭邊白髮生	흐느껴 울 적마다 흰 머리털 늘어 ³⁶⁾

이처럼 김정희 인격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한우는 김정희를 崇仰하게 되었으며 김정희 또한 이한우에게 그의 적소이자 窮理의 産室인 壽星草堂을 개방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하였기에 김정희와 이한우는 함께 哲學하는 同道의 知己일 수 있었다.

(2) 安達三의 仲裁

安達三은 이한우에게서 첫 수업을 하고 출륙을 하여 장성의 기정진 문하에서 공부하게 된다. 특히 그는 心性論의 논구에 주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四端七情論 문제에 주력하게 된다. 四端七情論이란 주지하다시피

36) 吳文福, 前掲書, p.75.

退溪에서 비롯된 心性에 대한 이해의 방법으로 당시 奇大升과의 사이에서만 도 왕복서신으로 8년 여에 걸쳐 논변을 벌였으며 그 뒤로는 한국의 온 性理學界가 3세기 여에 걸쳐 열정적으로 이를 논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논구로 해서 四端七情論은 한국철학의 한 특색을 이루게 된다. 安達三은 「四端七情이 같음은 그 마음이 發한 것이니 端을 넷으로 말하고 情을 일곱으로 이름하니 무슨 까닭인가」³⁷⁾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四端과 七情이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다만 부분적인 情이나 전체적인 情이나의 차이에 의할 뿐이며 따라서 四端은 七情의 범위를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四端과 七情을 대립적인 관계의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인식은 退溪의 전통인 理氣互發的 立場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奇大升의 理氣兼發的 立場에 가깝다. 따라서 安達三은 退溪의 主理論的 見解를 답습하면서 主氣論的 見解를 배격하였던 스승 奇正鎭과는 대치되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달삼의 사단칠정에 관한 의문에 대해 기정진은 「四七은 비록 숫자 항목이 되나 네가지 덕목의 四와 일곱가지 情理의 七은 그 내력과 경중이 같지 않다」³⁸⁾고 理一分殊의 입장을 천명하게 된다.

안달삼은 「陰陽의 物性的 意味」³⁹⁾에 대해서도 논구하였는데 이 또한 그의 主氣論的 關心의 일단을 엿보여주는 예이다. 이로 보건데 그는 奇正鎭의 문하에서 主理論的 傳統의 가르침을 받기는 하였지만 主氣論에 대한 관심이

37) 奇正鎭, 『蘆沙集』. 「四端七情同是此心之發而端以四言情以七名何也」

38) 上揭書. 「四七雖同爲數目而四德之四七情之七其來歷輕重適然不」

39) 上揭書. 「陰陽之物性味之偏」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일 安達三의 後孫들이 보여주는 唯物論的 社會思想의 개진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그의 主氣論的 關心은 家學的 傳統으로 계승되고 후대에 들어 唯物論的 思考方式으로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관심에 대해 기정진은 「陰陽이 비록 큰 구분이 있으나 또한 서로 떨어져서 얻지 못하니 무릇 이르기를 陰物陽物이라는 것은 그 큰 구분을 좇아서 말한 것이지 단지 陰陽을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⁴⁰⁾라고 하면서 太極은 理이며 陰陽은 氣라는 세계의 시원적 실재로서의 理의 일차성을 설명해준다.

교육과 관련한 안달삼의 관심은 「道는 古今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데 古今에 다르게 보이니 이는 어떠한 까닭인가」⁴¹⁾하는 道德教育的인 問題였다. 이것은 그가 道를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의 상대주의적 견해를 표명하는 물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요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道를 절대적인 天理로 규정하여 결국 번식한 봉건적 도덕질서를 합리화하였던 기존의 사회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된 것으로 安達三의 진일보한 윤리도덕적 견해를 대변함과 동시에 조선후기 사회질서의 갈등을 시사하는 예이기도 하다.

안달삼은 제주도에서 돌아와 訓學을 하게되면서 유배 중이던 최익현과 교본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때 그는 스승 기정진의 글을 최익현에게 보여 줌

40) 上揭書, 「陰陽雖有大分亦相離不得凡曰陰物陽物者從其大分而言也非獨陰孤陽之謂」

41) 上揭書, 「道無古今之異而古今異宜何也」

으로써 기정진과 최익현의 만남을 증재한다. 즉 최익현은 안달삼이 가져온 글을 보고 「이는 우리 화서 선생의 旨訣과 대략 비슷하다」⁴²⁾ 하고 謄抄하여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정진의 글을 보관케 되는데 解配가 되자마자 장성에 들려 기정진을 뵈고 안달삼으로 인한 ‘은혜로운 만남’을 증언한다. 하여 최익현은 「내가 제주에 있을 때는 한라산을 보았고 장성을 지날 적에는 기정진을 뵈었다」⁴³⁾고 토로하게 된다. 즉 최익현은 일찍부터 기정진의 명성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학문을 구체적으로 접한 적이 없다가 제주도에서 만난 안달삼을 통하여 기정진의 글 수십 편을 읽어 보고는 자기의 스승인 李恒老의 학설과 흡사하여 기뻐한 나머지 두 권의 책으로 베껴서 가지고 있던 중 해배가 되자 장성을 지나며 기정진을 직접 뵈고 송모의 정을 토로했었다는 말이다.

기정진이나 최익현과 같은 거유들과 직접 면대할 수 있었던 안달삼으로서 그는 그의 학문의 폭도 깊고 넓어 道學의 南方師表라 불림을 받았으며 그의 학문은 아들 安秉宅에게 家學으로 계승되고 안병택은 부백심이나 김석익, 김군배, 양찬휴, 현상희, 양성하 등의 제자들을 가르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도의 큰 學脈을 형성하게 된다.

(3) 李基溫, 李應鎬 父子

최익현은 제주유배시 漢拏山에 깊이 매료되었었다. 流配漢詩를 통해서도 漢拏山에 대한 애착을 토로했으며 특히 해배가 되자마자 한라산을 유람

42) 崔益鉉, 前揭書「此與我華西先生旨訣六略相似」

43) 上揭書, 上奇蘆沙正鎮 乙亥 9月14日「吾在濟州見漢拏過長城誇奇丈席」

하고 「遊漢拏山記」를 쓰기도 하는데 이후 친구들에게 유배기간의 소독으로 漢拏山을 본 사실을 누누히 강조했었던 점에 비추어 보자면 그의 漢拏山에 대한 매료가 지극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형에게 보낸 유배서간에서도 「한라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⁴⁴⁾라고 전하면서 漢拏山과의 인연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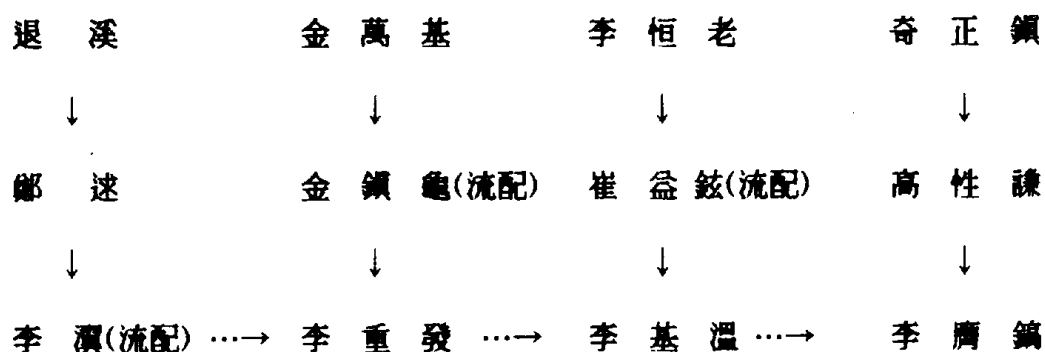
그런데 그러한 인연의 성사에는 이기온 등 제주인들의 도움이 컸다. 蘇東坡가 惠州에 유배시 白水山을 여러 知己들과 유람하였듯이 최익현 역시 제주문사들과 동행하여 한라산을 유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師弟同行이라고 하는데 옛 선비의 사제관계는 오직 師弟同行이라는 「서로 만남」 속에서야 비로소 心許하여 終平生 事之, 私淑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제동행은 운명적이고도 돌발적인 하나의 “事件”이었던 것이다.

최익현과 이기온의 師弟同行은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가운데 의미있는 일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의미를 기리는 흔적으로 文淵社라는 유적이 있다. 1931년에 만들어 진 文淵社는 최익현과 이기온의 遺德을 추모하여 매년 正月 중순에 향사하는 제단으로서 이 文淵社祭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연사의 옛 터에는 최익현이 직접 식수한 古木이 있으며 이기온이 최익현을 사모하여 刻石한 「師長樹抱且拜」라는 글이 남아 있다. 이러한 文淵社祭와 같은 행사는 제주유림들에게는 위대한 師表의 상징이자 覺醒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기온, 이응호는 조선 중기 光海君代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유배당했던 艮翁 李瀾의 후손으로서 서로 父子間이다. 이러한 이기

44) 上揭書, 答伯從兄 甲戌 11月 7日 「漢拏山緣是豈容易者耶」

은, 이응호의 家學的 傳統은 제주도의 특이한 교학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이익으로부터 비롯된 嶺南學派의 學風이 후기에 들면서 자연스럽게 畿湖學派의 그것으로 변모되고 있는데 물론 이 변모의 과정에는 어떤 유배인과 접촉을 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서 그 양상이 변모하여 제주문사의 출륙이 제주의 교학질서 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는데 李膺鎬의 경우는 그 두 가지 영향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예이다.

결국 이응호의 학문은 조선 후기 척사론의 鉅儒인 기정진과 최익현으로부터 승계된 것으로서 강인한 저항성을 기조로 하는 척사론의 정통맥락에 닿아 있다. 그의 「吊吳君大鉉斥洋教」라는 漢詩가 이 분위기를 잘 대변해 준다.

耶教比年漸南海 근년에 야소교가 남쪽으로 번져와서

三君起義盡誅除 삼의사가 의병을 일으켜 모두다 베어냈다

斥邪旌號非吾道 우리 도가 아닌 사특한 무리를 물리침을 명분으로 하였고
 誓衆兵威讀古書 옛책을 읽은대로 많은 이들에게 맹세하여 병위를 떨쳤다.
 思到龍溪堪作傳 용수의 일에 생각이 미쳐 會民 이어짐이 일어 났고
 抑如鴻水永終譽 홍수를 다스린 것과 같은 명예는 영원히 끝나 버렸으나
 子與千載猶還魄 그대들의 영혼은 오히려 우리 곁에 돌아와 있어
 不愧轉朝望漢杼 대한제국 조정에서 한라산 보기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⁴⁵

이 시는 천주교도들과 제주도 민중 사이에 충돌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와 제주도 近代史의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李在守亂 또는 聖敎亂으로 불리우는 1901년의 농민항쟁에 대한 것이다. 이응호는 이 사건이 프랑스 신부의 교회권력과 봉세관의 위세를 이용하면서 온갖 횡포를 부린 교도들의 소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면서 이에 맞서 일어난 吳大鉉, 姜遇伯, 李在守 소위 三義士는 正義에 입각하여 민중의 민생과 인권을 싸움으로 지킨 제주인의 자랑스런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會民 즉, 의병에 대한 강조는 李膺鎬의 斥邪論의 立場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응호의 문하에는 고지규, 고사규, 고경수, 고영중, 강병일, 오인환, 강태홍, 고대종, 고경준 등이 함께하고 있었으며 이는 제주유림의 가장 굵은 學脈이기도 하였으며 조선후기 제주 교육사상사의 震源이었다.

45) 吳文福, 前掲書. p.170.

第4節 朝鮮末期 教育思想史

-近代教育의 選擇受容期-

1. 末期의 主題의 特徵

조선 말기는 이른바 開化期라고 명명되는, 1876년 開港으로부터 1910년 日帝에 의해 國權이 침탈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는 종래의 유교적 전통의 제약 속에서 소수의 開化思想家들이 서구의 新文化를 섭취하려는 의도에서 近代教育運動이 전개되었으며 이어 근대적 교육사상의 형성과 그것이 대중속에 침투함으로써 大衆的 教育運動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타의 시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제주도에서는 舊教育體系가 상당히 정비되어 近代教育體系가 성립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대교육사상은 조선후기에 들어 발흥된 제주 교육의 自生力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유배된 開化思想家들의 교학활동에 의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穩健開化派로서의 金允植과 急進開化派로서의 朴泳孝의 교학활동이 더불어 주목된다.

2. 濟州近代教育의 胎動

(1) 近代教育의 開眼

開化至上主義는 教育至上主義와 동의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胎動은 제주인의 變革性과 健康性을 바탕으로 한 제주인의

教育的 主體力과 함께 甲午更張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제도 개혁 요구와 시행에 힘입은 바 크다. 제주인의 교육적 주체력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의 樣態에 저변적 이데올로기로 자리함으로써 비단 근대교육의 開眼만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율적이었던 타율적이었던 봉건사회 제도에 일대 변혁을 시사한 갑오경장 등의 영향은 제주도 근대교육의 추진에 결정적인 動因이 되었다.

제주도에서의 근대교육은 尹元求가 濟州郡守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부임하자 근대학교 설립을 서둘러 1907년 봄에 普通學校를 摠物堂에 설립하였다가 濟州牧 客舍였던 瀾州館으로 옮겼고 1908년에는 橘林書院의 자리에 지금의 濟州農業高等學校 전신인 중등교육기관 義信學校를 설립, 개교하였다. 白日場을 주재하여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연소자는 보통학교에 입학시키고 연장자는 의신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8천원의 거액을 보조해 왔고 교장은 양교 모두 尹元求가 겸임하였다. 이밖에 近代女性 教育機關으로는 1909년 10월 천주교신부 具瑪瑟이 설립한 晨星學校가 효시이다.¹⁾ 이러한 제주도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은 역사적 대세이며 시대적 변화의 추세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1870~1910)에 설립된 제주도 근대교육기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濟州道教育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史』. 濟州: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參照.

西紀年	主 要 事 項	地 域	비 고
1891	七峰書塾	吾 羅	
1898			金允植 流配
1903	義貞學塾 日語學堂	朝 天 濟 州	1907年 閉鎖 日人 開校
1904	文陰書塾	吾 羅	七峰書塾 改稱 1915年 閉鎖
1905	開成學校	大 靜	
1906	濟州高等尋常小學校 新明私塾 進英私塾	濟 州 朝 天 下 楸子島	
1907	義明學校 濟州普通學校 漢一學校	城 邑 濟 州 大 靜	朴永孝 流配
1908	義信學校	濟 州	
1909	晨星女學校 旌義公立普通學校 朝天義塾	濟 州 城 邑 朝 天	1916年 閉校
1910	永興學校 公立濟州農業學校	濟 州 濟 州	夜 間 義信學校 母胎

이들 가운데 七峰書塾에서 개칭된 文陰書塾은 李膺鎬가 개설한 것으로 그 교육체제는 척사위정의 논리를 밑바탕으로 한 漢學訓導가 강조되었다. 전통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희실되어가던 1900년대 초반에도 전국에 걸쳐 많은 수의 書堂이 있었고 제주도에도 그러한 것을 보면²⁾ 韓末에 들어서도 여

2)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道-』 1929. pp.144~7을 參考하면 이 당시만 하여도 道內 25개의 書堂이 散在해 있었고 學童數는 730여명에 이르렀다.

3) 당시 公立普通學校는 9교, 34학급, 아동 수는 2499명인데 반해 개량서당은 47개교, 아동 수는 3432명이었다.

전히 서당은 보편적 교육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교육의 배경에서 당시 민중들의 전통지향성이 어느 정도 강력했고 또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교육을 위해 개설된 七峰書塾의 사상적 배경을 東道東器的이라고 한다면 한 학혼도는 하였지만 제주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화의 풍모에 대한 정보가 밝았던 朝天 지역의 新明私塾이나 朝天義塾의 사상적 입장은 東道西器的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新學問의 도입이나 新文化의 전파로 新式教育의 초보를 다져 나간 李在喬 설립의 開成學校나 漢一學校 또는 義明學校 등은 西道西器的의 맥락에 닿아 있었다. 이같은 改良書堂은 특히 3.1 운동 직후 많이 설치되어 公立學校에 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립학교와 유사한 敎科課程을 가르쳤으며 자금은 수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1924년 당시 개량서당은 공립학교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었다.³⁾

이와 함께 주목을 요하는 것이 日人 原某教師에 의한 日語學堂의 개설이다. 제주도와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밀접하였는데 일본어민이 제주도 漁場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879년 이후의 일로서 이것은 朝·日 通商章程 및 朝·日 通漁章程 등의 불평등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더욱 증대되어갔다. 더구나 이러한 일본어민의 어장침탈에는 제주도민에 대한 도둑질, 강간, 살인 등의 만행이 부수되기도 하는 등 악탈적, 폭력적 성격이 농후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의 原始的 蓄積의 強制的 創出이라는 일본 자본주의 조 건속에서 파생된 朝鮮侵略의 특징을 이룬다 하겠다. 특히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 후 日人들의 호남에서의 활동은 목포항을 중심으로 가속되어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日人들과의 접촉이 빈번하여졌다. 더욱이 그러한 접촉의

연장으로 渡日하는 제주인들의 수요도 점차 늘어감에 따라 日本語의 필요성을 실감하기도 했거니와 일본의 조선침략계획의 하나로 일찍부터 실시된 言語政策 때문에 日語學堂의 개설은 개화기 초기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1906년 下楸子島에 개설된 進英書塾에도 日人 內村德平이 일어교육에 임했었고 1908년엔 日人 승려 武田賢정이 禾北에서 新式學校를 개설하여 일본어와 산수교육을 실시하다가 일년 후 朝天으로 건너가 그 지방의 일어교육에 임하였다.

전통적 교육이 제도상으로 부정을 당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의 일로서 따라서 개화기에는 新式教育에 입각한 많은 학교가 설립된다. 이러한 학교 설립은 전통적 교육기관과는 달리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經濟力이 있는 자는 政府를 제외하면 貴族이나 官僚, 大地主와 같은 韓人支配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계 宣教師의 外來資本뿐이었다. 그런데 제주도 대부분의 근대학교는 政府主導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는 李在喬의 학교설립과 같이 個人主導의 차원에 의한 것이 많았는데 또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듯 주민들의 자발적인 衆力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던 예는 제주도의 경우 비일비재하다. 이를테면 禾北學校의 설립이 그 단적인 예이다.

禾北의 주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新知識을 교육시킬 필요를 알게되자 마을 유지들은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누구나 자기의 경제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약간씩의 성금을 모으고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터를 닦고 出力을 하여 校舍를 지었으며 마을의 몇 안되는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 教師가 되어 마침내 주민들의 힘으로 禾北學校를 훌륭히 설립하였던

것이다. 화북의 주민들은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고 成人들은 화북학교 안에 다시 夜學을 개설, 공부를 하였는데 이 화북학교를 일제당국이 무상으로 접수한 것이 오늘의 禾北國民學校이다.⁴⁾ 화북학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衆力을 모아 세운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학교의 설립보다 그 의의가 크다.

외래자본에 의해서는 개신교계 보다 카톨릭계에 의해 麗星女學校가 개교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선교사에 의한 학교의 설립은 개화기의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육지부에서는 개신교계 학교가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많이 설립되지만 제주도에서는 개신교계 학교는 없고 宗教界 學校로는 카톨릭계가 설립한 新星女學校가 유일하다. 개신교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카톨릭의 교육사업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1901년의 제주도 辛酉民亂으로 인한 카톨릭의 波瀾이라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카톨릭계의 신성여학교가 개교되었다는 것은 제주 교육사에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카톨릭의 教育事業과 文化活動이 지향하는 相扶相助의 활동정신은 제주도 여성 특유의 전통적인 自主的 品性과도 일치되는 바가 없지 않아서 제주도 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촉구함에 있어서 신성여학교가 수행한 선구적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제주도 근대학교 설립에 있어 또 하나의 주목되는 점은 근대학교 설립의 기초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接이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接이라 함은 원

4) 白子勳, 禾北里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耽羅文化』 第10號,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0. 參照.

拙稿, 禾北의 教學文化, 『耽羅文化』 第8號. 參照.

래 글방 학생들이나 科擧에 응하는 儒生들이 모여 이룬 동아리를 뜻하나 제주도에서의 接이란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조직인 契를 지칭하는 다른 말로 쓰인다. 따라서 接은 契와 마찬가지로 洞里의 공공사업의 수행이나 공동 경비의 마련 같은 洞里의 공공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목적을 지향하였다. 제주도에서 接의 教育的 活用은 동리의 제반 書冊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冊接”이나 서당교육을 위해 결성되어진 “講學接”이나 혹은 “門人接” “慕賢接”과 같은 구체적 교육목표를 소지한 契 共同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근래에 세태가 맑지 못하여 글을 읽는다고 하면서 더러는 궂언을 피우고 … 어린애들에게까지 물들여 가니 … 만약 궂언을 피우고 도박하는 자는 학비낸 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책을 꾸러 내쫓는다」⁵⁾와 같은 나뉠대로의 接의 教育的 規約이 있었다. 근대학교의 설립에 즈음하여서는 그 設立資金이나 補助金 마련을 위해 接의 역할이 적절히 활용되었었다. 그 역할은 接의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이나 接의 공동 노동력을 통해 학교건립에 出力하는 경우 등 여러 양식을 띠고 있었으며 특히 接의 재산 기부에 있어 비록 接의 재산이 共同財産이기는 하지만 원래 개개인의 출자에 의해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그 처분이 개개인의 이익과 결부되는 성격의 것임을 생각할 때, 그 재산을 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했다는 사실은 당시 근대학교 설립에 대한 熱意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짐작케 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5) 「右立論事殷近來世態不淑以讀書爲名或吸卷烟…染化幻稚…若有吸卷烟貝者口者失其束修抱其書冊出斥事」戊申,十二月,十二日,夜.

(2) 胎動의 思想

教育思想史的 側面에서 제주도의 근대교육의 開眼에는 유배인들의 開化 敎學活動의 공헌도가 컸다. 즉 유배인들의 개화교육활동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제주도 근대교육의 추진에 動因이 되었으며 제주도 근대교육을 광범위하게 구체화하는 展望을 열었다는 말이다. 특히 이 시기의 유배인이었던 金允植과 朴泳孝는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와 관리임용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광범한 學校教育 전개를 전제로 開化運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배기간 중의 활동은 제주도에 서의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의 발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들 유배인과 관련하여 개화사상의 전개과정에서 주목되는 濟州人으로는 洪鍾時, 金膺銓, 金膺彬, 등이 있다. 홍종시는 김운식이 유배되어 詩會를 주도하자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는 조선후기의 제주도 衺巷文化運動을 계승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즉 홍종시는 書法과 篆刻 등에 있어 「秋史淵源 書法入神」이라는 世評이 시사하듯이 조선후기에 들어 제주도에서 김정희의 교학활동을 비교적 제대로 계승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이다. 김운식은 그와의 첫 만남에 대해 「첫 대면 때 집에 많은 書畫를 갖추고 있어 가히 그 風雅한 인품을 알 수 있었다」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박영효와도 친교가 밀접하였다. 이렇듯 김운식, 박영효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는 일찍부터 개화사상에 공명하게 된다.

6) 金允植, 『續陰晴史』 「本府洪鍾時家蓄書畫頗富可知其風雅也」

1923년 육지부에서 民立大學 設立運動이 전개되자 제주도에서도 期成會가 舉島的으로 조직되어 1923년 6월 창립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홍종시는 執行委員으로 참여하는 등 제주도 教育殖産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물론 이런 일이 홍종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몇몇 開明的 제주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로서 그만큼 제주도에서의 개화사상은 共鳴의 폭이 좁지 않았다.

이들 제주도의 개명적 지식인들은 教育을 통해 그리고 産業의 발전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쌓아야 하겠다는 實力養成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啓蒙運動을 열렬히 전개하여 제주인의 각성에 노력하는 한편 私立學校 개설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로써 제주도 각지에 私立 普通學校, 改良 書堂, 義塾, 夜學이 속속 설립되었다. 전 조선적 차원의 교육운동이었던 民立大學 設立運動도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거도적으로 기성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階級的 位相은 그 대부분이 제주도 有志 즉 民族부르조아로서 부르조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日帝의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協助와 癒着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적 경향은 본질적으로 對日 妥協主義 路線의 민족부르조아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잠재되고 있었다.

金膺銓, 金膺彬, 등도 역시 김운식이 주도했던 詩會의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박영효와의 관계도 돈독했었다. 김응전과 김응빈은 형제간으로 제주도 朝天지역에서 위세가 컸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金膺彬은 미역 등 海産物 장사를 하여 벌어들인 財富를 바탕으로 고착된 신분의 벽을 깨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으며 중앙을 왕래하며 世態의 변화를 누구보다 실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先進文化를 체득·수용하는 문화수입

의 전초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응빈은 자신의 집을 김운식의 적소로 배려하였던 것이다. 김운식은 다른 어느 유배인보다도 高位政客이었기 때문에 김응빈의 이해관계는 밀접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무엇보다 解配 後의 조정복귀에서 오는 이해가 그런 관계를 가능케 했었던 動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운식은 자신의 적소로 정해진 김응빈의 집으로 옮겼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려 채로 된 집은 텅 비고 넓어서 화려하며 책갑과 탁자도 깨끗하다.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의 뜰도 있어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주인은 각별히 잘 대접해 주며 음식도 풍부하고 정갈하여 입에 맞다. 죄다 변화한 서울의 재미와 다를 게 없어 적객이라는 신분을 돌아볼 때 너무 분에 넘치는 것 같다」⁷⁾

조선 후기 商品貨幣經濟의 발전으로 계급이 분화되고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던 육지의 상황과는 달리 제주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약간의 自作과 거게 小作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地主와 賃勞動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 貧農層으로서 수산업, 목축업 기타 부업을 겸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운식을 보호한 김응빈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장사로 富를 축적하여 신분상승을 꾀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결국

7) 上揭書, 卷上 「第舍寬敞華好几案潔淨又有花園散步之處主人接待 良厚供饋豐美適口無非京華滋味謫客身分還爲過濫矣」

자신의 理解管理를 위해 유배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김운식의 경우가 그렇듯이 유배인들은 그들의 이해관리에 동참함으로써 유배지에서의 안정된 日常을 擔保받았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 말기에 들어 일부 유배인과 제주도의 세력기반이 서로 연대를 도모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노골적인 偏頗性을 노정시킨다. 이를테면 1898년 2월에 租稅收取 문제로 南學徒 房星七이 亂을 일으키자 그들은 김운식 등의 유배인과 연합하여 反軍을 구성하는데 김응빈이 진두 지휘를 맡게 된다. 그러나 방성칠 등의 南學黨이 선제공격을 해와 反軍은 별다른 싸움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고 朝天 일대의 양반촌은 대규모 피해를 입고 만다.⁸⁾ 이 사건은 제주도에서 유배인들의 위치와 그들 활동의 방향 및 한계를 보여주는 實例이다. 나아가 그들의 개화교학활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선조 階級偏頗教育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졌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김응빈의 경우에서 보듯 결국 조선후기 이후에 들어 급속히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적 변화,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연유된 기존 신분질서의 해체 등은 그 동안 사회의 상부구조로 기능해 온 儒敎主義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조선봉건왕조가 내포하고 있었던 모순과 분열들을 극대화시키고 현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주의의 위기는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 유교주의가 적합한 가치체계인가 하는 適合性의 次元과 유교주의가 주어진 환경과 역사속에서 축

8) 上揭書. 參照.

玄基榮, 『邊方에 우짖는 새』 서울:創作과 批評社, 1983.

적된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적 전통인가 하는 正體性的의 次元 그리고 문화유형들간에 일정한 정도의 일관성을 갖고 있고 하위집단의 하위문화들간의 차이가 전체문화의 통합된 체계를 지나치게 위협하지 않는가 하는 統合性的의 次元에서 근본적인 물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실상 지배계급의 일방적인 強制와 統制에 의해 유지되어온 性理學的 教育理念은 조선후기 이후의 변화된 조건 아래서는 더 이상 교육의 주도가치로서 기능하기 어려웠던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김응빈 등의 개화파들과의 접촉은 그것이 그들의 이해관리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近代教育의 思想史的 試案이라는 점에서 다른 意義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김응빈과 김윤식의 관계라는 것이 비록 제한적이며 편파적이긴 하지만 사실 人間의 相互關係라는 내용이 그러하듯 그들의 관계 자체나 후대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單線的이라기 보다는 보다 複合的이며 構造的이다. 즉 이들의 관계도 따지고보면 그 연원이 조선조에 들어 시작된 여러 유배인과 제주인들과의 교육관계로서 師友講習의 전통에 기인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통의 정신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해 봄은 곧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의 고유한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원래 유배는 일종의 政治鬭爭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유배인들의 정치성향은 反體制的이기 십상이다. 비록 그러한 성향의 표출이 노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배생활의 저변 분위기는 政治的 葛藤과 무관할 수 없었다. 그러한 反體制性은 홍유손이나 김정 혹은 김춘택과 같은 유배인들의 扱進的 政治性向과 그것의 挫折 과정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유배인들이 제주도의 儒生들 또는 민중들과 협력하여 반란사건을 기도

하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후자의 경우 제주도를 반란의 음모지로 선택한 이유는 絶島이므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과 원래부터 제주인들은 본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 그로인한 조정의 차별대우에 제주인들의 원성이 크다는 점 이밖에 京來官들의 폭정들을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제주인과 유배인 서로의 바램이 일치되었고 종내는 運動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에 제주인과 유배인은 반체제성을 共有하는 집단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유배인들의 반체제적 성향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제주인만이 아니라 그들의 家系를 통해 혹은 제반 환경을 통해 계승되었는데 다른 무엇보다 敎學活動은 그러한 계승력을 확보할 수 있는 最適의 構造였다. 특히 유배인들의 제주생활은 교학활동을 媒介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反體制的 理想主義的 성격을 띠고 있었다. 유배인들의 계급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체제적 이상주의에 바탕을 둔 교학활동 때문에 제주도에서 유배인들의 영향은 꾸준히 계승될 수 있었다. 이 때 繼承이란 전통답습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적 상황과 결부된 적극적 선택으로서 보다 광범한 共同體의 洞察이다. 이를테면 제주도 大靜地域의 叛骨的 性向이 바로 그런 예이다. 이것은 조선조 최악의 유배지였던 대정지역이 유배인들로부터 선택 가능했던 歴史的 省察이었다.

이를테면 中宗代 李世蕃의 후손인 李在喬는 제주도 대정에서 인재양성과 교육구국의 급선무를 역설하고 1905년 開成學塾을 설립하여 청소년교육에 진력하였는데 그의 노력은 제주도 근대교육의 萌芽의 先驅로서 유배인의 영향을 계승한 예이다. 특히 李在喬의 교육적 활동은 開成學校의 설립과 함께 1923년의 民立大學 설립을 위한 기성회 조직에 있어 집행위원으로 활동

하는 등 활약이 컸다. 이세번은 김굉필의 문인으로 同門인 趙光祖가 기묘사화로 화를 당하자 무죄를 伸救抗訴하다가 7년간 유배되었으며 古阜李氏 濟州入島祖로서 謫死하였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대정향교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文風을 주도하게 된다. 후손 가운데 특히 李在守나 李承珍은 先代의 반체제적 이상주의 전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들인데 이재수는 辛丑民亂의 狀頭로서, 이승진은 金達三이라는 이름으로 4.3사건의 左翼界 거물로서 활동을 했다. 이재교의 근대교육운동과 함께 이 모두는 先代의 유배영향과 관련한 활동이다.

김응빈 등의 既得權 관리로 빚어진 편파성은 3.1운동의 거족적 확산기류에 편승 1919년 3월 21일에 조천 김씨문중이 주축되어 일으킨 朝天萬歲運動을 통해 反轉되고 이것을 통해 일단 유배인의 영향력 계승으로서 반체제적 이상주의의 올바른 方向性을 시사하게 된다. 조천만세운동은 金時宇의 소기를 맞아 조천김씨의 直系親들이 비밀리에 모여 舉事를 의논한 데서 비롯되었다. 김시우는 유배인 최익현의 濟州高弟였던 金義正에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유림으로 그의 사상적 위상은 척사계열이었다. 거사를 모의한 사람 가운데 특히 金時範, 金時殷, 金章煥은 김응빈의 四寸戚들로 그들의 운동력은 김응빈 등의 편파성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를테면 조천출신의 김문준은 「3.1운동 당시에는 농민들을 지도하여 활약하면서 당시 팽창하는 항학열을 통해 청년들을 지도 조직하기 위하여 5, 6개소에 사립학교를 창설」⁹⁾ 하고 日本 오오사카로 건너가서는 노동운동을 하였는데 그러한 올바른

9) 『解放日報』, 1946年 4月 19日字.

방향성의 한 예이다.

한국의 개화운동은 1870년대의 개화파 형성으로부터 1910년 전후의 좌절에 이르기까지 高揚期와 離伏期를 거듭하면서 인맥상으로나 사상적으로 일관된 계승성을 가지고 심화, 발전하는 역사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은 開明的 兩班 小壯派를 중심으로 하는 開化運動期, 大衆的 政治運動으로서의 開化運動期, 國權回復運動으로서의 開化運動期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도 조천의 만세운동 역시 그러한 개화운동의 역사과정 속에서 표출된 사건이다. 즉, 개명적 유배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개화교학활동이 일단의 제주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이라는 것이 때로 왜곡된 흐름을 노정하기도 했지만 반체제적 이상주의의 본질적 성격이 家系의 人脈과 家學의 傳統을 통해 계승됨으로써 나아가 만세운동이라는 국권회복 차원의 운동으로까지 심화, 발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천만세운동은 유배인들의 영향이 제주사람들의 자체적인 運動的 含蓄과 연계되어 생산적으로 계승, 전개된 대표적인 反體制的 理想主義 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3. 開化思想의 展開

金允植은 北學的 學風에서 연원하는 濟國을 통한 富國強兵策의 모색에 관심을 가졌던 穩健開化派라는 점에서, 朴泳孝는 일본을 통한 개화를 모색하면서 과격한 성향을 보인 急進開化派라는 점에서 그들은 소위 '開化'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개화와 관련된 유배인이라는 것 이외의 이들의 공통점은 제주도 文風振作의 기폭을 마련하고 교학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데 특히 이들의 활동은 정통 성리학에서 연원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적

각성과 관련된 開化教育活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 穩健開化派 金允植

김윤식은 韓末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역사적 격변기에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김윤식을 온건개화파로 지목하듯이 그의 행동궤적은 급진개화파로 불리우는 일파와는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으며 淸國과의 연계선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윤식을 위시한 온건개화파는 집권층에서 소외된 가문의 壯年層으로 保守性向이 강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淸의 세력에 편승하여 갑신정변을 좌절시킴으로써 守舊派에 一助하고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에 걸친 淸의 종주권 강화와 보수파의 반동세를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행정관료로 殘存하던 김윤식은 1896년 俄館播遷에 따라 親露派 내각이 성립되자 閔妃 弑害의 음모를 사전에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탄핵을 받고 1897년 제주도 종신유배에 처해져 제주도의 民擾가 확대되기 전 1901년 6월 까지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김윤식은 유배생활을 김정희와 같은 傳統時代의 士大夫들처럼 자기 학문의 심화와 후진양성 내지는 자기 수양의 계기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의 일기 『續陰晴史』에 보이듯이 바깥세상에 온 신경을 쏟고 정세분석에 치중하는 등 이전의 사대부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른 유배생활관을 보여 주는데 이는 한말 격변기 浮沈과 榮辱의 시류적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김윤식의 제주 유배생활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시회 「橘園」의 모임과 활동이다.

「橘園」詩會는 1898년 4월 22일 김운식의 적소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유배인 7명, 제주도 거주 육지인 논객 5명, 그리고 10여 명의 제주사람을 회원으로 해서 그 해 그믐까지 20여회에 걸쳐 詩作活動의 모임을 가졌다.¹⁰ 애초 유배인들이 무료를 달랠 요량으로 추진하였던 이 모임에는 점차 詩文에 관심을 가진 제주 사람들도 가입하여 시작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 文化開發의 기폭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이 모임은 조선후기의 제주도 委巷文化運動을 계승하는 성격이 강하였으며 근본적으로 김운식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화사상의 本流를 제주도에 확산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진보성이 근대교육의 개안에 측면작용을 하였고 결국 근대교육사상을 제주도에 전파시켜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김운식의 詩作은 經術(道)이 탈락된 문장을 양산함으로써 싱겁고 氣弱한 글을 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는 國初 이래 理想이 되어온 道文一致의 정통적 문학론이 쇠퇴하였음을 뜻함과 동시에 유배적 상황으로 인한 한 지식인의 피폐한 情性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다른 무엇보다 김운식의 유배를 전후하여 빈번했던 濟州民擾¹¹들이 그의 행동반경을

10) 金允植『續陰晴史』卷上 참조. 詩會의 회원으로는 謫客으로 金允植, 李承五, 徐周輔, 鄭丙朝, 韓善會, 李容鎬, 金思燦이 있고 陸地人으로 鄭顯龜, 黃炳郁, 吳慶林, 羅寅永(詰), 柳英錫이 있으며 濟州人으로 金炳潤(胤), 金秉夏(鍾河), 金膺鈴, 金膺彬, 李肯植, 洪鍾時, 成俊鎬, 金熙斗, 崔昌淳(元淳), 金昌鎬, 張奎烈이 있었다. 金允植의 詩는 『瀟島稿』, 『詩餘學步(詞)』라는 詩集으로 文集『雲養集』에 분류, 편집되어 있다.

11) 庚寅民亂(1890), 丙申民亂(1896), 房星七亂(1898), 辛丑民亂(1901) 등의 유발이 그것이다.

제한하였기 때문에 김운식의 詩作만이 아니라 개화교학활동 등은 자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 急進開化派 朴泳孝

박영효를 비롯한 김옥균 등은 일본을 통한 개화를 모색하면서 과격한 성향을 보여 주었다는 면에서 급진개화파로 지목된다. 그들은 老論中에서도 핵심 집권층의 젊은 자제들로, 당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던 中人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들은 과격한 방법으로 일본을 통한 개화를 서두르다가 甲申政變을 정점으로 완패하여 망명 내지는 죽음의 운명을 맞는다. 박영효는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을 하였다가 갑오경장으로 일시 귀국, 그러나 을미사변으로 재차 일본에 망명을 하게 된다. 1907년 朴齊純 내각의 알선으로 다시 귀국, 죄가 용서되고 李完用 내각의 宮內大臣에 임명되었다가 高宗의 讓位에 불찬성했다는 것과 禪位 반대운동을 꾀했다는 이유로 제주도 1년간 유배형에 처해진다. 그의 禁錮刑期는 1년간이었지만 형기가 끝나도 그대로 제주도에 머물러 3년이 지난 1910년 6월에야 출륙하였다.

박영효의 급진적 개화사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는 福澤諭吉이 있다. 일본 근대화사상의 원조인 북택유길의 영향은 박영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조선 급진개화파 전반에 걸쳐 행사되었다. 특히 私學育성과 私學中立論은 북택유길이 거둔 최대의 교육적 성과인데¹²⁾ 이러한 教育啓蒙主義的 影響이 박영효 등의 개화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12)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編 『教育思想家評傳』 서울:教學研究社, 1987. pp. 178~197.

박영효의 제주 유배생활에서 행해진 개화교학활동은 園藝農事와 관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전체 경지면적중에서 畵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지역으로 大麥과 조(粟)가 대표적인 작물이었다. 그런데 박영효는 제주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풍토 등을 고려하여 일반농사보다는 특수 園藝農業이 적합하리라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과수를 심고 원예작물을 재배하였다. 이는 20여 년의 일본 망명생활에서 얻은 見聞覺知의 결과이다. 감귤류를 비롯하여 감, 비파, 대추, 석류 등 과수와 양배추, 양파, 토마토, 무우, 당근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했는데 더러 실패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공율이 높은 편이었다. 박영효는 재배에 성공한 작물에 대해서는 제주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심도록 했으며 아울러 식생활의 개선도 강조했는데 이는 實生活와 관련된 開化敎學活動이다.

박영효의 이러한 활동은 아직 農村改革運動 次元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지만 원예작물의 권장을 통해 제주도 전통사회의 農業構造를 자극시켰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孤立性和 특수한 자연적 조건에 기인한 제주도 농업의 전통적 모습이 박영효의 권장으로 원예작물이 공존하는 二元的 構造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주도 농업사적 측면에서 큰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영효의 활동은 農村啓蒙運動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계몽운동은 교육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社會敎育의 고전적 양식 가운데 하나로서 특히 社會改良 敎育改革運動의 주요한 흐름이었다.¹³ 즉 박영효는 유배 동안에 농촌개량주의적인 개화교학활동을

13) 平野一郎, 松島鈞 編, 李元浩 譯 『西歐民衆敎育史』 서울: 探求堂, 1985.

하였던 것이다. 물론 제주사람들에 대한 啓導는 원예농사에 국한되지 않고 國運과 국제정세 등의 時國觀은 물론, 近代思想의 講論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에 共鳴하여 박영효의 주변에는 많은 제주사람들이 모여 들어 학문적인 질의와 토론을 나누었다.¹⁴⁾ 박영효는 그 외에도 제주청소년들을 상대로 新學問을 소개하였으며 高子煥의 경우엔 養子로 삼아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김정희나 김윤식에 비해 박영효는 당대의 정치적 비중¹⁵⁾덕에 여러모의 개화교학활동이 활발할 수 있었는데 이런 영향은 제주사람들에게 개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3) 開化教育의 論理

김윤식과 박영효 가운데 특히 近代教育과 관련,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박영효를 들 수 있다. 이렇듯 박영효를 드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 활동적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보다는 그가 내세운 教育의 論理 때문이다.

박영효를 비롯한 급진개화파들이 생각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騷亂을 막고 국가의 安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박영효는 무지하고 몰상식하여 방탕하고 무례한 무리는 是非曲直을 구별할 수 없고 國法도 몰라, 한 번 민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편승, 참혹하고 흉폭한 행위를 제멋대로 하며 또한 目前의 利慾을 위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惡行을 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14) 金膺銓, 金膺彬, 金昌鎬, 金鍾河, 宋斗玉, 蔡龜錫, 金亮洙, 金熙斗, 洪鍾時, 崔元淳, 張容堅, 蔡洙康, 安秉宅, 金弘翊, 金根耆 등이 그들이다.

15) 流配期間 중 哲宗의 사위라는 직품의 혜택을 받았다.

그는 역으로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아 學識의 귀중함을 아는 자는 心力을 쏟고 재산을 털어서라도 학업에 노력하여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禍防禦未然’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소위 ‘治安을 위한 教育’이라는 이러한 논리는 韓末에 庚寅民亂(1890), 丙申民亂(1896), 房星七亂(1898), 辛丑民亂(1901) 등으로 혼란의 연속이었던 제주도에서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박영효의 유배를 앞두고 일어났던 신축민란은 天主教徒들과 제주도 민중 사이의 충돌로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만큼 후유증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치안을 위한 교육이라는 논리가 박영효에 의해 크게 강조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박영효에게 있어 民衆이란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서 교육이 없이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 愚民에 불과하였다. 환언하면 개화사상에 있어 民衆觀은 자각한, 혹은 자각할 능력을 갖고 있는 민중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계몽해야 할 愚民이었다. 박영효가 주장한 계몽이란 민중의 自生的 努力을 끌어내려고 하는 思考가 걸여된 것으로서 군주의 정치적 영지에 호소하고 僞政者의 理性을 기대하는 이른바 啓蒙專制主義에 불과했다. 이렇듯 개화파 교육사상의 본질은 민중에 대한 지적인식 보다는 德性の 涵養을 강조하는 教化思想이었다. 그것은 부르조아 계몽주의의 한계를 나타내는 한편 민중을 치안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화파의 교육사상은 봉건적교육을 부정하고 문명개화를 추진

16) 朴泳孝, 『建白書』. 이 建白書는 정변 실패후 일본에 망명했던 박영효가 1888년에 개화를 거듭 주장했던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올린 원문은 「日本外交文書」 제12권에 수록되어 있다.

하는 근대교육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보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교육을 인권의 실현과정으로 파악하는 근대교육사상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福澤諭吉의 교육계몽주의를 통해 형성된 박영효의 계몽전제주의는 한국교육사적 측면에서 近代的 學校制度의 創設, 義務教育의 實施, 近代學問의 導入, 國史, 國文의 重視 등의 획기적인 내용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계몽전제주의에 입각하여 박영효가 개화 교학활동에서 제시한 근대교육의 논리는 제주도의 봉건적 교학분위기를 자극하는 데는 결정적이었으며 濟州島 教育史에 있어서 굵은 획을 긋는 중요한 내용이다.

第 5 章 結論

教育史는 教育現象의 歷史性を 규명하는 正언한 理論體系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教育史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뚜렷한 史觀提示와 科學的 說明體系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치밀한 求證行爲가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求證行爲란 단순한 文獻考證의 의미라기 보다는 G.Lukács의 표현대로 具體的 總體性에 입각한 實證的 歷史解釋方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地方教育史 研究의 임무는 비단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濟州 教育史와 같은 邊方의 教育현상에 대한 탐구는 일차적으로 停滯論이라는 함정을 극복하여 나름의 內在的 教育發展法則을 모색해야 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은 歷史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어떤 필연적인 歷史法則에 따라 전개되어 간다고 주장하는 歷史主義的인 要求라기 보다는 제주인들 스스로가 濟州 教育史의 能動的인 創造者라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主體性 確保의 問題이다. 즉 제주도는 중앙정치에 일방적으로 壓倒되었다는 歷史認識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내부의 教育的 力動性を 간과하고 그 主體設定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위한 노력이 並行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제주인이 教育의 主體가 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歷史的 原因을 밝히고 교육적으로 客體的 立場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教育的 主體力이 확대되던 상황의 對峙構造를 설명함

으로써 제주 교육의 思想史的 發展法則을 규명하고자 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朝鮮前期는 中央의 對濟州島 政策으로 教育의 形式的 基盤이 조성되던 시기이다. 中央의 政策은 크게 選上政策, 地方官 派遣, 圖書政策, 科擧政策, 鄕校設立 등으로 大別되는데 이러한 中央集權의 教育的 一元化 政策次元에서 教育의 形式的 基盤이 強制移植된다. 특히 이 시기는 選上政策과 特別試取를 통해 濟州學人들이 배출되고 이들의 활동은 濟州教育思想史의 脈을 형성하는 契機가 된다.

朝鮮中期의 제주인에 대한 出陸抑制政策은 제주도의 對外 教育進出을 封鎖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 교육을 孤立, 疲弊化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橘林書院의 건립을 통해 나름대로 形式教育의 活力을 모색하게 되며 여기에 金淨, 金尙憲, 鄭蘊, 宋麟壽, 宋時烈이 배향되어 제주도 教育精神의 象徵的 役割을 한다. 이 시기에 들어 빈번해진 黨爭流인과 濟州人과의 教育關係로서 師友講習의 형태는 제주 특유의 教育構造로 정착되어 제주 교육의 思想史的 繼承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제주도 특유의 教育關係는 그 教育內容으로 性理學的 教義는 물론이지만 그 배경에는 士禍나 黨爭 같은 優勝鬪爭의 政治感覺이 깊게 내재하고 있어서 제주도 특유의 分離主義的 性向과 유배인들의 體制批判的 政治性向이 조화됨으로써 육지부의 教育精神과 對比되는 면모를 보인다.

朝鮮後期에 出陸抑制政策이 해제되면서 제주인의 教育的 自生力은 補強, 擴大되는 기회를 갖게된다. 出陸에 의한 直接受業을 통해 教育의 主體的 活力이 확보되며 이를 계기로 나름의 鄕黨文化圈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자생력은 조선조의 學問的 零落期인 朝鮮後期에 들어 제주도로

하여금 教育의 主體的 力量을 보강시켜주는 教育內容이 되어줌과 동시에 근대 이후 制限 運動的 力量으로 결집, 表출되어 變革性과 健康性을 기반으로 한 제주 教育의 특징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자리마련에는 流配敎學活動의 영향도 함께 가세된다. 특히 시대적 각성으로 나타난 實學은 金正喜의 유배로 유포될 수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제주도 특유의 倣巷文化運動이 전개된다. 시대적 갈등에 대한 正統儒學의 대응방식이었던 斥邪衛正은 崔益鉉의 流配敎學活動과 제주인들의 출륙에 의한 奇正鎭과의 執贊關係에 의해 전수된다. 애초 제주도의 鄉黨文化는 초기에는 조선조의 嶺南學派나 畿湖學派 등 어느 특정 學派나 學風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오히려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鄉黨文化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나 기반이 빈약하였지만 朝鮮後期에 들면서 畿湖學派의 學風과 연계되고, 또한 제주도 특유의 倣巷文化運動이 전개되면서 나름의 鄉黨文化가 유지된다. 물론 여기에는 제주도 전통의 巫俗的 教育文化가 對峙的 教育構造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제주인의 교육적 자생력은 朝鮮末期에 들어서면서 近代教育 추진의 思想史的 動因으로 변모된다. 이러한 변모의 과정은 곧 조선조全般에 걸친 제주 教育의 사상사적 계승을 그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주 教育 특유의 주체적 역동성이 發展的으로 貫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들어 近代教育思想에 기반을 둔 教育的 覺醒과 大衆的 教育運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근대교육사상의 배양에는 제주인들의 주체적 능력과 함께 開化敎學活動의 도움이 작용하였다.

조선조 제주 教育사상사의 전개과정에서 얻어진 결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示唆點은 대개의 한국교육사 서술의 경우 朝鮮中期를 學問的 燦熟期로

朝鮮後期는 學問의 零落期로 설정하고 그 이유를 道學理念과 制度教育의 성쇠에서 찾는데 반해 제주 교육사상사의 경우는 이러한 범주 설정이 反轉됨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즉 제주 교육사상사의 입장에서 파악하자면 제주도의 경우는 朝鮮 後期에 들어 비로소 제주인들이 教育主體로 성장하게 되며 교육적 활력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야말로 小農民들이 자립적 경제기반을 그 物的 根據로 하여 봉건적 교육구조에 대항하는 階層의 個別的 教育構造를 획득하였던 시기로서 제주인들의 주체적 자각과 出陸抑制政策의 해제를 토대로 하여 유배인들에 의한 一方的이고도 施惠的인 教育構造에 對比되는 제주도 나름의 教育構造를 획득하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기는 근본적으로 封建特權階級의 封建的 收奪에 대한 강력한 問題意識과 對抗으로 상징되는 제주인들의 教育的 變革性과 健康性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교육은 일정한 生産樣式 가운데서 그 生産關係에 맞는 思想, 意識, 態度를 만들고 현존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生産諸力의 발달에 照應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反體制的, 變革的인 기능을 하는 緊張關係 속에 놓여 있게 된다. 제주 교육의 變革性과 健康性은 이미 桎梏이 된 당대 사회체제의 내부모순을 깨고 社會的 生産力과 思惟樣式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려는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 신선한 형태로 진지하게 제기된 教育的 要求였던 것이며 나아가 잔존하고 있는 封建的 意識과 收奪을 정당화하는 保守的인 교육에 대항하기 위해 개진된 變革的 教育思想의 核心 內容이었던 것이다.

제주인들의 變革的 教育思想은 애초 獨立國家의 전통에 바탕을 둔 分離

主義的 性向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流配人에 의한 教學活動의 功過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政治的 優勝鬭爭의 결과로 내도한 流配人들의 反體制的 理想主義 같은 정치감각은 제주인들의 分離主義的 精神文化와 照應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제주인들의 教育的 自生力을 강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었다. 즉 反體制的 理想主義는 당대의 객관적인 제모순을 반영하고 또 그것의 극복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인 성질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유토피아적 教育機能은 제주도 특유의 分離主義的 精神文化 體系를 正當化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解放的 論理를 세우는데 이바지된다. 새로운 解放的 교육이 대을로기는 제주도 특유의 강고한 共同體 意識과 傳統에 근거하여 후일 봉건적 수탈에 대한 對抗運動이나 反帝·反封建의 救國運動 內容으로 개진된다.

인간의 生存方式을 지도하는 教育實踐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의 客觀的인 諸矛盾의 克服을 시도해야 하며 그것과의 대결을 둘러싸고 일정한 思想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마련이다. 反體制的 理想主義가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教育기능은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위치한 歷史, 社會的 現實의 矛盾이나 課題를 드러냄으로써 조선조 제주도 教育現實의 總體를 반영하고 나아가 그 교육현실을 논리적으로 再構成한다는 점에서 제주도 특유의 교육사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유토피아적 教育기능은 個別的인 教育權을 기조로 획득되고 나아가 共同體의 媒介에 의해 발전적으로 繼承되면서 제주도의 교육사상의 論理的 根據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조선조의 지배계급이 中央集權的 統治構造 內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한, 教育權은 분명히 國家機構의 전유물이었다. 다만 국가의 教育權은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인 특정 共同體 속의 支配集團에 의해 시행될 수 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地主 - 佃戶制라는 生産關係가 관철되기 시작하는 16세기 이후, 파견 地方官에 의한 教育權이 在地良班層의 자치기구로 위임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在地支配集團의 교육권은 개별적으로는 끊임없는 國家의 公認, 즉 科擧의 입격이나 집단적으로는 書院에 대한 賜額과 같이 분명한 委任의 表徵이 教育權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교육권 문제는 적어도 조선조 제주 교육의 특징인 유배인과 제주인과의 師友講習의 교육구조에서만은 예외일 수 있었다. 그것은 내용과 성격에 있어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라는 논리에 反하는 일련의 主體的인 요소가 강했고 國家委任의 表徵 같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위 個別的인 教育權이 인정되면 教育構造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反體制的 理想主義와 같은 유토피아적 教育機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조선조 제주 교육의 유일한 전통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때로 教育傳統의 繼承은 當爲論的으로 얘기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繼承發展論을 얘기하기에 앞서 과연 과거의 교육적 전통이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진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繼承의 價値는 다른 무엇보다 교육의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歷史의 發展方向에 대한 理解와 問題意識을 갖고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교육의 歷史精神과 力動性이 제대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제주 교

육은 제주도 나름의 歷史 發展方向에 대한 理解와 問題意識을 갖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의 교육적 전개과정은 일반적으로 전통교육의 그것과 이질적인 것으로 서술되지만 그러나 朝鮮朝 以後의 濟州 教育의 思想的 展開推移는 一般 民衆의 教育參與를 실천적 과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民族教育化의 착실한 진전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制度史的인 측면에서는 近代를 기점으로 異質性을 지적할 수 있으나 思想史的인 면에서는 제주 교육 나름의 土着的이고 主體的인 力動性이 近代의 以前과 以後를 發展的으로 貫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볼 때 제주도 교육의 전개과정은 傳統教育 → 近代教育(日帝 植民地教育)이 아니라 傳統教育 → 傳統教育의 力動性을 기반으로 한 自生的 教育精神의 萌芽 → 日帝 植民地教育에 의한 自生的 近代教育의 挫折로 이해할 수 있다.

朝鮮朝를 관류하고 있는 제주 교육의 力動性은 跛行局面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의 제주 교육에 뜻깊은 示唆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現代의 제주 교육은 역사적으로 조선조 제주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는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고유의 變革性과 健康性을 상실한지 오래다. 따라서 현대 제주 교육은 한국교육의 矛盾構造, 더 나아가 韓國社會의 矛盾構造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교육에 대한 科學的 認識은 제주 교육이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의 方向設定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解決策을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는 각 입장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겠지만 제주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現金經濟에 편입된 주민이 관광이라는 미명

하에 그들의 文化를 매도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階級矛盾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서 文化의 商品化 그로인한 文化의 化石化는 제주인들로 하여금 濟州島的인 것에 대한 卑下意識을 조장하고, 심각한 계층간의 갈등현상을 증폭시킴으로써 나아가 제주 교육의 현실 자체를 疎外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와 같은 疎外된 現實 속에서 교육적 이데올로기는 Hegel의 표현대로 ‘善惡이 반대적인 것으로 뒤바뀌는 體驗’을 조장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朝鮮朝 濟州 教育이라는 것이 조선조 당대의 모순 구조로 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드러내고 있는 제주인의 教育的 主體性的 內容은 현대의 제주 교육의 모순 극복을 위한 강력한 示唆를 암시하고 있다. 제주 교육의 主體性은 바로 그 現實性 때문에 具體的 유토피아의 實現方法에 관심을 집중하는 “方法的 유토피아”에의 지평을 열어 놓은 것이기에 적어도 현대의 제주 교육의 모순 타개를 위해서는 조선조 제주 교육의 歷史發展에 따라 재고된 主體性的 수준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망각되었던 제주 교육의 유토피아적 기능이 마땅히 고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의 제주 교육은 그러한 主體性和 유토피아적 教育機能을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으로 實現시키고 媒介하는 새로운 地方教育의 樣式을 선취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알려진 辯證法的 관점에서 볼 때 過去의 이념들은 현대 제주 교육의 矛盾 批判과 그에 따른 유토피아적 教育機能의 구제를 위해 그 기능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같은 점은 비단 현대 제주 교육의 모순 극복만을 위한 시사는

아님이 분명하다. 朝鮮朝 濟州 教育이 내재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기능은 분명히 한국교육의 제반 모순에 대한 省察的 機會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教育의 根源的 機能에 대한 洞察, 批判, 反省의 機會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解釋學的 循環이 보다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사 연구라는 것이 種族主義와 같은 偏狹性에 자족하기 보다 普遍性和 特殊性에 대한 概念的 緊張을 잃지않는 수준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수준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示唆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교육사상사 연구의 발전적 경향이 再考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방과 다른 지방 혹은 다른 나라와의 比較研究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교교육학적 논의는 제주 교육사 연구라는 것이 자칫하다가 빠지기 쉬운 편협한 種族主義를 극복할 수 있는 代案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資 料

- 『經國大典』
『國朝寶鑑』
『己卯名賢錄』
『己卯諸賢傳』
『大東野乘』
『大典會通』
『東國史略』
『備邊司牒錄』
『小學』
『承政院日記』
『瀛州誌』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耽羅文獻集』
高得宗，『救弊俗興政狀』
——，『條例十箇條』
金富軾，『三國史記』
金尙憲，『南槎錄』

金 堉，『海東名臣錄』。
金錫翼，『耽羅紀年』。
——，『耽羅觀風案』。
——，『耽羅人物考』。
金允植，『續陰晴史』。
金宗直，『佔畢齋文集』。
金 淨，『冲庵集』。
金正喜，『阮堂先生全集』。
金春澤，『北軒集』。
金致仁，『增補文獻備考』。
南萬里，『耽羅誌』。
南孝溫，『秋江集』。
朴世采，『東儒師友錄』。
朴泳孝，『建白書』。
宋時烈，『宋子大全』。
李肯翊，『燃黎室記述』。
李栗谷，『聖學輯要』。
李源祚，『耽羅誌草本』。
——，『耽羅錄』。
李元鎮，『耽羅志』。
李 滉，『退溪全集』。
李 荇，『新增東國輿地勝覽』。
林 悌，『白湖集』。
任徵夏，『西齋集』。

鄭道傳,『三峰集』

鄭 蘊,『桐溪集』

崔益鉉,『勉菴集』

■ 單行本

高 奇,『中國現代教育史』이승민譯, 서울:四季節,1988.

金奉玉,『濟州通史』濟州:濟州文化,1987.

金善陽 外,『韓國의 教師像』서울:創知社,1981.

金玉姬,『濟州島辛丑年教難史』濟州:天主教濟州教區,1980.

金雲泰,『朝鮮王朝行政史』서울:博英社,1983.

金仁會,『韓國人の 價值觀 - 巫俗과 教育哲學 -』서울:文音社,1979.

金仁會 外,『韓國教育思想研究』서울:集文堂,1983.

金在萬,『教育哲學·史』서울:螢雪出版社,1984.』

金宗業,『耽羅文化史』濟州:조약돌,1986.

金泰能,『濟州島史論攷』서울:世起文化社,1982.

南廷杰,『社會教育行政論』서울:教育科學社,1988.

朴用厚,『濟州島誌』서울:白映社,1976.

_____,『南濟州郡誌』서울:상조사,1978.

_____,『慕瑟浦』濟州:濟州文化,1990.

裴宗鎬,『韓國儒學史』서울:延世大學校出版部,1986.

朴致聖,『教育史』서울:檀大出版部,1986.

孫仁洙,『韓國近代教育史』서울:延世大學校出版部,1983.

申得烈,『教育哲學』大邱:學文社,1981.

愼鏞廈,『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서울:文學과 知性社,1980.

- _____, 『社會史와 社會學』.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李基東, 崔一凡 共譯, 서울: 驪江出版社, 1978.
- 梁淳珪,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 1983.
- 吳文福, 『瀛州風雅』. 濟州: 韓一印刷社, 1988.
- 吳麟鐸 外, 『現代教育哲學의 展望』. 서울: 教育科學社, 1982.
- 劉明鍾, 『韓國思想史』. 大邱: 以文社, 1981.
- 尹絲淳, 『韓國儒學思想論』. 서울: 얼음사, 1986.
- 李圭煥, 『批判的 教育社會學』. 서울: 한울, 1987.
-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84.
- 李萬桂, 『朝鮮教育史』. 서울: 乙酉文化社, 1949.
- 李秉杰, 『朝鮮王朝 畿湖士林派研究』. 서울: 一朝閣, 1987.
-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大邱: 嶺南大學校出版部, 1984.
- 李榮薰, 『朝鮮後期 社會經濟史』. 서울: 한길사, 1988.
- 長尾十三二 外, 『新教育運動史』. 송일지 譯, 서울: 한마당, 1985.
- 鄭玉子, 『朝鮮後期 文學思想史』. 서울: 서울大學敎出版部, 1990.
- 丁淳睦, 『退溪의 教育哲學』. 서울: 知識産業社, 1986.
- _____,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大邱: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9.
- _____, 『中國書院制度』. 서울: 文音社, 1990.
- 조혜정, 『韓國의 女性和 男性』.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8.
- 濟州教育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 濟州教育通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通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4.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1~10號), 濟州大學校, 1982~90.
- 濟州島研究會, 『濟州島研究』. (1~6輯) 서울: 大學社, 1984~90.
-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查(其二) -濟州道-』, 1929.

- 車錫基,『教育史教育哲學』서울:集文堂,1988.
- 崔在錫,『濟州島의 親族組織』서울:一志社,1979.
- 平野一郎,松島釣 編,李元浩 譯,『西歐民衆教育史』서울:探求堂,1985.
- 韓國教育問題研究會,『韓國教育問題研究』서울:푸른나무,1989.
-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編,『教育思想家評傳』서울:教學研究社,1987.
- _____,『韓國儒學思想과 教育』서울:三一閣,1976.
- 韓國教育史研究會,『韓國教育史研究의 새 方向』서울:集文堂,1982.
- 韓國經濟史學會,『韓國史時代區分論』서울:乙酉文化社,1973.
- 韓國社會史研究會,『韓國 古·中世 社會의 構造와 變動』서울 :
文學과 知性社,1988.
- _____,『社會史 研究의 理論과 方法』서울:文學과 知性社
1988.
- 韓國哲學會篇,『韓國哲學史』서울:東明社,1989.
- 韓基彦,『韓國教育史』서울 : 博英社,1963.
- _____,『韓國教育思想史研究』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1969.
- 黃源泳,『教育哲學』서울:大恩出版社,1985.
- _____,『教育社會學』서울:文運堂,1988.
- 玄相允,『韓國儒學史』서울:民衆書館,1977.
- 玄容駿,『濟州島巫俗研究』서울:集文堂,1986.

■ 外 書

- 城塚登 編,『社會思想史入門』東京:有斐閣,1980.
- 林語堂,The Gay Genius, 合山究 譯,『蘇東坡評傳』東京:明德出版社,1978
- 中野光 外,『教育思想史』東京:有斐閣,1984.

篠原助市,『歐洲教育思想史(上,下)』東京:創元社,1950.

Bertram D.W.,Three Who Made a Revolution:A Biographical History.

rev.ed.New York:Dell Publishing Co.1964.

Brubacher,J.S.,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INC, 1947.

_____,Modern Philosophies of Education,New York: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70.

Boyd,W. & King,E.J.,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London:Adam &

Charles Black, 1975.

Burger,T., Max Weber's Theory of Concept Formation,History,Laws,and

Ideal Types, Durham,NC:Duke Univ.Press, 1976.

Byrant,C.G.A., Positivism in Social Theory and Research, London:

Macmillan Pub.LTD. 1985.

Collingwood,R.G., The Idea of History, Oxford:Clarendon, 1946.

Cordasco,F., A Brif History of Education,Totowa:Littlefield,Adams &

Co. 1976.

Cowburn,W., Class, Idelogy and Community Education,London:Croom

Helm,1986.

Curtis,B.& Mays,W., Phenomenology & Education,London: Methuen & Co.

LTD. 1978.

Debbins,W(ed)., Essays in the Philosophy of Histor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Ehrard,J., "Histoire des idées et histoire littéraire", Problèmes

et méthodes de l'histoire litteraire, Publication de la

- Société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Paris, 1974.
- Febvre, L., "Leur histoire et la nôtre", Annales d'Histoire Economique et Sociale (1928), reprinted in Combats pour l'histoire, Paris, 1953.
- _____, Vers une histoire, in Combats pour l'histoire, 1953.
- Flitner, W., Allgemeine Pädagogik, Stuttgart: Klett-Cotta, 1950.
- Freire, P.,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0.
- Hospers, J.,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imited, 1973.
- Iggers, G. G., New Direction in European Historiography,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 Press, 1975.
- Kecskemeti, P.,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 Kocka, J., Sozialgeschichte, Begriff - Entwicklung - Probleme : Göttingen, 1977.
- Kosik, K., Dialectics of Concrete, Dordrecht & Boston: Reidel, 1976.
- Lukas, G.,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71.
- Macdonald, J., A Philosophy of Education,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65.
- Mannheim, K., Ideology and Utopia, reprinted in paper edition, New York: Harvest, 1955.

- Mayerhoff, H., The Philosophy of History in our Tim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59.
- Monroe, P.,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6.
- Silver, H., Education as history, New York: Methuen & Co. 1983.
- Spiegelberg, H.,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2.
- Strain, J. P., Modern Philosophies of Education, New York :
Random House, 1971.
- Trusted, J.,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Knowledg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 Ulich, R.,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50.
- Wynne, J. P., Theories of Education, New York: Haper & Row, 1964.

ABSTRACT

A Study on Cheju Education in the Yi Dynasty, through a History of Thought

Yang, Jin geon

Dep.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Advisor: Prof. Hwang, Won-Young

This paper dicusses a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in Cheju Island, based upon specifics of the spiritual culture peculiar to it. This study affirms Historismus Ontologie in the sense that it attempts to confirm Chejulians' historical existence. I attempt to show a phase of local education in the Yi Dynasty by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educational history which gives first consideration to the powerelite-centered depiction of the history of the center. This study borrows a social history of thought (*histoire sociale des idées*) methodology and G. Lukács' concept, totality, so as to support this purpose.

I, above all, look in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Cheju Island and its historical, cultural and geographical features. At the

same time, I closely examine the educational meaning of various social functions such as official pressure to work on the mainland(出陸抑制政策) and exile policy(流配政策), as the realistic conditions of Cheju education in the Yi Dynasty. The core of this study, the discussion on a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in Cheju in the Yi Dynasty, illustrates the educational features of each period by dividing the Yi Dynasty into 4 periods, based upon the process of the educational reality at that time and depicting the concrete features of each period, classified by themes.

The first period in the Yi Dynasty covers the time from Taejo(1392) to Injong(1545). During this period, the metaphysical idea of a national education system was emphasized in the area of consolidating the system, with the result that Cheju education was objectified. Therefore, I principally discuss why Cheju education in the first period was confined to objective position and how Cheju Island accepted the idea of metaphysical feudalism education through a counter-Cheju policy, with features such as selection, provincial governor, publication, Hyangkyo(鄕校), and the state examination.

The second period covers the time from Myongjong(1546) to Shookjong(1720). During this period, Cheju education had been isolated due to blockading educated Chejuans' entry into the mainland under the official pressure to work on it. At the same time, autonomous educational vitality was groping through erection of

Sowon(書院), including a master and friends short course with Confucian scholars creating partisan strife. Therefore, in examining the features of the second period, I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of Kyulleem academy(橘林書院) in Cheju and the exiles who came to this island as an isolated reality of Cheju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 function.

The third period covers the time from Kyongjong(1721) to Kojong(1896). During this period, Chejuians' exaltation of a critical mind regarding the change and the conflict of the period made it possible to expand their educationally autogenous power and to build their capability for checking and overcoming a policy of suppression in the system. For this reason, taking direct lessons on the mainland enabled Chejuins to expand educational subjectivity. So, I centrally discuss the background, the contents, and a process of development of educational subjectivity. I also look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Chejuians' educational subjectivity and practical science(實學) which came to the fore as a political current against metaphysics, in general and orthodox metaphysics, Weejongchoksa(衛正斥斯) thought, in particular.

The fourth period covers the time from Kwangmo,1 (1897) to Yoonghee,3 (1910). During this period, the educational subjectivity of the third period had been sublimated into a modern educational movement. So, I discus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opening

Chejuians' eyes about an autonomous modern education system.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enlightenment thinkers and Chejuians is also discussed in the light of the process of modern educational thought.

According to these features, what they suggest are as follows;

1. The example of the tradition of educational thought being formed by a master and friends short course between Chejuians and the exiles is an educational structure peculiar to Cheju Island.

2. Cheju education made a qualitative conversion due to acquiring the individual structure of education of a class, based upon the experiences of the third period.

3. The educational strength subjective to and native to Cheju, developmentally flowed throughout the Yi Dynasty.

These suggestions are useful for present education in Cheju and are of great significance as references to the vitality and direction in education.